



# 정답과 해설



본책 ..... 02

시험 대비 문제집 ..... 37

## 1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사회를 비추는 문학

###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사회 문화 02 (1) × (2) ○ (3) ○ 03 ③

01 시대의 사회 환경과 문화, 사상 제도 등 전반적인 상황과 모습을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한다.

02 (1) 문학 작품의 배경은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주제와 관련되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상징하거나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2) 문학 작품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작품 속 소재 등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문학 작품에는 현실을 반영하므로,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0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품 속 사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며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개연성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문학 작품은 현실을 반영하여 창작된다.  
②, ⑤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작품 속 소재 등을 통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④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작품 창작의 배경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 한습곡

009~026쪽

011쪽 발단 소주제: 슈퍼

- ① 안테나, 도시
- ② 연탄

016쪽 전개 소주제: 가격

- ① 쌀, 연탄
- ② 이익

019쪽 위기 소주제: 싱싱 청과물

- ① 상가
- ② 과일

023쪽 절정 소주제: 동맹

- ① 형제, 김 반장
- ② 현실

026쪽 결말 소주제: 원미동

- ① 떡, 새우
- ② 전파상
- ③ 대조

###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09~026쪽

011쪽 (1) 노상 (2) 품팔이

015쪽 (1) ○ (2) ×

017쪽 (1) 거지반 (2) 청과물

019쪽 (1) 일체 (2) 일절

021쪽 (1) ○ (2) ○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09~026쪽

009쪽 01 ① 02 ⑤

010쪽 03 ⑤ 04 ④ 05 ⑤

011쪽 06 ② 07 ⑤

012쪽 08 ② 09 ③ 10 ④

013쪽 11 ⑤ 12 ⑤ 13 ①

014쪽 14 ① 15 ② 16 ①

015쪽 17 ③ 18 ④

016쪽 19 ① 20 ① 21 ㉠: 김포 슈퍼, 형제 슈퍼 ㉡: 원미동 사람들(동네 사람들)

017쪽 22 ④ 23 ④

018쪽 24 ① 25 ⑤ 26 ②

019쪽 27 ③ 28 ②

020쪽 29 ① 30 ③

021쪽 31 신정 연휴 32 ④

022쪽 33 ① 34 ④

023쪽 35 ① 36 ⑤ 37 ④

024쪽 38 ② 39 ③

025쪽 40 전파상 41 ③ 42 ②

026쪽 43 ⑤ 44 그리고 빈 자리에는 이른 봄별만 엄청 푸졌다. 45 ④

01 발단 2에서 여름의 원미동 거리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온 동네 사람들로 자정 무렵까지 북적였으나, 겨울의 원미동 거리는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한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발단 2의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발단 2의 '그러저러 겨울이 깊어가던~화제도 시들해져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발단 2의 '요즘 집집마다 유행처럼~붙어 앉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발단 2의 '옥상마다 다닥다닥 붙어~집도 더러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발단 2에서 집집마다 유선 방송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텔레비전 보급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 03 '김포 쌀 상회'의 상호가 '김포 슈퍼'로 바뀌게 되면서 쌀과 연탄을 배달하는 것 외에 온갖 생활필수품들을 팔게 되었다.
- 04 경호네 내외는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아 가게를 확장할 만큼 부지런하고, 개업 기념으로 돌린 수수팔떡을 두 시루도 넘게 준비할 정도로 인심이 넉넉하다.
- 05 원미동 사람들은 모두 별이가 시원치 않아 형편이 좋지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경호네 내외의 슈퍼 개업일에 일부러 찾아가 격려해 준다. 이를 통해 가난하지만 이웃 간에 인정이 많은 원미동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06 발단 5에서 '복덕방 별이가 시방처럼 가게세도 못 당할 것 같으면 누구라고 문 열어 내놓을라디여.'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흥댁의 부동산 장사가 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07 김포 슈퍼의 풍년 조짐으로는 친절한 경호 엄마, 성실하고 부지런한 경호 아버지, 다양한 취급 품목, 시장이 먼 원미동의 지리적 특성, 김포 슈퍼에 대한 원미동 사람들의 높은 평가 등이 있다.
- 08 김포 쌀 상회가 슈퍼가 되며 형제 슈퍼의 취급품이었던 생필품과 과일 등을 팔자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김포 슈퍼에서 기존에 취급하던 쌀과 연탄을 팔게 되면서 두 슈퍼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09 전개 2에서 서술자는 김 반장이 '썩썩한 총각'이라고 하며 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0 마을 사람들은 김 반장이 얼마 전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느라 어려운 형편이라는 사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반장이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11 김 반장은 형제 슈퍼 옆에 위치하던 김포 쌀 상회가 형제 슈퍼와 같은 품목을 파는 김포 슈퍼로 바뀔 것이라고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 오답풀이** ①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감싸 주기 쉽다는 뜻이다.  
 ②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결과가 된다는 뜻이다.  
 ③ 좁은 세상만 알고 넓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④ 대항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 12 김 반장은 평소에도 형제 슈퍼 근처에 구멍가게라도 들어설까 봐 걱정하였는데,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한 후 장사도 잘되자 불안해했다.
- 13 원미동 사람들은 평소에 김포 슈퍼를 이용하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다고 덕담도 하고 덤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김포 슈퍼를 외면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 14 전개 6에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의 난처한 마음이 드러난다.
- 15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경쟁으로 동네 사람들은 두 슈퍼 주인의 눈치를 보며 물건을 사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16 전개 6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간의 갈등은 경호네와 김 반장 중 누구를 탓할 수 없이 '모두 다 살기 위하여, 어쨌거나 한번 살아 보기 위하여' 벌어진 갈등이라고 하였다.
- 17 전개 7에서는 김포 슈퍼가 형제 슈퍼보다 물건의 가격을 더 싸게 파는 상황이, 전개 8에서는 이에 맞서 형제 슈퍼가 김포 슈퍼보다 가격을 더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18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동네 여자들은 시장보다 훨씬 더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 19 전개 9에서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물건의 가격을 과도하게 내리며 서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
- 20 고흥댁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갈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방금 산 물건을 환불하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에서 같은 물건을 곧장 구입하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21 고흥댁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갈등(㉠) 때문에 자신들(㉡)이 이익을 얻게 된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변형하여 표현하고 있다.
- 22 위기 1에서 미래의 개발 전망이 불투명하고 영세한 점포들만 겨우 문을 열거나 비어 있는 상가가 많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1980년대에 신흥 도시가 개발되었지만 도시 설계가 계획적이지 못해 소시민의 삶의 질이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 23 서술자가 싱싱 청과물의 개업 상황과 그 위치를 설명하며, 싱싱 청과물의 개업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24 무리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지친 상태에서 김포 슈퍼, 형제 슈퍼와 같은 물건을 파는 싱싱 청과물의 개업은 경호네와 김 반장에게 암담한 심정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 25 서술자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의 갈등을 모른 채 이사온 싱싱 청과물이 두 슈퍼 사이에 자리를 잡고 두 슈퍼와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는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 26 경호네 내외와 김 반장은 무리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지쳐 있는 상태였다.
- 27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동맹은 싱싱 청과물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략이었다.
- 오답풀이** ① 절정 2에서 제안은 김 반장이 했지만 구체적인 묘책은 경호 아버지한테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② 절정 1에서 경호네와 김 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자 동네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다고 하였다.  
 ④ 절정 2에서 경호네와 김 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해 돼지갈빗집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를 형님, 아우라고 부르며 신세 한탄도 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였다.  
 ⑤ 절정 1에서 경호네와 김 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으며 두 집의 물건 값이 같아지고 저울 눈금도 확실해졌다고 하였다.

28 고흥택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휴전으로 더 이상 물건을 싸게 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내심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29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동맹을 맺어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두 슈퍼가 싸게 팔자 싱싱 청과물은 해당 품목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다.

30 절정 5에서 동네 사람들은 기어이 싱싱 청과물을 망하게 하려는 김 반장을 비판하면서, 김 반장과 동맹을 맺은 경호네를 비판하거나 옹호하고 있지만 김 반장을 동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절정 5의 '동맹을 맺었을 때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절정 5의 '경호네는 김 반장이 그러다고 따라 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절정 5의 '지독하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절정 5의 '경호네 역시 싱싱 청과물 망하는 꼴 보려고 같이 작당했을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절정 6에서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된다 하여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1949년 양력설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1950년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사흘이 휴일로 지정되었다. 1989년에는 하루만 쉬던 음력설을 사흘 연휴로 개정하면서 1991년부터는 연휴가 줄어들었다.

32 경호네와 김 반장은 물건 값을 싱싱 청과물보다 낮추어 파는 등 의도적으로 싱싱 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했다. 특히 김 반장은 김포 슈퍼를 선전해 주는 등 김포 슈퍼와의 동맹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싱싱 청과물의 영업을 방해하자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을 쫓아온 것이다.

33 싱싱 청과물 사내와 경호네, 김 반장 사이의 갈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게 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드러낸다.

34 지물포 주 씨는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반장과 싱싱 청과물 사내의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였다.

**오답풀이** ① 절정 7에서 경호 아버지는 싱싱 청과물 사내의 항의에,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일 뿐이라고 응수하였다.

② 절정 7에서 김 반장은 싱싱 청과물 사내의 반말에 기분 나빠 하며 말꼬리를 붙잡아 싸움을 시작했다.

③ 절정 7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는 경호네와 김 반장이 자신에 맞서 과도하게 가격을 내린다고 여겨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

⑤ 절정 8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는 리어가 행상으로 미처 팔지 못한 과일을 처분하기 위해 나갔다.

35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경호네와 김 반장의 동맹으로 문을 닫게 된 싱싱 청과물 사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36 시내 엄마는 싱싱 청과물의 폐업을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 인물로, 싱싱 청과물과 공존하지 않으려고 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싱싱 청과물 사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절정 8에서 시내 엄마는 얼핏 보기엔 새댁보다 훨씬 앳되어 보인다고 하였다.

②, ④ 절정 8에서 시내 엄마 내외가 운영하는 씨니 전자에서는 영업이 끝난 후 애수 어린 음악이 흘러나오곤 한다고 하였다.

③ 절정 8에서 시내 엄마는 김 반장을 지독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7 [A]에서 지물포 여자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을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38 으악새 할아버지의 등장은 작품의 분위기를 변환하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암시한다.

39 동네 사람들은 으악새 할아버지가 내는 소리가 마치 가래 굽는 소리나 등에 갈침 맞는 소리 같으며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병이면 듣기 좋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

**오답풀이** ① 결말 2에서 으악새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노인임에도 빨래도 부지런히 하는 등 정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결말 1에서 날씨가 따뜻해지자 으악새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오겠다고 하였다.

④ 결말 2에서 으악새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한과 상처가 있어 소리가 '으악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아닐지를 추측하고 있다.

⑤ 결말 2의 '벌써 한바탕 으악새~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새로운 전파상의 등장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싱싱 청과물이 서로 빛을 갈등을 떠올리게 하여 기존에 있던 전파상인 씨니 전자와의 갈등을 예고한다. 그리고 전파상은 전자 기기 제품을 팔거나 수리하는 가게로 198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다.

41 전파상을 하고 있는 시내 엄마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전파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 싱싱 청과물의 폐업에 마음 아파할 때처럼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2 ㉠은 시내네가 괴롭겠다는 고흥택의 말에 걱정하고 놀란 시내 엄마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43 동네 여자들은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새댁의 말을 듣고, 어려운 생활 형편 때문에 매일 힘들게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라 심란한 표정을 지은 것이다.

44 이 글은 마지막 문장에서 '봄별'을 통해 원미동 사람들의 삶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드러내어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45 이 글은 먹고살기 힘든 소시민들의 애환을 담은 소설로, 작가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

## 활동

028~033쪽

**탐구** 028쪽 1 가격, 싱싱 청과물

029쪽 2 안테나, 도시

030쪽 3 형제 슈퍼, 경쟁, 봄별

**적용** 033쪽 1 태그, 관심

## 학습목

028~033쪽

031쪽 ① 배경 ② 말

033쪽 ① 인터넷 ② 관심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28~033쪽

028쪽 01 ⑤ 02 ⑤

029쪽 03 ⑤ 04 ③

030쪽 05 ⑤ 06 ③ 07 ⑤

031쪽 08 ③ 09 ④

032쪽 10 ② 11 ②

033쪽 12 ⑤ 13 ⑤

- 01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확장하면서 형제 슈퍼에서 취급 하던 생필품을 김포 슈퍼에서도 동일하게 팔기 시작하자 형제 슈퍼에서도 김포 슈퍼가 취급하던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했다. 두 슈퍼의 품목이 동일해지자 두 슈퍼 모두 물건값을 내리며 손님을 유치하려고 했다.
- 02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갈등을 모르던 싱싱 청과물이 두 슈퍼 사이에서 과일 뿐만 아니라 부식까지 함께 팔자 세 가게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 03 이 글에는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로, 연탄과 유선 방송, 옥상의 안테나, 복덕방, 전파상 등이 쓰였다. 그러나 ⑤는 당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므로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04 <보기>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낸다.
- 05 <보기>의 ‘굿’과 ‘고래 싸움’은 이웃 간의 갈등을, ‘떡’과 ‘새우들 배부르는 재미’는 이웃 간의 갈등에서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 <보기>와 같은 말을 통해 이웃의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06 [A]는 싱싱 청과물이 문을 닫게 된 처지를 안타까워 하는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 준다.
- 07 이 글에서 ‘봄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과 대조되는 분위기를 형성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원미동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작가의 위로를 의미한다.

- 08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은 같은 상권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인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다.
- 09 이 글은 어려운 처지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자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10 S# 1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개인 방송을 시청하고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타인과 소통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 11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하트를 받기 위해 게시 글 내에서 태그를 한다는 지혜의 말을 통해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를 바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 12 두 학생은 에스엔에스(SNS)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에스엔에스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 13 이 드라마의 제목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매체에서 받는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 \* 압축파일

035쪽

- ① 소시민 ② 방언 ③ 김포 슈퍼 ④ 싱싱 청과물 ⑤ 산업  
⑥ 고래 ⑦ 원미동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36~038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09 ④

- 01 이 글은 김포 쌀 상회의 확장 개업, 형제 슈퍼의 쌀과 연탄 판매, 김포 슈퍼의 가격 인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외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풀이** ① (다)에서 김 반장이 사투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내용의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②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김 반장과 동네 사람들 등 작중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③, ④ 이 글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인 배경을 설정하여 198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02 동네 사람들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두 슈퍼가 벌이는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을 뿐, 두 슈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김포 슈퍼는 형제 슈퍼의 쌀과 연탄 판매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물건의 가격을 조금씩 인하하였다.

② (라)에서 동네 사람들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벌이는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하자, (다)에서 형제 슈퍼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하였다.

⑤ (다)에서 형제 슈퍼의 쌀과 연탄 판매 이후 동네 사람들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간의 거리가 100미터도 채 못 되게 가깝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03** ‘상회, 연탄, 180원하는 과자’는 1980년대 사회상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 ㉡ ‘쌀’과 ‘저울’은 시대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04** (나)에서 ‘두 집의 물건 값이 같아졌고 저울 눈금도 확실히 하’게 되자 동네 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아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5** (라)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는 경호 아버지와 김 반장에게 화를 내며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그러자 경호 아버지와 김 반장도 싱싱 청과물 사내에 맞서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06** 싱싱 청과물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에 위치하며 두 슈퍼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싱싱 청과물의 개업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동맹을 맺게 되는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07** ㉠(시내 엄마)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동맹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 싱싱 청과물 사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반면 ㉡(지물포 여자)은 세 가게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웃이 처한 고단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과도한 경쟁을 이끈 김 반장을 잔인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② ㉠은 김포 슈퍼의 확장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하지는 않았고, 경호네가 아니라 김 반장을 주로 비판하고 있다.

③ ㉠은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폐업하게 된 싱싱 청과물 사내의 사정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⑤ ㉡은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 세 가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08** **서술형** (라)에서 이 글에 제시된 모든 갈등의 원인이 ‘먹고살기가 힘들니까’라고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하며, 원미동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 보기 위하여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김포 슈퍼, 형제 슈퍼, 싱싱 청과물 간에도 갈등이 벌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09** (라)에서 심란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원미동 사람들의 삶이 제시되고, 이들이 흠어진 뒤 나타나는 ‘봄별’은 그들의 고된 현실과 대조를 이루며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위로를 드러내고 있다.

## 공감하고 조정하는 대화

### 활동

043~048쪽

**탐구** 043쪽 1 하리, 건우

2 격려, 공감대

044쪽 3 비난, 대화

045쪽 3 요청, 대화방

046쪽 5 발표

### 학습목

043~048쪽

044쪽 2 소극적, 요약, 소통

046쪽 1 갈등

2 원인

047쪽 1 존중, 일방적

### 간단체크 활동 문제

039~048쪽

039쪽 01 ④ 02 ③

040쪽 03 ③ 04 ③

041쪽 05 ④ 06 ⑤

042쪽 07 ⑤ 08 ③

043쪽 09 ⑤ 10 ② 11 ⑤

044쪽 12 ① 13 ① 14 ③

045쪽 15 ⑤ 16 ⑤ 17 자신의 욕구 표현하기

046쪽 18 조정, 해결 19 ⑤ 20 ⑤

047쪽 21 ③ 22 원인 23 ②

048쪽 24 ⑤ 25 ⑤

**01** 하리는 민재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앞머리가 어울릴 것 같다고 언급하지만, 세아는 민재의 앞머리에 대해 어떤 평가나 제안을 하지 않고 깜짝 놀라는 모습만 나타난다.

**02** 민재는 건우와 하리에게 자신의 앞머리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요청했지만, 건우와 하리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그건 별로다.”, “그 머리는 너한테 안 어울려.”와 같이 직설적으로 말을 하자 기분이 상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친구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서 기분이 상했다.

②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평가해 준 것이므로, 무관심 때문은 아니다.

④ 큰 소리로 말해서 창피했다는 내용은 만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친구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면 민재가 처음부터 “솔직히 말해 봐.”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03** 민재는 건우와 하리의 부정적인 반응에 기분이 상해 편의점에 같이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후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친구들의 반응에 서운하고 우울하다는 게시 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렸다.

**오답 풀이** ① 민재는 친구들에게 직접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표현하였다.

② 민재가 미용실에 가서 앞머리를 다시 다듬었다는 내용은 만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민재는 단체 대화방에서 “아니, 난 그냥 집에 갈래.”라고 말한 후 대화방을 나갔을 뿐,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지 않았다.

⑤ 민재는 “난 별로. 먼저 갈게.”라며 편의점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04** 건우는 민재가 올린 글을 보고 “진짜 우리한테 화났나?”라며 민재의 기분이 상한 것을 짐작하고, 다음 날 만났을 때 “어제는 미안해.”라며 사과의 말을 건넸다.

**오답 풀이** ① 건우는 민재가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진짜 우리한테 화났나?”라고 반응하고, 다음 날 “어제는 미안해.”라며 사과의 말로 돌아와 민재가 화난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

② 건우가 민재의 반응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만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건우는 억울해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결심했다.

⑤ 건우는 민재가 글을 올린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말을 반성했다.

**05** 하리는 “솔직하게 말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 “난 이제 개랑 더 대화하고 싶지 않아.”라며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소통을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민재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② 하리는 “난 이제 개랑 더 대화하고 싶지 않아.”라며 화해할 해결책을 찾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③ 하리는 민재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차갑게 대하는 민재의 태도에 “우리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라며 민재를 비난했다.

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민재 때문에 기분만 상했어.”라며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갈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06** [A]에서 세아는 건우가 말하는 내용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다시 말하고 있다. 이는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에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요약하기 및 재구성하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집중하기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격려하기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처럼 상대가 말을 이어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③ 반박하기는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④ 경험 공유하기는 “나도 동생이랑 다투었을 때~”처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07** 건우는 민재에게 “그런데 네가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서”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전달하고 있다. 주관적인 해석과 자신의 판단으로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건우는 “너한테 도움이 되려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그만 네 기분을 상하게 했어.”, “우리가 네 기분을 배려하며 말하지 않아서 네가 서운했을 것 같아.”라며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② 건우는 “나도 당황스럽고 속상하더라고.”라며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건우는 “나는 우리가 언제든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사이이길 바라거든.”이라며 자신의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건우는 “앞으로는 네 마음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주면 좋겠어.”라며 민재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08** 민재는 “그래, 말도 없이 대화방을 나가 버린 건 내가 심했던 것 같아. 이제 됐지?”라며 건우가 속상함을 느꼈다고 말한 지점에 대해 답을 해 주었을 뿐, 자신의 기분이 왜 상했는지,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 무엇인지 등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다. 즉,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표면적으로만 마무리되어 찝찝함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건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민재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않았다.

②, ⑤ 민재가 찝찝함을 느낀 직접적 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재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낼 수 없거나, 하리와 함께 사과하러 오지 않아 찝찝함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건우는 “정말 미안해.”라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09** [A]에는 친구들에게 벌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만, 친구들이 사과를 받지 않은 민재를 지적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세아는 건우의 말에 집중하며 공감을 표하고 있을 뿐, 건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세아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라며 건우가 말을 이어 가도록 격려하였다.

③ 세아는 “나도 동생이랑 다투었을 때 서로 감정이 상해서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거든.”이라며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④ 세아는 “네가 사과했는데도 민재 기분이 안 풀린 것 같아서 걱정되는구나. 민재가 또 쌀쌀맞게 대할까 봐 말을 걸 용기가 안 나기도 하고.”라며 건우의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재구성하였다.

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1** <보기>에서 건우는 민재의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세아는 이와 같은 고민을 가볍게 치부하고 있다. 따라서 건우는 이러한 세아의 반응에 서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세아는 건우에게 의미 없는 반응을 할 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④ 건우는 민재와의 갈등을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었으므로, 무심하게 넘기는 세아의 태도를 배려라고 생각하거나 민재에 대한 미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③ 건우는 민재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므로 밥 먹을 생각에 즐거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공감하는 대화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거나 상대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봐 주는 것이 공감하는 대화의 핵심이다.

**13**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에서 소극적 들어 주기에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집중하기’와, 상대가 말을 이어 가도록 격려하는 ‘격려하기’가 포함된다.

**오답 풀이** ② 요약하기는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것으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③ 재구성하기는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④ 경험 공유하기는 상대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⑤ 상대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하리는 “우리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 “아침부터 민재 때문에 기분만 상했어.”라며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민재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하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침부터 민재 때문에 기분만 상했어.”라며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② 하리는 더 이상 민재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을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④ 하리는 현재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을 뿐, 민재가 과거에 한 잘못을 들춰내고 있지는 않다.

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부터 기분만 상했어.”라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15** 건우는 “앞으로는 네 마음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주면 좋겠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가 해 주었으면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16** 민재는 갈등 당사자에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ㄴ), 단체 대화방 퇴장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시 글 올리기처럼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는 (ㄷ) 우회적인 방식(ㄹ)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가 갈등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민재는 건우와 하리가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 대화를 요청해도 소극적으로 응했다.

ㄴ. 민재는 갈등 상황이 벌어진 이후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17** 민재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해 주길 바랐다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먼저 잘 파악하고 전달하는 태도는 상대가 민재의 입장을 오해 없이 이해하도록 하여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18**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는 갈등 상황에서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전달하여 서로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대화 방법을 말한다. 이처럼 진솔한 표현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19** 상대의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억눌리게 되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0** 우주와 현서는 서로 다른 성격과 발표 준비 방식에 대한 생각을 조율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행동했다. 즉 서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현서가 우주를 비난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주가 현서에게 “넌 책임감도 없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구나?”라고 비난했다.

②, ③ 우주와 현서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서가 우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우주가 현서의 외향적인 성격을 질투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④ 우주가 혼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서와 함께 하려고 했으나 현서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자리를 비워 갈등이 생긴 것이다.

**21**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의 잘못을 따지거나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 “넌 책임감도 없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구나?”라며 상대의 인격을 단정 지으며 비난하고, “네가 다 책임져.”라며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의 반발심만 키워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당황스러웠어.”, “화가 났어.”와 같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②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어.”라며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발표 준비를 미리 끝내기를 바랐거든.”과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밝히고 있다.

**22** 현서는 기한이 넉넉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과 그로 인해 우주의 입장을 놓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3** 상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려면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4** 현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는 동시에, 친구의 비난으로 마음이 상했다. 이러한 상황에는 현서의 노력을 인정해 주고 슬픔을 위로해 주는 공감적

인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풀이** ① 문제의 해결을 피하기보다는 갈등을 회피하게 만드는 조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현수가 느끼는 속상함의 원인을 현수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③, ④ 현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거나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현수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25**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개입하여 흐름을 끊거나 공격적으로 반박하면 상대를 무시한다고 여겨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 \* 압축 파일

050쪽

① 공감 ② 갈등 ③ 대화 ④ 집중 ⑤ 경험 ⑥ 원인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51~052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② 08 ①

- 01** 민재는 자신의 달라진 앞머리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칭찬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 질문을 하였으나, 건우와 하리는 민재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직설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듣고 싶었던 격려 대신 냉정하게 지적을 받은 민재의 감정이 상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민재가 솔직한 평가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건우와 하리가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말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② 건우와 하리가 의도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며, 솔직하게 말하려다 민재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다.

③ 민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알았어, 그만 얘기해.”라며 대화를 중단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⑤ 건우와 하리는 민재의 머리 모양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으며, 오히려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 02** 민재는 친구들의 직설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말해 주기를 바랐는지 등의 속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대신 대화의 자리를 피하고 이후에도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민재는 감정을 쏟아내며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

② 민재는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④ 민재는 친구들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분이 상했다.

⑤ 민재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 버릴 정도로 갈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 03** 건우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이길 바라’며, ‘솔직하게 말해 주면 좋겠’다와 같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 04** 민재가 자신의 앞머리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은 머리 모양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머리를 잘 자른 것인지 확인받고 싶어서이다. 따라서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민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ㄴ), 앞머리를 직접 자르는 것을 시도한 용기를 높게 평가하며 격려하는(ㄷ) 대화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ㄱ. “이상해.”라는 표현은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안함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ㄴ. 이미 자른 머리에 대해 더 길게 자르지 그랬냐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의 후회나 불안을 부추길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 05** ㉠ “정말?”과 ㉡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는 상대가 말을 이어 가도록 격려하는 ‘격려하기’의 방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집중하기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요약하기는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 다시 말하는 것으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재구성하기는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전달하는 것으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경험 공유하기는 상대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06** 갈등 해결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면 상대의 정서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 07** 우주는 ‘현서에게 가서 다시 자료를 찾자고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서에게 같이 자료를 찾을 것을 제안한 것일 뿐,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⑤ 우주는 현서의 상황을 묻기 전에 “책임감도 없이 일을 미루는구나?”라며 단정 짓고 비난했는데, 이는 상대의 반발심을 키울 수 있다.

③ 우주는 감정이 상해 자신의 속마음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는데, 이는 갈등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④ 현서가 왜 조사를 다음에 하자고 했는지 이유를 들어보지 않고 할 일을 미룬다며 즉각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 08**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면 상대가 어떻게 해 주길 바라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주는 [A]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밝혔으므로, 이어지는 [A]에서는 갈등

의 재발을 막기 위한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④ 과제에서 상대를 제외하거나 역할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③, ⑤ “너는 왜 항상 책임감 없게 행동하는지”,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과 같은 표현은 상대를 자극하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53~055쪽

-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날마다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라는 뜻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원미동 사람들의 삶을 의미한다. 06 ④ 07 ②  
08 ⑤ 09 ③ 10 ③

01 이 글은 동네 구멍가게들이 슈퍼로 이름을 바꾸며 서로 경쟁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개인 상인들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담고 있을 뿐 대형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골목 상권을 완전히 장악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김포 쌀 상회가 쌀과 연탄을 도맡아 배달했다는 점과 형제 슈퍼가 이에 대항해 쌀·연탄 간판을 내건 점에서 당시 이 품목들이 서민의 생필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이름을 바꾸고 진열대를 늘리는 모습에서 당시 소규모 상점들이 규모를 확장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③ 이웃 사촌이었던 경호네와 김 반장이 생존권을 두고 ‘밀천 잘라먹기식’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자본 논리가 정을 앞서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④ 경기도 부천(원미동)이라는 도시 번두리를 배경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현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02 (나)에 따르면 형제 슈퍼가 쌀과 연탄을 취급하기 시작하고 간판까지 내건 것은 김포 슈퍼의 개업에 발을 맞춘 대응이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따르면 김포 슈퍼는 처음부터 대형 매장이 아니라, 원래 쌀과 연탄만 팔던 ‘김포 쌀 상회’에서 시작하여 가게를 확장한 것이다.

② (나)에 따르면 형제 슈퍼는 구멍가게 수준의 규모였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동네에서 가장 크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나)에 따르면 김 반장은 상생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위해 쌀과 연탄 판매를 시작했다.

⑤ (다)에 따르면 상싱 청과물 주인은 동네 형편을 ‘전혀 모르는 듯’ 무작정 가게를 열어 눈치 없이 행동했다고 하였다.

03 (다)에 따르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날카롭게 대립하던 중, 그 사이에 끼어든 상싱 청과물은 두 가게의 판매 품목(부식 일체)을 모두 취급하였으므로, 마침 경쟁에 지쳐 가던 두

가게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라)에 따르면 두 가게의 동맹으로 상싱 청과물은 폐업을 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두 슈퍼는 상싱 청과물을 도와야 할 이웃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② 상싱 청과물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가게가 연합하여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④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 싸움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결국 한 달 만에 문을 닫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

⑤ 상싱 청과물이 결국 폐업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04 온라인 매장이 보편화된 오늘날 사회에서도 배달 앱을 통한 상권 경쟁이나 편의점과 같은 근거리 상권 내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제약이 사라졌다고 해서 상권 내의 갈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상싱 청과물을 대하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모습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웃을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제경쟁자로 보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고 볼 수 있다.

② 동네 슈퍼의 생존 경쟁 싸움은 오늘날 거대 플랫폼이나 대형 마트 간의 생존 전략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두 슈퍼의 동맹에 밀려 폐업한 상싱 청과물의 모습에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낙오되는 영세 상인과 약자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⑤ “우리가 뭐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라는 소라 엄마의 말처럼, 타인의 고통에 거리를 두는 방관자적 태도는 오늘날 사회의 공동체 의식 부재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

05 **시술형**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넘여 소시민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생존권’ 그 자체를 상징한다. 이는 작품 속 인물들이 이웃과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이 하루치의 생계를 이어 가는 일이 그만큼 절박하고 무겁다는 것을 나타낸다.

06 시내 엄마는 상싱 청과물이 망해 나갈 때는 그 상황을 만든 김 반장을 못마땅해하며 상싱 청과물에 동정을 보였으나,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전파상과 겹치는 가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집 다 망하고 말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시내 엄마는 화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듯하자 갈등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다.

② 상싱 청과물의 실패를 행복으로 여기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본질적으로 시내 엄마를 비판해야 하는 부분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이중 잣대이다.

③ 전파상이 이사를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자 비슷한 업종이 한 동네에 있으면 둘 다 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갈등을 방관하며 즐기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⑤ 시내 엄마의 태도는 시대 흐름에 적응하는 것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이기심과 소시민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7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의 감정이나 처지를 이해하려는 소통 방

식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버리고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공감하는 대화의 목적은 맹목적인 찬성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

- 08** 세이는 건우의 감정을 요약해 전달해 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있다. 이에 건우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라며 정서적 안도감을 표현했고, “다시 민재에게 말을 걸어 봐야겠다!”라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감하는 대화의 목적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으며,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상대를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태도는 공감하는 대화와는 거리가 멀다.

②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 논리를 앞세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계하는 대화는 아니다.

③ <보기>의 대화는 건우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감하는 대화와 아닌 비판적·논리적 대화라고 볼 수 있다.

④ 세이는 건우의 마음을 이해하며 대화하고 있을 뿐,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수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09** 갈등을 조정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되,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은 상대의 실수를 다시 한번 들춰내며 “답답해서 그랬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표현이다. 이는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상대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여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자신이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언급하며 갈등의 원인이 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말로 상처받았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⑤ ㉢과 ㉣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과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갈등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 10** ㉠(윤서)은 지훈의 불안한 감정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 반면 ㉡(태주)은 상대의 고민을 ‘그까짓 일’로 치부하며 감정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은 ㉡과 달리 지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은 비판이 아니라 공감을 하고 있다. 즉 지훈의 실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훈이 느꼈을 조마조마함과 자책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있다.

② ㉡은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 상대의 고민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④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이다.

⑤ ㉠은 지훈의 기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은 지훈의 기분을 살피기보다 상황을 사소하게 치부하여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

## 2 빛나는 우리 말글살이



### 한글의 원리와 가치

#### 활동

058~072쪽

**탐구** 059쪽 1 한자

062쪽 2 ㅂ, ㅎ, 세로, 상형, 획

065쪽 3 ㅊ, ㅌ

066쪽 3 ㄴ, ㅠ, 하늘, 합성

068쪽 5 모음

069쪽 6 소리, 발음

**적용** 071쪽 1 한글날

#### 학습목

058~072쪽

059쪽 ① 표기, 백성

② 애민, 실용

063쪽 ① ㄱ, 입, ㅈ, 이체자, 가로

066쪽 ① 땅, ㅊ, 땅, 초출자, ㅊ, 모음

068쪽 ① 음절

② 훈민정음

070쪽 ① 입력, 모아쓰기

072쪽 ① 창제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8~072쪽

058쪽 01 ③ 02 ①

059쪽 03 ② 04 ②

060쪽 05 ② 06 ① 07 가획

061쪽 08 ④ 09 ④ 10 세로

062쪽 11 ③ 12 ③ 13 ④

063쪽 14 ③ 15 (1) ㉠ (2) ㉡ (3) ㉢ 16 ①

064쪽 17 ③ 18 ⑤ 19 기본자

065쪽 20 ② 21 ② 22 ④

066쪽 23 ① 24 ㄱ 25 ⑤

067쪽 26 ③ 27 ②

068쪽 28 ① 29 ⑤ 30 독창성

069쪽 31 ⑤ 32 ⑤

070쪽 33 ① 34 ②

071쪽 35 ② 36 ⑤

072쪽 37 ② 38 ②

- 01 세종은 우리말과 한자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 02 세종은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달라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는 한편,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해 고 통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 03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글자 수가 많고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빌려 썼는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던 백성들은 대부분 글을 읽고 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배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4 중국 말과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주정신, 글을 모르는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애민 정신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백성이 쉽게 익혀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실용 정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자주, ㉡은 애민, ㉢은 실용이다.
- 05 세종은 사람의 말소리는 목구멍을 거쳐 입안의 여러 기관을 통하면서 다양한 소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었다.
- 06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어금닛소리 ‘ㄱ’을,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혓소리 ‘ㄴ’을, 입의 모양을 본떠 입술소리 ‘ㄷ’을, 이[齒]의 모양을 본떠 잇소리 ‘ㅅ’을,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목구멍소리 ‘ㅇ’을 만들었다. 따라서 ㉠은 ‘ㄱ’, ㉡은 ‘ㄴ’, ㉢은 ‘ㅇ’, ㉣은 ‘ㄷ’, ㉤은 ‘ㅅ’이다.
- 07 한글의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자음자를 만들었다. 즉 ‘ㄱ’에 획을 더해 ‘ㅋ’을 만들고, ‘ㄴ’에 획을 더해 ‘ㄷ’, ‘ㅌ’을 만드는 것처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을 만들었다.
- 08 ‘ㄷ’은 ‘ㄷ’에 획을 하나 더하여 만든 글자로, 획이 추가될수록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지는 가획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ㄷ’과 ‘ㄷ’은 모두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같은 발음 기관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도 서로 비슷하게 생겼다. 반면, 두 개의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들어지는 글자는 ‘ㄱ, ㄴ, ㅅ’ 등에 해당한다.
- 09 <보기>는 이체자에 대한 설명이다. 이체자는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지만, 일반적인 가획자처럼 소리가 세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ㅇ(엿이음), ㄹ, ㅍ(반치음)’이 이러한 이체자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ㅋ’은 ‘ㄱ’의 가획자, ‘ㅌ’은 ‘ㄴ’의 가획자, ‘ㅍ’은 ‘ㄷ’의 가획자로, 기본자에 획을 더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성이 있다.  
② ‘ㅈ, ㅊ’은 ‘ㅅ’의 가획자, ‘ㅎ’은 ‘ㅇ’의 가획자로,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점점 세진다는 특성이 있다.  
③, ⑤ ‘ㄱ, ㄴ, ㅅ’은 같은 자음자를, ‘ㄷ, ㅌ, ㅍ’은 서로 다른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로, 획을 더해 만든 이체자와는 제자 원리가 다르다.

- 10 <보기>에 제시된 ‘ㅁ, ㅂ, ㅍ, ㅅ’은 자음 ‘ㄱ, ㄴ, ㄷ, ㄹ’의 아래에 ‘ㅇ’을 세로로 이어 써서 만든 글자이다.
- 11 ‘ㅇ’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의 기본자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ㅋ’은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② ‘ㄷ’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④ ‘ㅈ’은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⑤ ‘ㅎ’은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 12 <보기>의 설명은 한글이 소리 나는 발음 기관이 비슷하면 모양도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입의 모양을 본뜬 ‘ㄱ’과 여기에 획을 더해 만든 ‘ㅂ, ㅍ’은 모두 같은 발음 기관에서 소리 나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도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
- 오답 풀이** ① ‘ㄱ’은 혀뿌리 쪽에서, ‘ㄴ’과 ‘ㄷ’은 혀끝 쪽에서 소리가 나므로 서로 발음 기관이 다르다.  
② ‘ㄴ, ㄷ, ㅇ’은 각각 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따로 본떠 만든 기본 글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모양이 닮지 않는다.  
④ ‘ㅅ’과 ‘ㅈ’은 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와 이에 가획한 글자로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ㅎ’은 목구멍 모양인 ‘ㅇ’에서 나온 글자라 발음 기관이 서로 다르다.  
⑤ ‘ㅎ’은 목구멍소리인 ‘ㅇ’과 모양이 비슷할 수 있으나, ‘ㄹ’은 모양이 전혀 다르다.
- 13 ㉠의 ‘ㅁ, ㅂ’은 모양이 같은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이고, ㉡의 ‘ㅅ, ㅈ’은 서로 다른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이다. 반면 ㉢의 ‘ㅁ, ㅂ’은 자음자 아래에 ‘ㅇ’을 세로로 이어 써서 만든 글자이다.
- 오답 풀이** ① ‘ㅁ, ㅂ’은 각각 가획자 ‘ㅂ’과 ‘ㅎ’이 바탕이 되므로, 이 체자를 나란히 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ㅅ, ㅈ’은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모양의 자음자들을 가로로 나란히 나열하여 만든 글자이다.  
③ ‘ㅁ, ㅂ’은 입술소리인 ‘ㄱ, ㄴ’ 아래에 목구멍소리인 ‘ㅇ’을 세로로 붙인 것으로, 소리 나는 위치가 서로 다른 글자끼리 결합한 형태이다.  
⑤ ㉠과 ㉡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이고, ㉢은 글자를 세로로 이어 쓴 것이다.
- 14 한글의 자음자는 먼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인 ‘ㄱ, ㄴ, ㄷ, ㄹ, ㅇ’을 만들었다. 그 다음,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자음자 ‘ㅋ, ㄸ, ㅌ, ㅍ, ㅊ, ㅍ, ㅈ, ㅊ, ㅍ, ㅈ’을 만들었다.
- 오답 풀이** ① 자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② 이체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④ 이체자는 획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나, 일반적인 가획자와 달리 획을 더한다고 해서 소리가 더 세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⑤ 한글은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글자끼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비슷하다는 특성이 있다.
- 15 한글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ㅏ’는 둥근 하늘의 모양을, ‘ㅗ’는 평평한 땅의 모양을, ‘ㅑ’는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

16 모음의 기본자인 ‘·, ㅡ, ㅣ’는 자음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이 글자들은 그 자체로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한글의 모음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 ‘·, ㅡ, ㅣ’를 만들고, 기본자끼리 한 번 합쳐서 ‘ㅏ, ㅑ, ㅓ, ㅕ’와 같은 초출자를 만든다. 이 초출자에 ‘·’를 다시 한번 더 합쳐서 ‘ㅗ, ㅛ, ㅜ, ㅠ, ㅡ, ㅞ’와 같은 재출자를 만든다. 이처럼 모음자는 글자를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오답풀이** ① 획을 하나씩 더해 소리가 세지는 것을 나타낸 가획의 원리는 자음자를 만든 원리이다. 모음자는 글자를 서로 합치는 합성의 원리를 사용한다.

② 모음자는 모음의 기본자를 합쳐서 만드는 것이지, 자음자와 모음자를 섞어서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지는 않는다.

④ 초출자는 ‘ㅡ’나 ‘ㅣ’에 ‘·’를 결합하여 만드는 것이며, ‘ㅡ’와 ‘ㅣ’를 합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⑤ 기본자인 ‘·, ㅡ, ㅣ’는 무엇을 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땅·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서 만든 글자들이다.

18 <보기>는 모음의 재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모음의 기본자에 ‘·’를 한 번 합쳐 만든 ‘ㅏ, ㅑ, ㅓ, ㅕ’를 초출자라고 하며, 이 초출자에 ‘·’를 다시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ㅗ, ㅛ, ㅜ, ㅠ, ㅡ, ㅞ’를 재출자라고 한다.

19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 ‘·, ㅡ, ㅣ’를 만들고, 이 기본자들을 서로 합치는 원리를 사용하여 ‘ㅏ, ㅑ, ㅓ, ㅕ’와 같은 다른 모음자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낸다.

20 ㉠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 ㅡ, ㅣ’이고, ㉡는 이 기본자들을 한 번 합쳐서 만든 초출자 ‘ㅏ, ㅑ, ㅓ, ㅕ’이다. ㉢는 초출자에 ‘·’를 다시 한번 합쳐서 만든 재출자 ‘ㅗ, ㅛ, ㅜ, ㅠ, ㅡ, ㅞ’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과정이 단계별로 잘 드러나려면, ㉠의 ‘·, ㅡ’를 합쳐 ㉡의 ‘ㅏ, ㅑ’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를 합쳐 ㉢의 ‘ㅗ, ㅛ’를 만드는 구성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에 ‘·’가 없어 이를 바탕으로 ㉢의 ‘ㅏ, ㅑ’를 생성하는 단계적 연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에 ‘ㅣ’가 없어 ㉢의 ‘ㅓ’를 만들 수 없으며, ㉡와 ㉢에 초출자(ㅓ, ㅕ)와 재출자(ㅜ, ㅠ)가 섞여 있다.

④ ㉡에 ㉢을 만드는 기본자 ‘·’가 없고, ㉢에는 초출자에 ‘·’를 합친 글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초출자(㉡)와 재출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고, 기본자에 ‘·’가 없어 단계적으로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21 ㉠의 ‘·, ㅡ, ㅣ’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므로 상형의 원리에 해당한다. ㉡의 ‘ㅏ, ㅑ, ㅓ, ㅕ’는 이러한 기본자들을 서로 합쳐서 만든 초출자이므로 합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반면,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는 모음자가 아닌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 쓰인다.

22 ‘ㅞ’는 ‘ㅞ’에 ‘ㅣ’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ㅞ’에 ‘ㅣ’를 결합하면 ‘ㅟ’가 된다.

23 [단계 2]는 초출자인 ‘ㅏ’와 ‘ㅑ’를 합하는 과정이므로 ㉠은 ‘ㅑ’가 된다. [단계 3]은 앞서 만든 ㉡ ‘ㅑ’에 ‘ㅣ’를 다시 합하여 새로운 모음을 만드는 과정으로, ㉢은 ‘ㅟ’가 된다.

24 ‘ㅞ’는 기본자를 합쳐 만든 ‘ㅓ’와 ‘ㅣ’를 다시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여기에 모음 ‘ㅣ’를 다시 결합하면 ‘ㅟ’가 만들어진다.

25 재출자인 ‘ㅗ, ㅛ, ㅜ, ㅠ, ㅡ, ㅞ’는 초출자인 ‘ㅏ, ㅑ, ㅓ, ㅕ’에 기본자 중 하나인 ‘·’를 다시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ㅡ’와 ‘ㅣ’는 기본자에 해당하므로, 이 글자들을 합성하여 재출자를 만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6 사람의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소리 난다. 따라서 세종은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절에 맞추어 모아쓰기를 해야 읽기 쉽고 뜻 파악도 용이하다고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세종은 모아쓰기를 하면 오히려 글자를 읽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였다.

② 모아쓰기의 근거는 자음과 모음의 개수 차이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방식에 있다.

④ 모아쓰기는 우리말의 소리 특성을 반영한 방식이며, 중국의 글자 쓰기 방식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자음자와 모음자를 구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모아쓰기를 해야 하는 주장과 관련이 없다.

27 세종은 말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으나, 실제 말할 때에는 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소리 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글자를 쓸 때에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다. 즉 훈민정음은 음절 단위로 모아써서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소리 마디를 반영하려 한 것이지, 백성들에게 말을 자음과 모음으로 억지로 나누어 소리 내는 법을 가르치려 한 것은 아니다.

28 우리말은 실제 말할 때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소리 난다. 따라서 ‘ㅂㅅㅅㅅㅅㅅ’처럼 풀어 쓰는 대신 ‘백성’과 같이 음절 단위로 모아쓰면, 말소리의 마디와 글자의 표기가 일치하여 단어나 문장의 뜻을 훨씬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소리 나는 대로 늘어 쓰는 것은 풀어쓰기에 해당하며, 모아쓰기는 소리를 덩어리로 묶어 표기한다.

③ 모아쓰기는 글자의 배치 방식에 대한 것으로, 사용하는 글자의 수를 줄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④ 모아쓰기는 우리말의 음절 구조를 반영한 독창적인 방식이며, 중국의 쓰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다.

⑤ 모아쓰기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각각 정해진 위치(초성, 중성, 종성)에 맞게 구별하여 배치해야 한다.

29 한글은 자음의 경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의 경우 하늘·땅·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제작한 후 가획과 합성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장한 문자이다. 이처럼 일정한 원리를 바탕으로 글자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를 통해 읽기 속도를 높인 것, 배우기 쉽고 익히기 빠르다는 특성은 과학성보다는 실용성에 가까운 설명이다.

③ 다른 문자를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제한 점은 과학성보다는 독창성을 나타낸다.

④ 적은 글자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실용성에 가까운 설명이다.

**30** 한글은 다른 나라의 문자를 모방하거나 빌려 쓰지 않고, 상형·가획·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말에 맞게 새롭게 창조된 글자이다. 이처럼 기존의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고유한 원리를 통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한글의 독창성을 잘 보여 준다.

**31**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는 즉시 글자가 완성된다. 반면 중국어나 일본어는 소리를 먼저 입력한 뒤, 그 소리에 맞는 한자를 목록에서 찾아 선택하거나 바꾸는 변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단계 때문에 한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자 입력 속도가 느린 것이다.

**32** 영어의 'a'는 주변 글자나 단어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변하여 발음되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컴퓨터의 음성 인식이나 기계 번역 활용에 유리하다.

**오답 풀이** ① 모아쓰기는 의미 파악을 빠르게 돕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리의 일관성과는 관련이 없다.

② 글자 모양의 기하학적 특성은 디지털 서체 디자인에 유리한 점이 지, <보기>에서 설명하는 발음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배우기 쉬워 문맹률을 낮추는 것은 실용적인 장점이나, <보기>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한글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문자인 것은 맞으나 이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특성 때문에 음성 정보 활용에 유리하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적다.

**33** '문맹'은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을 모름.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이들에게 '세종 대왕 문해상'을 수여하는 것은 한글이 배우기 쉬워 누구나 글을 깨우치게 하는 데 뛰어난 문자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상의 명칭은 한글의 창제 정신과 배우기 쉬운 글자로서의 가치를 잘 보여 준다.

**34**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제자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완성된 문자이다.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원리를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창제 당시의 체계와 원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후대에 온전히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수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한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세계 속에 한글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실천 방법이다.

③ 창제 원리에 담긴 과학성과 독창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④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은 한글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지속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⑤ 한글을 소재로 한 예술이나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은 한글의 활용 범위와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방법이다.

**35** 기사문에서는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제 국어 생활에 적용해 보는 활동으로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수필 쓰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순우리말과 외래어를 섞어 쓰는 것은 우리말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고 올바른 언어 문화를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기사문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교육감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글이 지닌 과학성과 독창성을 깨닫고, 모국어 화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행사 개최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한글은 입력 속도가 빠르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지닌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한글 활용 사례 영상을 상영하여 이러한 디지털 경쟁력을 홍보하는 것은 '한글의 발전'이라는 미래 지향적 취지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한글의 심미적 가치를 체험하는 것은 한글의 발전과 연결 지을 수도 있으나, 겹받침 낱말 정확히 쓰기는 한글의 심미적 가치를 체험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③ 외래어 표기 능력을 한글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외래어 표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과 외국인의 한글 기초 단어 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④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글의 발전과 연결 지을 수도 있으나, 외래어를 영어로 표기하기는 한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⑤ 한글의 편리성을 홍보하는 것은 한글의 발전과 연결 지을 수도 있으나, 훈민정음과 오늘날의 한글 '모양'을 비교하는 것은 편리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8** 자판 기획안에서 자음이나 모음의 기본자를 누른 뒤 '획 추가' 버튼을 눌러 소리가 센 글자(예: ㄱ → ㅋ)로 만드는 방식은,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가 세게 나는 것을 나타낸다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 \* 압축파일

074쪽

① 애민 ② 발음 기관 ③ 가획 ④ 재출자 ⑤ 소리

##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75~076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④ 06 ⑤  
07 ① 08 ④ 09 ② 10 ② 11 ③ 12 가로로  
나란히 써서 13 ③

01 ㉓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문자를 만든 애민 정신, ㉔는 누구나 글자를 쉽게 익혀 편하게 쓰도록 한 실용 정신, ㉕는 우리 말이 중국과 다름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 자주정신에 해당한다.

02 한글 자음의 기본자 중 ‘ㅅ’은 혀의 모양이 아니라 이[齒]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03 한글 자음의 제자 원리 중 가획의 원리에 따르면,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는 기본자보다 소리의 세기가 더 세다. ‘ㄱ’은 기본자 ‘ㄱ’에 획을 하나 더하여 만든 가획자이므로 ‘ㄱ’보다 소리가 더 강하게 난다.

**오답풀이** ② ‘ㄲ’은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이다.

③ ‘ㅈ, ㅊ’은 자음자를 세로로 이어 써서 만든 글자이다.

④ ‘ㅉ, ㅊ’은 두 개의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이다.

⑤ ‘ㄹ’은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이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지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이체자이다.

04 한글 자음 중 ‘ㅇ(엷이음), ㄷ, △(반치음)’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으나,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지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예외적인 글자들이다. 이러한 글자들을 이체자라고 부른다.

**오답풀이** ① 상형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로, ‘ㄱ, ㄴ, ㄷ, ㅅ, ㅇ’이 해당한다. ‘ㄱ’은 ‘ㄱ’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므로 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의 세기가 세진 것을 나타낸 글자들이므로, ①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헛소리는 ‘ㄴ’을 기본자로 하는 글자들을 의미하므로, ①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입술소리는 ‘ㅁ’을 기본자로 하는 글자들을 의미한다. ‘ㅂ’은 기본자 ‘ㅁ’에 획을 더해 소리가 세진 것을 나타낸 가획자이므로 ①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제시된 설명은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가 거센 글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가획자는 기본자와 같은 발음 기관을 사용한다. ㉑의 ‘ㄱ’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 ‘ㄱ’은 ‘ㄱ’에 획을 더한 가획자로 둘 다 어금닛소리에 해당한다. ㉒의 ‘ㄴ’은 입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ㄴ’은 ‘ㄴ’에 획을 더한 가획자로, 둘 다 입술소리에 해당한다. ㉓의 ‘ㅅ’은 이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ㅅ’은 ‘ㅅ’에 획을 더한 가획자로 둘 다 잇소리에 해당한다. ㉔의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ㅇ’은 ‘ㅇ’에 획을 더한 가획자로, 둘 다 목구멍소리에 해당한다. 한편 ㉕의 ‘ㄷ’과 ‘ㅌ’은 둘 다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 ‘ㄷ’의 가획자로, 헛소리에 해당한다.

06 한글 모음의 제자 원리에서 ㉓와 ㉔는 모두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를 나타낸다. 모음을 만들 때는 기본자(·, ㅡ, ㅣ)를 합쳐서 초출자(ㅏ, ㅑ, ㅓ, ㅕ)를 만들고, 초출자에 ‘·’를 한 번 더 합쳐서 재출자(ㅗ, ㅛ, ㅜ, ㅠ, ㅡ)를 만든다. 상형의 원리는 기본자를 만들 때, 가획의 원리는 자음의 기본자를 가획자로 만들 때 적용되는 원리이다.

07 한글 모음의 기본자(·, ㅡ, ㅣ)를 서로 한 번씩 합하여 만든 글자를 초출자라고 한다. ‘·’를 ‘ㅡ’나 ‘ㅣ’에 한 번 결합하면 ‘ㅏ, ㅑ, ㅓ, ㅕ’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초출자로만 묶인 것은 ‘ㅓ, ㅕ’이다.

**오답풀이** ② ‘ㅠ’는 초출자인 ‘ㅓ’에 ‘·’를, ‘ㅑ’는 초출자인 ‘ㅑ’에 ‘·’를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재출자이다.

③ ‘ㅓ’는 초출자인 ‘ㅓ’에 ‘·’를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재출자이다.

④ ‘ㅠ’는 초출자인 ‘ㅓ’에 ‘·’를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재출자이다.

⑤ ‘ㅡ’는 평평한 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08 <보기>는 이미 만들어진 모음자끼리 서로 합하여 새로운 모음을 만드는 합성의 방식을 설명한 내용이다. ‘· + ㅡ = ㅓ’는 기본자를 처음 합쳐서 초출자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미 만들어진 모음자끼리의 결합 방식이 사용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ㅏ, ㅑ, ㅓ, ㅕ’는 초출자 ‘ㅏ, ㅑ, ㅓ, ㅕ’에 기본자 ‘·’를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재출자이다. 따라서 학생은 초출자에 ‘·’를 한 번 더 합쳐 만들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ㅓ, ㅑ, ㅓ, ㅕ’는 새로운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본자와 초출자를 결합한 글자이다.

③ 초출자와 초출자를 합쳐 만든 것은 ‘ㅗ(ㅏ + ㅏ), ㅛ(ㅑ + ㅑ)’ 같은 글자들이다. ‘ㅓ, ㅕ’ 등은 초출자에 기본자 ‘·’를 더한 것이지, 초출자끼리 합친 것이 아니다.

④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기본자인 ‘ㅣ’이며, 이를 두 번 본떠서 만든 글자는 없다. ‘ㅑ, ㅕ’는 각각 ‘ㅣ’에 ‘·’가 합쳐진 ‘ㅑ, ㅕ’에 다시 ‘·’를 합쳐 만든 글자이다.

⑤ 하늘의 모양을 본뜬 ‘·’와 땅의 모양을 본뜬 ‘ㅡ’를 합친 것은 ‘ㅓ, ㅕ’ 같은 초출자이며, 여기에 사람 모양을 본뜬 ‘ㅣ’를 합치면 재출자가 아니라 ‘ㅗ, ㅛ’와 같은 모음을 만들 수 있다.

10 다른 언어는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나열하여 쓰지 않고, 초성·중성·종성을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서 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을 모아쓰기라고 한다.

11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일정하게 발음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고 처리할 때 혼란을 줄여 주므로 음성 인식 기술에 유리하다.

12 **세술형** 기본 자음 버튼을 빠르게 두 번 터치하여 ‘ㄲ, ㅌ’과 같은 된소리로 변환하는 방식은, 기존의 동일한 기본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제자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가로로 나란히 써서’이다.

13 <보기>는 한글이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즉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 정보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여 일상생활과 정보화 환경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는 실용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 음운의 체계

### 활동

077~094쪽

**탐구** 078쪽 1 □

079쪽 2 자, 짧게, 길게

082쪽 1 ○

083쪽 2 스, 울림소리, 르

084쪽 2 ㅈ, ㄱ

085쪽 3 뽕글뽕글, 핑글핑글, 출랑출랑

088쪽 1 ㄱ

089쪽 2 ㄱ

090쪽 3 매미, 주소

091쪽 4 중

092쪽 2 신뢰

**적용** 093쪽 1 여린입천장

### 학습곡

077~094쪽

079쪽 ① 소리

② 자음, 모음, 길이

085쪽 ① 위치

② 울림, 안울림

③ 세기

091쪽 ① 단, 이중

② 입술

③ 최고점

④ 높이

092쪽 ① 의사소통

094쪽 ① 비음

② 체계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7~094쪽

077쪽 01 음운 02 ② 03 ①

078쪽 04 ⑤ 05 ⑤ 06 ②

079쪽 07 ① 08 ③ 09 ① 10 ⑤

080쪽 11 ④ 12 ① 13 ②

081쪽 14 ② 15 ① 16 ③

082쪽 17 ② 18 ② 19 ⑤

083쪽 20 ③ 21 ④ 22 ④

084쪽 23 ③ 24 ⑤ 25 ④

085쪽 26 ④ 27 ③ 28 ④

086쪽 29 ② 30 ④ 31 ②

087쪽 32 ④ 33 ⑤ 34 ⑤

088쪽 35 ⑤ 36 ② 37 ②

089쪽 38 ② 39 ② 40 ③

090쪽 41 ④ 42 ㄱ, ㄴ, ㄷ 43 ②

091쪽 44 ④ 45 ③ 46 원순 모음, 전설 모음, 중모음

092쪽 47 ④ 48 ② 49 ①

093쪽 50 ⑤ 51 ⑤ 52 ③

094쪽 53 ④ 54 ⑤

**01** 음운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예를 들어 ‘봄’과 ‘곰’은 초성 ‘ㅂ’과 ‘ㄱ’이 다르고, ‘봄’과 ‘밤’은 중성 ‘ㅇ’과 ‘ㅌ’가 다른데, 이처럼 음운이 달라지면 그 뜻도 달라진다.

**02** 자음은 홀로 소리 낼 수 없고,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말소리의 길이가 있다.

③, ④ 모음은 발음 기관의 방해 없이 흘러나오는 소리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지 않아도 홀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자음은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아 소리가 난다.

**03** 우리말에는 ‘밤’, ‘배’ 등과 같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대를 뜻하는 ‘밤’은 짧게, 밤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밤’은 길게 발음하여 뜻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말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이므로 음운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알맞다.

**04** ‘달’과 ‘굴’은 초성 ‘ㄷ’과 ‘ㄱ’뿐만 아니라 중성 ‘ㅌ’와 ‘ㄱ’도 다른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05** ‘달’을 ‘밤’이라는 단어로 바꿀 때, 초성 ‘ㄷ’이 ‘ㅂ’으로 달라지고, 중성 ‘ㄹ’은 ‘ㅎ’으로 달라졌다. 이때 중성 ‘ㅌ’는 바뀌지 않았다.

**06** <보기>는 ‘물’이라는 단어에서 초성(‘ㅁ’ → ‘ㄱ’), 중성(‘ㄴ’ → ‘ㄹ’), 종성(‘ㄹ’ → ‘ㅎ’)을 차례대로 하나씩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다. ②는 초성(‘ㅁ’ → ‘ㅍ’), 중성(‘ㅌ’ → ‘ㄴ’), 초

성(‘ㅍ’ → ‘ㅂ’)의 순으로 바꾼 것으로, <보기>의 단계에 따라 바꾼 것이 아니다.

**07**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는 자음으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08** 뜻을 구별하게 해 주는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나머지가 초성의 자음만 다른 것과 달리 ③의 ‘살-굴’은 초성의 자음(‘ㅅ’ → ‘ㄱ’)과 중성의 모음(‘ㅏ’ → ‘ㅓ’)이 다르다.

**오답 풀이** ①, ④ 초성의 자음 ‘ㄱ’과 ‘ㅂ’이 달라 뜻이 달라졌다.

② 초성의 자음 ‘ㄷ’과 ‘ㅂ’이 달라 뜻이 달라졌다.

⑤ 초성의 자음 ‘ㄱ’과 ‘ㅅ’이 달라 뜻이 달라졌다.

**09** ㉠의 발음 기호 ‘:’은 장음을 표시한 것으로, 해당 음운을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은 짧게 발음하면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의 뜻이지만, ㉡은 길게 발음하면 ‘밤나무의 열매’라는 뜻을 나타낸다.

**10** <보기>에 제시된 ‘굴’과 ‘꿀’은 중성인 ‘ㄱ’과 중성인 ‘ㄹ’은 서로 같지만, 초성인 자음이 ‘ㄱ’이나 ‘ㅍ’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를 통해 자음이나 모음 등과 같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자음 초성이 바뀐 것으로,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야 소리 낼 수 있다.

② 초성 ‘ㄱ’이 ‘ㅍ’으로 바뀌어 뜻이 달라졌을 뿐 뜻을 더하지는 않았다.

③ <보기>에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④ 모음은 자음과 결합하지 않고 홀로 발음할 수 있다.

**11** 어린입천장소리는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이에 해당하는 자음으로는 ‘ㄱ, ㄲ, ㅋ, ㅇ’이 있다.

**오답 풀이** ① ‘ㅎ’은 목청(성대)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목청소리이다.

② ‘ㅂ, ㅃ, ㅍ’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입술소리이다.

③ ‘ㅈ, ㅉ, ㅊ’은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센입천장소리이다.

⑤ ‘ㄴ, ㄷ, ㅌ, ㄴ, ㅁ’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이다.

**12** 자음 중에서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울림소리는 코안이 울리는지 입안이 울리는지에 따라 비음과 유음으로 나뉜다. 울림소리이면서 비음인 자음으로는 ‘ㄴ, ㄹ, ㅇ’이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ㄹ’은 울림소리이지만 유음이고, ‘ㅎ’은 안울림소리이며 마찰음이다.

④ ‘ㅂ, ㅍ’은 안울림소리이며 파열음이다.

⑤ ‘ㅈ, ㅉ, ㅊ’은 안울림소리이며 파찰음이다.

**13** ‘ㄹ’은 소리 나는 위치로 보면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이고, 소리 내는 방법으로 보면 입안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울림소리(유음)이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어린입천장소리이면서, 안울림소리(파열음)이다.

③ ‘ㅂ’은 입술소리이면서, 안울림소리(파열음)이다.

④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면서, 안울림소리(파찰음)이다.

⑤ ‘ㅅ’은 잇몸소리이면서, 안울림소리(마찰음)이다.

**14** 안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소리로, 소리가 딱딱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준다.

**오답 풀이** ① 안울림소리는 자음이므로 모음과 달리 홀로 발음되지 않는다.

③ 울림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는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며, 모음은 모두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울림소리이다.

⑤ 부드럽고 이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은 울림소리이다.

**15**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구분할 때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으로, ‘ㄱ, ㄲ, ㅋ, ㄷ, ㄸ, ㅌ, ㅎ, ㅑ,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ㅟ, ㅠ’이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⑤ ‘ㅅ, ㅎ’은 마찰음이고, ‘ㅈ, ㅉ, ㅊ’은 파찰음이다.

③ ‘ㄴ, ㄹ, ㄷ, ㄴ, ㅁ’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16** 성대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숨을 적게 터뜨려 내는 소리는 된소리로, ‘ㄲ, ㄸ, ㅌ, ㅍ, ㅊ’이 있다.

**오답 풀이** ① ‘ㄱ, ㄷ, ㅂ’은 모두 예사소리이다.

② ‘ㄱ, ㅌ, ㅍ’은 모두 거센소리이다.

④ ‘ㅅ’은 예사소리, ‘ㅞ’은 된소리이다. ‘ㅎ’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⑤ ‘ㅈ’은 예사소리, ‘ㅊ’은 된소리, ‘ㅊ’은 거센소리이다.

**17** 잇몸소리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소리로, ‘ㄴ, ㄷ, ㅌ, ㅍ, ㅊ, ㅑ,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ㅟ, ㅠ’이 있다.

**오답 풀이** ① ‘ㄱ, ㄲ, ㅋ’은 모두 어린입천장소리이다.

③ ‘ㄴ, ㅂ, ㅍ’은 모두 입술소리이다.

④ ‘ㅅ, ㅞ’은 잇몸소리이고 ‘ㅎ’은 목청소리이다.

⑤ ‘ㅈ, ㅉ, ㅊ’은 모두 센입천장소리이다.

**18** ‘ㅂ’은 입술소리이고,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다. 따라서 ‘ㅂ’은 공기의 흐름이 두 입술 사이에서 방해를 받아 소리가 나고, ‘ㅈ’은 공기의 흐름이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센입천장) 사이에서 방해를 받아 소리가 난다.

**19** ‘쨍한 햇빛’에서 ‘쨍’의 초성 ‘ㅈ’은 센입천장소리이고, ‘빛’의 초성 ‘ㅂ’은 입술소리이다.

**20** <보기>에서는 울림소리 중 유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안울림소리이며,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다.

②, ④, ⑤ ‘ㄴ, ㄹ, ㅁ’은 울림소리이며,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21** 울림소리 중에서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며, ‘ㄴ, ㄹ, ㅇ’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울

림소리를 발음해 보면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난다.

**오답 풀이** ① ‘ㄹ’은 올림소리 중에서 유음에 해당한다.

②, ③ 유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비음은 코안을 울려서 소리를 내므로 코를 막으면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다.

⑤ 올림소리는 모두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반면, 안 올림소리는 소리가 딱딱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든다.

**22** 제시된 자음들은 모두 올림소리로, 발음할 때 소리가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23**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파열음이다. 파열음에는 ‘ㄱ, ㅋ, ㆁ, ㄷ, ㅌ, ㅊ, ㅍ’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②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④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⑤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24**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로, ‘ㅅ, ㅆ, ㅈ’이 있다. ‘ㄱ, ㄷ, ㅍ’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한다.

**25** 올림소리에는 ‘ㄴ, ㄹ, ㅇ, ㄷ’이 있으므로 모든 자음이 올림소리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나라(ㄴㄹ)’, ‘모음(ㅇ)’, ‘양말(ㅁ)’이다.

**오답 풀이** ㉠, ㉡ ‘구두’의 ‘ㄱ, ㄷ’, ‘부모’의 ‘ㅂ’은 안올림소리이다.

**26** 안올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가장 약한 것부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ㄱ, ㄷ’은 예사소리, ‘ㅁ, ㅆ’은 된소리, ‘ㅋ’은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27**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자음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④, ⑤는 소리의 세기가 같은 자음끼리 묶여 있는 것에 반해 ③의 ‘ㅂ’은 예사소리고 ‘ㅆ’은 된소리이므로 소리의 세기가 서로 다른 자음끼리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의 ‘ㄱ, ㄷ’, ②의 ‘ㅅ, ㅆ’은 모두 예사소리이다.

④ ‘ㄱ, ㄷ’은 모두 된소리이다.

⑤ ‘ㅍ, ㅌ’은 모두 거센소리이다.

**28** ㉠의 ‘ㄱ’은 성대를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보통으로 숨을 내쉬는 예사소리로, 성대 근육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숨을 거세게 터뜨려 내는 소리인 거센소리 ‘ㄱ’(㉡)이나 성대 근육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숨을 적게 터뜨려 내는 소리인 된소리 ‘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오답 풀이** ① 예사소리가 쓰인 ㉠보다 거센소리가 쓰인 ㉡가 더 세고 거친 느낌을 준다.

② 거센소리가 쓰인 ㉡보다 된소리가 쓰인 ㉢가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③ 된소리가 쓰인 ㉣보다 예사소리가 쓰인 ㉤가 더 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⑤ 거센소리가 쓰인 ㉡와 된소리가 쓰인 ㉢보다 예사소리가 쓰인 ㉠가 더 가볍고 약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29**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단모음에는 ‘ㅏ, ㅗ, ㅓ, ㅕ, ㅛ, ㅜ, ㅡ, ㅣ’가 있다.

**오답 풀이** ①의 ‘ㅗ’, ③의 ‘ㅓ’, ④의 ‘ㅕ’, ⑤의 ‘ㅛ’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30**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된 모음은 단모음으로 ‘ㅏ, ㅗ, ㅓ, ㅕ, ㅛ, ㅜ, ㅡ, ㅣ’가 있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ㅗ, ㅓ, ㅕ, ㅛ, ㅜ, ㅝ, ㅞ, ㅟ, ㅠ’가 있다. 따라서 제시된 모음 중 ‘ㅏ, ㅓ, ㅕ, ㅛ, ㅜ, ㅡ, ㅣ’를 단모음으로, ‘ㅗ, ㅓ, ㅕ’를 이중 모음으로 나누어 묶을 수 있다.

**31**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지 오므리지 않는지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구분한다. 원순 모음에는 ‘ㅜ, ㅛ, ㅠ, ㅡ’가 있다.

**오답 풀이** ①의 ‘ㅏ, ㅓ’, ③의 ‘ㅓ, ㅟ’, ④의 ‘ㅗ, ㅛ’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⑤ ‘ㅣ’는 평순 모음, ‘ㅟ’는 원순 모음이다.

**32** 단모음은 소리 낼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 즉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가 앞쪽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설 모음은 발음할 때, 입천장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을 말하는데, ‘ㅗ, ㅓ, ㅕ, ㅛ, ㅣ’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ㅏ, ㅓ, ㅕ, ㅛ’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② ‘ㅣ’만 전설 모음이다.

③ ‘ㅓ, ㅛ’만 전설 모음이다.

⑤ ‘ㅡ’는 후설 모음이다.

**33**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낮은 모음은 저모음으로, ‘ㅗ, ㅓ’가 있다.

**오답 풀이** ①의 ‘ㅓ’, ②의 ‘ㅓ’는 고모음이다.

③의 ‘ㅓ’, ④의 ‘ㅓ’는 중모음이다.

**34** 제시된 모음은 모두 중모음으로, 고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입이 더 열려서 혀가 중간 위치에 있다. 또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원순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②, ④ 이중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설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ㅓ, ㅛ’는 해당하나, ‘ㅣ’는 후설 모음이다.

**35**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의 변화이다.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단모음, 변화하면 이중 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②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③ 입술의 '크기'가 변한다는 것은 모음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지 여부) 또는 유음과 비음(코안이 울리는지, 입안이 울리는지 여부)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 36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된 모음으로,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따라서 단모음만 사용된 단어는 '나무(㉠)', '어머니(㉡)'이다.

**오답 풀이** ㉠의 'ㅑ', ㉡의 'ㅓ', ㉢의 'ㅕ'는 이중 모음이다.

- 37 제시된 모음 'ㅑ'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실제로 'ㅑ'를 발음해 보면 입술이 벌어지고 턱이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목청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③ 비음에 대한 설명이다.

④ 단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⑤ 파열음에 대한 설명이다.

- 38 원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으로, 'ㅜ, ㅠ, ㅛ, ㅠ'가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개나리꽃'에는 원순 모음 'ㅜ', 평순 모음 'ㅓ, ㅗ, ㅣ'가 쓰였으므로, 원순 모음의 개수는 총 1개이다.

- 39 평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으로, 'ㅏ, ㅓ, ㅗ, ㅜ, ㅡ, ㅣ'가 이에 해당한다. ② '베개'의 'ㅓ, ㅓ'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소리의 'ㅓ'는 원순 모음이지만 'ㅣ'는 평순 모음이다.

③ '주사위'의 'ㅑ, ㅓ'는 원순 모음이지만 'ㅑ'는 평순 모음이다.

④ '고구마'의 'ㅓ, ㅑ'는 원순 모음이지만 'ㅑ'는 평순 모음이다.

⑤ '포도나무'의 'ㅓ, ㅑ'는 원순 모음이지만 'ㅑ'는 평순 모음이다.

- 40 모음을 입술 모양으로 분류하면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ㅏ, ㅓ, ㅡ, ㅣ'는 평순 모음, 'ㅛ, ㅕ, ㅠ'는 원순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41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을 기준으로 입의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②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③ 입술의 모양은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⑤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 42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앞쪽에 있는 모음은 전설 모음으로, 'ㅓ, ㅓ, ㅛ,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이에 해당한다. 'ㅏ, ㅓ, ㅡ'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 43 후설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뒤쪽에 있는 모음으로, 'ㅏ, ㅓ, ㅗ, ㅑ, ㅓ, ㅡ'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의 'ㅓ', ③의 'ㅓ, ㅓ', ④의 'ㅣ', ⑤의 'ㅛ, ㅕ'는 전설 모음이다.

- 44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가 어느 높이에 있는지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혀의 위치가 가장 높으면 고모음, 혀의 위치가 중간이면 중모음, 혀의 위치가 가장 낮으면 저모음이다.

- 45 '두부(㉠)'의 'ㅑ', '위치(㉡)'의 'ㅓ, ㅣ', '우리(㉢)'의 'ㅑ, ㅣ'는 모두 고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모기'의 'ㅓ'는 중모음, 'ㅣ'는 고모음이다.

㉡ '가시'의 'ㅑ'는 저모음, 'ㅣ'는 고모음이다.

- 46 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과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한다. 제시된 'ㅓ'는 입술 모양이 둥근 원순 모음이고,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며, 혀의 위치가 중간인 중모음이다.

- 47 밑줄 친 '의'에서 'ㅓ'는 'ㅡ'와 'ㅣ'가 결합된 이중 모음으로, 'ㅡ'를 발음하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서 'ㅣ'를 발음하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로 빠르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비음에 대한 설명이다.

②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는 혀의 높이와 관련이 있는데,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단모음을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③ 거센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⑤ 파열음에 대한 설명이다.

- 48 음운이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단어의 뜻이 바뀌어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이중 모음 'ㅓ'를 단모음 'ㅣ'로 잘못 발음할 경우, '이사'이라는 아예 뜻이 다른 단어로 전달될 수 있다.

- 49 음운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음운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표기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뢰를 높이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확하게 발음하면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기 능력을 높이는 것은 관련이 없다.

- 50 '금강산 정상'은 음절의 첫소리를 내는 위치가 여린입천장에서 잇몸으로 연달아 나오고, 받침을 발음할 때는 울림소리 중에서 비음(ㅁ, ㅇ, 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코안의 울림을 계속 유지해야 해서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51 '참치쫄쫄'은 숨을 거세게 터뜨려야 하는 거센소리(ㅈ)와 목근육을 강하게 긴장시켜야 하는 된소리(ㅊ, ㅍ)가 연달아 나타난다. 이 때문에 발음할 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을 주게 된다.

- 52 '박 법학 박사'는 단어가 안울림소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거나(ㅂ, ㅍ) 공기를 틈새로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켜야 해(ㅎ, ㅅ)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ㄴ, ㄹ, ㄹ’ 등 울림소리가 연속으로 이어져 발음하기가 어렵다.

**53** 빈칸 뒷부분에 제시된 ‘혀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곧 소리 나는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다. 즉, ‘ㄹ(잇몸) → ㄷ(센입천장) → ㄱ(여린입천장)’ 순서로 입안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소리 나는 위치가 급격히 이동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54** 일상 속에서 음운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확한 발음을 찾아보고 반복해서 발음하며 올바른 발음을 익혀야 한다(ㄷ). 또 음운의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ㄷ).

# \* 압축파일

096쪽

- ① 음운 ② 단위 ③ 말소리 ④ 잇몸 ⑤ 파찰 ⑥ 유음  
⑦ 후설 ⑧ 고모음

097~098쪽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 01 ① 02 ② 03 ④ 04 ① 05 ㄹ 06 ②  
07 ① 08 ④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④ 14 ② 15 ②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자음, 모음, 말소리의 길이로 이루어진다. 자음은 공기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아 흘러나오는 소리로 모음과 만나야 발음할 수 있는 반면, 모음은 공기가 발음기관의 방해 받지 않고 흘러나오는 소리로 홀로 발음할 수 있다.

**02** <보기>의 자음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목청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ㅎ’이 있다.  
③ 잇몸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ㄷ, ㅌ, ㅍ, ㅊ, ㅅ, ㅆ, ㄴ, ㄹ’이 있다.  
④ 센입천장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ㄷ, ㅌ, ㅍ, ㅊ’이 있다.  
⑤ 여린입천장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ㄱ, ㅋ, ㆁ, ㆅ’이 있다.

**03** <보기>의 헛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센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는 센입천장소리로, ‘ㄷ, ㅌ, ㅍ, ㅊ’이 있다.

**04** 코안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자음은 울림소리 중에서도 비음을 말한다. 비음에는 ‘ㄴ, ㄹ, ㄹ’이 있다.

**오답 풀이** ② ‘ㄹ’은 울림소리 중에서 입안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유음(흐름소리)이다.

③, ④ ‘ㄱ, ㅍ’은 안울림소리이며 파열음이다.

⑤ ‘ㅎ’은 안울림소리이며 마찰음이다.

**05** **시술형** ‘입안을 울려 소리’를 낸다고 하였으므로 울림소리임을 알 수 있고, ‘입안’을 울린다는 것과 ‘코를 막아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ㄹ’이다.

**06** 울림소리는 코안이나 입안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므로 울림소리가 많이 사용된 단어를 발음하면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난다. 따라서 <보기>의 단어 중 울림소리(ㄴ, ㄹ, ㄹ, ㄹ)가 사용된 단어는 ‘말랑말랑(㉠)’, ‘나폴나폴(㉡)’이다.

**오답 풀이** ㉠ 된소리인 ‘ㄷ’이 반복되고, 받침에는 안울림소리인 ‘ㄱ’이 연달아 나와 소리가 명확하고 끊기는 느낌이 난다.

㉡ 안울림소리인 ‘ㅍ, ㅌ, ㄱ’이 반복되어 소리가 명확하고 끊기는 느낌이 난다.

**07** <보기>의 첫 번째 설명에서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안울림소리에 해당한다. 두 번째 설명에서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낸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파열음에 해당한다. 세 번째 설명에서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즉 혀의 뒤와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안울림소리이자 파열음이면서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으로는 ‘ㄱ’이 있다.

**08** ㉠ ‘단단하다’의 ‘ㄷ’은 예사소리, ㉡ ‘판판하다’의 ‘ㅍ’은 된소리, ㉢ ‘탄탄하다’의 ‘ㅌ’은 거센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예사소리보다 된소리, 거센소리를 발음할 때 성대를 더 긴장시켜야 하므로 예사소리가 쓰인 ㉠의 발음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② 거센소리를 발음할 때 성대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키며 숨을 거세게 터뜨리므로 ㉢을 발음할 때 가장 발음이 세고 거친 느낌이 든다.

③ ‘ㄷ, ㅌ, ㅍ’은 모두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한다.

⑤ ㉠, ㉡, ㉢을 발음할 때의 느낌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각 단어에 쓰인 소리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09**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변하면 이중 모음으로 구분하므로, ㄱ은 틀린 설명이다. 단모음은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입술 모양을 등글게 하지 않는 것은 평순 모음, 중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입이 더 열려 혀의 위치가 낮은 것을 저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 앞쪽에 있는 것은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은 설명이다.

**10**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따라서 단모음만 사용한 단어는 ‘괴, 구’가 쓰인 ‘외출’이다.

**오답풀이** ①의 ‘ㅏ’, ②의 ‘ㅑ’, ③의 ‘ㅓ’, ⑤의 ‘ㅕ’는 이중 모음이다.

- 11 단모음 중에서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모음’은 고모음으로, ‘ㄴ, ㄷ, ㄹ’가 있다.

**오답풀이** ①의 ‘ㅏ’, ③의 ‘ㅓ’는 저모음이다.

②의 ‘ㅑ’, ④의 ‘ㅕ’는 중모음이다.

- 12 <보기>의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것은 평순 모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하는’ 것은 전설 모음을 말한다. 평순 모음에는 ‘ㅏ, ㅓ, ㅑ, ㅕ, ㅡ, ㅣ’가 있고, 전설 모음에는 ‘ㅗ, ㅛ, ㅜ, ㅠ, ㅡ’가 있으므로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모음은 ‘ㅓ, ㅕ, ㅣ’이다.

**오답풀이** ① ‘ㅏ’는 평순 모음이지만 후설 모음이고, ‘ㅑ’는 원순 모음이자 후설 모음이다.

③ ‘ㅓ’는 전설 모음이지만 원순 모음이고, ‘ㅕ’는 평순 모음이지만 후설 모음이다.

④ ‘ㅡ’는 평순 모음이지만 후설 모음이다.

⑤ ‘ㅣ’는 원순 모음이자 후설 모음이고, ‘ㅛ’는 전설 모음이지만 원순 모음이다.

- 13 ‘ㅓ’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원순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모음이다.

**오답풀이** ① ‘ㅡ’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후설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모음이다.

② ‘ㅑ’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원순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후설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중모음이다.

③ ‘ㅏ’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후설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저모음이다.

⑤ ‘ㅛ’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원순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중모음이다.

- 14 첫 번째 설명의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단모음, 두 번째 설명의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것은 원순 모음, 세 번째 설명의 ‘혀의 위치가 중간에 있는’ 것은 중모음에 해당한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모음은 ②의 ‘ㅓ, ㅕ’이다.

**오답풀이** ① ‘ㅏ’와 ‘ㅑ’는 단모음이자 평순 모음이지만 ‘ㅏ’는 저모음, ‘ㅑ’는 중모음이다.

③ ‘ㅓ’와 ‘ㅕ’는 단모음이자 원순 모음이지만 ‘ㅓ’는 중모음, ‘ㅕ’는 고모음이다.

④ ‘ㅑ’와 ‘ㅕ’는 단모음이자 원순 모음이지만, ‘ㅑ’는 고모음, ‘ㅕ’는 중모음이다.

⑤ ‘ㅡ’와 ‘ㅛ’는 단모음이자 고모음이지만, ‘ㅡ’는 평순 모음, ‘ㅛ’는 원순 모음이다.

- 15 ‘모래’의 ‘ㅐ’와 ‘모레’의 ‘ㅔ’는 각각 저모음과 중모음으로, 발음할 때 ‘ㅐ’는 혀의 위치가 가장 낮고 ‘ㅔ’는 중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ㅐ’와 ‘ㅔ’의 소리 구분이 거의 사라졌다.

→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99~101쪽

|                      |                       |            |
|----------------------|-----------------------|------------|
| 01 ④                 | 02 자주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 | 03 ①       |
| 04 ㄹ, △(반치음), ㅇ(옛이음) | 05 ③                  | 06 ①       |
| 07 ④                 |                       |            |
| 08 ㅣ                 | 09 ②                  | 10 ④       |
| 11 ①                 | 12 ⑤                  | 13 ㅈ, ㅉ, ㅊ |
| 14 ⑤                 | 15 ⑤                  | 16 ④       |
| 17 ③                 | 18 매미, 위치             |            |
| 19 ①                 | 20 ④                  |            |

- 01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는 우리의 문자가 없어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 쓰는 상황이었는데, 양반이 아닌 백성은 글을 배울 기회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 02 **서술형** 우리말과 한자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 대왕은 우리 고유의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글을 창제하였다(자주정신). 또 세종 대왕은 백성이 글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애민 정신), 누구나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우리의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다(실용 정신).

- 03 세종 대왕은 자음자를 창제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ㄱ, ㄴ, ㄷ, ㄹ, ㅇ’을 만들었다(상형의 원리). <보기>에서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은 ‘ㄱ’에 해당하고,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은 ‘ㄴ’에 해당한다. 나머지 ‘ㄷ, ㄹ, ㅇ’은 각각 입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들이다.

- 04 **서술형** 자음의 기본자(ㄱ, ㄴ, ㄷ, ㄹ, ㅇ)에 획을 하나씩 더해 만든 글자는 가획자로,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이 있다. 이러한 가획자들은 획이 더해진 만큼 소리도 세진다는 특성이 있으나,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음에도 소리가 세지지 않는 이체자 ‘ㄹ, △(반치음), ㅇ(옛이음)’이 존재한다.

- 05 세종 대왕이 한글의 자음을 창제할 때, 자음의 기본자와 가획자, 이체자 외에도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들(ㅁ, ㅂ, ㅅ, ㅈ, ㅊ,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과 두 개의 자음자를 세로로 이어 쓴 글자들(ㅄ, ㅅ, ㅈ, ㅊ,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 만들어졌다.

- 06 세종 대왕이 한글의 모음을 창제할 때,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각각 ‘ㅏ, ㅓ, ㅣ’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 07 기본자 외의 모음자에는 모음의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초출자(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재출자(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자끼리 합하여 만들어진 나머지 그 외의 모음자들(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 있다. ④의 ‘ㅑ’는 초출자 ‘ㅏ’에 기본자 ‘ㅓ’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반면 나머지는 이미 만들어진 모음자끼리 서로 합하여 만들어졌다.

- 08 **서술형** <보기>의 ‘ㅏ, ㅓ, ㅣ’에 각각 ‘ㅣ’를 합하면 ‘ㅑ, ㅓ, ㅕ’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에 들어갈 모음은 ‘ㅣ’이다.

09 한글은 ㉠과 같이 표기하지 않고, ㉡과 같이 모아쓰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는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끼리 모아쓰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글자를 읽기도 쉽고 글자의 뜻을 파악하기도 쉽게 한다.

10 한글은 발음 기관과 천지인(天地人)의 모양을 본떠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고 이에 획을 더하거나 글자끼리 합하는 등 규칙을 가지고 확장하여 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이다. 창제 당시에는 28개, 현재는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한정된 자음과 모음으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글자이기도 하다.

1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ㄴ), 그중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ㄱ).

**오답풀이** ㄷ. 말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과[사과]’는 짧게 발음하여 사과나무의 열매를 뜻하지만 ‘사과[사과]’는 길게 발음하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을 가진다.

ㄹ.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아 나오는 소리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 모음은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지 않고 흘러나오는 소리이다.

12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하나만 바뀌어도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기>의 ‘봄’에서 초성 ‘ㅂ’을 ‘ㄱ’으로 바꾸어 ‘곰’이라는 새 글자를 만들면 뜻이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첫째 철’에서 ‘표유강 식육목 곰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달라진다.

**오답풀이** ①, ③ ‘곰’의 음운은 ‘ㄱ’, ‘ㅇ’, ‘ㅁ’, ‘봄’의 음운은 ‘ㅂ’, ‘ㅇ’, ‘ㅁ’, ‘밤’의 음운은 ‘ㅂ’, ‘ㅍ’, ‘ㅁ’의 3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성-중성-종성의 구조를 보인다.

② ‘곰’과 ‘봄’은 초성이 ‘ㄱ’, ‘ㅂ’으로 다르지만, 중성과 종성은 ‘ㅇ’과 ‘ㅁ’으로 같다. 따라서 ‘곰’과 ‘밤’의 뜻 차이는 초성이 다른 데서 온다.

④ ‘봄’은 ‘ㅂ’, ‘ㅇ’, ‘ㅁ’, ‘밤’은 ‘ㅂ’, ‘ㅍ’, ‘ㅁ’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성과 중성은 같고 종성에 쓰인 모음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3 **서술형** 자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파찰음으로, ‘ㅈ, ㅉ, ㅊ’이 있다.

14 <보기>의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다는 것은 잇몸소리를 말하고, ‘입안이나 목청을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마찰음을 말한다. 잇몸소리에는 ‘ㄴ, ㄷ, ㅌ, ㅍ, ㅊ, ㅊ, ㅊ, ㅊ’이 있고, 마찰음에는 ‘ㅅ, ㅆ, ㅎ’이 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예사소리인 자음은 ‘ㅅ’이다. 따라서 ‘ㅅ’을 포함한 단어는 ‘시금치’이다.

15 모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지 않고 흘러나오는 소리로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단모음과 이중 모음은 모음의 종류에 속한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는 모음이고,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

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한다. 반면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고 나오는 소리로 홀로 소리 낼 수 없고 모음과 결합할 때 소리가 난다.

**오답풀이** ①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으로, ‘ㅏ, ㅑ’는 이에 해당한다.

②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모음으로, ‘ㅏ, ㅑ’는 이에 해당한다.

③ ‘ㅏ, ㅑ’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④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데, 예를 들어 ‘ㅏ’를 발음해 보면 ‘ㅑ’를 발음하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ㅑ’를 발음하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제시된 모음 ‘ㅑ’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단모음이고(ㄱ),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을 둥글게 오므리므로 원순 모음이며,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을 기준으로 입 뒤쪽에 있어 후설 모음이다(ㄷ). 또 ‘ㅑ’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중간에 위치하므로 중모음(ㄴ)에 해당한다.

17 ‘ㅑ’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에 있는 중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평순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을 기준으로 입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따라서 ‘ㅑ’를 발음할 때보다 입이 조금만 열려서 혀의 높이를 더 높인 고모음이자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면서 전설 모음이어야 하므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모음은 ‘ㅑ’이다.

18 **서술형**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을 기준으로 입 안쪽에 있는지 입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설 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가 있으므로 전설 모음이 들어간 단어는 ‘매미’와 ‘위치’이다. ‘거울’의 ‘ㅓ, ㅕ’, ‘주소’의 ‘ㅓ, ㅛ’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19 ‘공’의 받침인 ‘ㅇ’은 입천장의 뒤쪽 부드러운 부분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인 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간’의 받침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 나는 잇몸소리이다. 따라서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소리 나는 위치를 입 뒤쪽(여린입천장)에서 앞쪽(잇몸)으로 급격히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20 민준이가 ‘금천’이 아닌 ‘금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단모음 ‘ㅇ’을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민준이가 입술을 충분히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하게 되면, 수아는 평순 모음인 ‘ㅏ’로 잘못 듣게 되어 ‘금천’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아가 ‘금천’으로 이해한 것은 민준이가 ‘ㅇ’을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세상을 담아내는 창



복합양식의 글과 자료 읽기

####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04쪽

01 ③ 02 비판적 03 ⑤

- 01** 복합양식은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기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02**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읽을 때는 내용과 자료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표현 방법이 글이나 자료의 의도, 목적에 적절한지 등을 비판적으로 살핀다.
- 03** 복합양식 글과 자료를 평가할 때는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독자의 생각이나 주관에 부합하는지는 적절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 학습목

105~108쪽

- 105쪽** 처음 소주제: 인공 지능  
① 예술  
② 인공 지능
- 107쪽** 중간 소주제: 일자리  
① 인공 지능  
② 높은, 대면
- 108쪽** 끝 소주제: 역량  
① 조정  
② 경쟁력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05~108쪽

- 105쪽** 01 ⑤ 02 ⑤  
**106쪽** 03 ④ 04 ④ 05 ①  
**107쪽** 06 ① 07 ⑤ 08 ①  
**108쪽** 09 ④ 10 ⑤ 11 ④

- 01** 처음 1에서 인공 지능 아나운서의 사례를, 처음 2에서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공 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전달하며 인공 지능의 발달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02** 처음 1에서 도정 정책 영상 뉴스 제작에 인공 지능 아나운서를 도입하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고, 뉴스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03** ①은 세계 경제 포럼의 보고서 내용으로,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업무 비중이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①은 중간 1의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인공 지능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오답풀이

- ① ①은 인공 지능으로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자료이므로 인공 지능이 어떤 업무를 대체하는지와 연관이 없으며, 인공 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단순한 업무를 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중간 1에서 과거에 사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계산, 글자 입력과 같은 단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였지 컴퓨터의 업무를 인공 지능이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 ③ ①은 인공 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일자리에서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자료이므로 일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 ⑤ 중간 2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야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①은 인공 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자료이므로 인공 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04** 중간 2에서 세계적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들어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었다.
- 05** 중간 2에서는 세계적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의 분석 결과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제시하였다. [A]는 이 내용을 꺾은선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 06** '인공 지능 노출 지수'는 해당 직업의 업무 중에서 현재 인공 지능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표가 높을수록 인공 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고, 지표가 낮을수록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적은 직업이다.
- 07** 중간 4에서 일반 의사의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의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임을 알 수 있다. 중간 5의 막대 그래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08** 중간 5에서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 09**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인공 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제시하였다.
- 오답풀이** ① 끝 2에서 인공 지능 시대에 우리가 길러야 하는 역량에 대해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을 제시하여 글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끝 3에서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 ③ 이 글은 텍스트와 함께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상을 사용한 복합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길러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10 끝 ㉓에서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발달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인공 지능과 차별화된 능력을 기르고 인공 지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 11 ㉑ 뒤에 제시된 경제 평론가의 말을 통하여 인공 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알 수 있다.

### 활동

109~114쪽

- 탐구** 109쪽 1 인공 지능  
2 신뢰  
110쪽 2 일자리  
3 경제  
111쪽 4 그림, 막대그래프  
112쪽 4 꺾은선 그래프  
**적용** 113쪽 1 다문화  
114쪽 1 우리

### 학습목

109~114쪽

- 112쪽 ① 기호  
② 신뢰  
114쪽 ① 자막  
② 공감대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09~114쪽

- 109쪽 01 ④ 02 ⑤  
110쪽 03 ③ 04 ④  
111쪽 05 ① 06 ③  
112쪽 07 ④ 08 ② 09 근거, 의도  
113쪽 10 ⑤ 11 ⑤ 12 자막  
114쪽 13 ④ 14 ⑤

- 01 이 글은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의 일자리 문제를 화제로 제시하며 미래 시대를 위해 인공 지능과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02 ㉑은 인공 지능으로 인해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2022년 34퍼센트에서 2027년에는 42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㉑은 인공 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적절하다. ㉒은 고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㉒은 인공

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이다.

- 오답 풀이** ① ㉑은 인공 지능으로 인해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2022년 34퍼센트에서 2027년에는 42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자료로 인공 지능으로 사람의 일이 대체되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 ② ㉒은 고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자료이다.
- ③ ㉑은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자료이고, ㉒은 세계적인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이므로 두 자료 모두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
- ④ ㉑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㉒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자료이다.

- 03 이 글은 주제와 연관된 상반된 관점을 설명하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들어 글의 내용을 타당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글쓴이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04 제시된 자료는 전문가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로, 글 내용을 타당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의 출처가 공신력 있는 방송사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 지능이 창조할 미래 사회의 모습은 이 자료에서 제시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
- 05 제시된 자료는 방송에 사용되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오늘날 인공 지능의 발전 정도를 드러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 지능이 쓰이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06 ㉑은 각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독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07 (나)는 인공 지능 분야의 고용 경향(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일자리 수의 변화)이 변화된 양상을 점, 선, 숫자로 드러낸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08 (가)와 (나)는 같은 내용을 각각 줄글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같은 줄글을 (나)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하면 독자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09 복합양식 자료를 읽을 때에는 내용과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글의 의도나 목적에 맞는 표현 방법으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 10 이 광고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11 장면 ①과 장면 ②에서는 승원과 하늘이 각자 자신의 친구인 모히브와 카리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 주며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12 마지막 장면인 장면 ④에서 화면과,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자막을 통해 광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3 다문화 청소년을 소개하며 서로 다르지 않음을 전달하는 장면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지녀야 하는 태도에 대해 전달하고 있는 광고이다.

**오답풀이** ①, ③, ⑤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음식을 먹는 등 평범한 일상을 제시하여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광고를 보는 이가 공감하게 하고 있다.

② 이 광고는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과 태도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4 제시된 장면에는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자막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 외의 청소년을 '우리'라고 일반화한 후 다문화 청소년도 '우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

#### \* 압축 파일

116쪽

- ① 일자리 ② 인공 지능 ③ 자동 ④ 창조 ⑤ 흥미  
⑥ 꺾은선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17~118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6 ④  
07 ① 08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창조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인공 지능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 및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01 복합양식 글이나 자료를 읽을 때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자료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해진 것인지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아닌 인공 지능이 현재 어떠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공 지능이 발전한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각각 서술하였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인공 지능으로 인해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2022년 34퍼센트에서 2027년에는 42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 부분과, (라)에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는 2022년 9월 기준 3,168개에서 2023년 9월 기준 5,079개로 약 60퍼센트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다.

③ (가)에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의 사례를 제시하고, (나)에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창조한 그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④ (다)에서는 인공 지능이 사람을 대체하여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라)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자료를, (라)에서는 세계적인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3 (다)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며, 그 예로 계산이나 글자 입력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인공 지능 아나운서를 도입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여 뉴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인공 지능이 활발하게 쓰이면서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04 제시된 자료는 (라)의 고용 데이터의 증가 추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문자로 제시된 내용을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독자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05 (나)에서는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의 수와 비중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인공 지능에 영향을 받는 국내 일자리의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인공 지능 노출 지수는 '해당 직업의 업무 중에서 현재의 인공 지능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라고 설명하였다.

② (나)에서 '대면이 필요한 업무보다는 각종 검사 결과를 판독하거나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 '주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자동화하는 업무'를 인공 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인공 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 즉,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은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일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인공 지능 노출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업이라고 하였다.

06 (가)~(다)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국내 일자리의 비중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공 지능을 업무에 활용 중인 직업의 비중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라)에서는 공신력 있는 공영 방송사의 동영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글에 제시된 인공 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여 보여 주고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8 **서술형** (라)에 인공 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 쓰기

###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19쪽

01 ③ 02 ① 03 ②

- 01 표는 많은 정보를 체계적·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보여 주는 복합양식 자료이다. 대량의 정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것은 아니다.
- 02 글에 활용할 복합양식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자료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03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활용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한다.

### 활동

120~126쪽

탐구 120쪽 1 달리기

122쪽 2 목적

123쪽 3 독자

### 학습곡

120~126쪽

125쪽 ① 내용

② 저작권

126쪽 ① 공동체, 계획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20~126쪽

120쪽 01 ⑤ 02 ⑤ 03 ②

121쪽 04 ② 05 ⑤ 06 ③

122쪽 07 ④ 08 ③ 09 ⑤

123쪽 10 ② 11 ③ 12 글의 유형

124쪽 13 ⑤ 14 ① 15 ③

125쪽 16 ⑤ 17 가수가 부른 전체 노래 목록 18 ①

126쪽 19 ③ 20 ③

- 01 하늘이는 자신이 본 두드림의 10주년 기념 공연을 소개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유형은 블로그 게시 글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수 두드림의 공연을 보고 이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③ 인터넷 매체를 통해 블로그에 게시하는 글이므로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가수 두드림의 공연에 오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겠다고 예상 독자를 설정하였다.

0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글의 종류, 목적, 유형, 예상 독자 등을 선택한다. 수집한 자료를 알맞게 배치하는 활동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맛집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다고 하였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지만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 유형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은 이미 진행된 두드림의 10주년 기념 공연에 대한 정보를 포스터와 글로 전달한 기사이므로 다음 공연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기사를 통해 두드림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신곡을 발표하기 위해 공연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기사를 통해 공연 출연자인 두드림이 독보적인 음색과 섬세한 감성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는 정보를 알 수 있다.

④ 두드림의 이번 공연 포스터 이미지를 제시하여 기사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⑤ 공연 티켓이 5분 만에 매진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공연의 인기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05 ㉠은 소속사의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된 신곡 발표 순간의 동영상이다. 글쓴이는 이 동영상에서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지고 자신의 글에서 신곡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공연장의 분위기와 신곡 정보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6 ㉡은 공연장 공식 누리집에서 얻은 공연장의 무대와 좌석 배치도 및 공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로, 공연장 규모와 좌석 배치 등 공연의 기본적인 정보를 글에 포함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다.

07 예상 독자와 주제를 참고할 때, 달리기를 시작해 보라고 권유하는 목적의 글을 쓸 계획이므로 마라톤 대회에 대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책은 문자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달리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② 달리기가 취미인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 자료는 달리기를 시작해 보라고 권하는 글을 쓰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③ 달리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사는 달리기를 권하는 글의 자료로 적절하다.

⑤ 달리기의 기본 자세에 대한 동영상은 달리기를 시작하자는 글에 달리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 08 글쓰기 자료를 선택할 때는 자료가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지, 사실과 일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글쓴이 자신의 흥미를 자극하는지 여부는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09 하늘이는 독자에게 공연장의 위치 정보를 더 자세하게 제공하고자 하므로 누리집에 게시된 공연장 약도를 추가 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0 복합양식 자료의 활용 계획에 밝혔듯이 두드림의 10주년 공연 포스터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 11 사람들의 체력 정도를 수치화하여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나 표 유형의 자료가 적절하다.
- 12 같은 예상 독자를 대상으로 같은 목적의 글을 쓰더라도 글의 유형에 따라서 글의 내용, 형식, 표현 방식 등이 달라진다.
- 13 하늘이가 작성한 블로그 글에 관객석에서 찍은 공연 사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풀이** ① 공연 포스터는 글의 처음 부분에 공연의 의도를 강조하고, 글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활용되었다.  
②, ③ '공연 일시 및 공연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부분에 공연장 구조 그림과 공연장 위치 링크를 제시하였다.  
④ 두드림의 신곡 발표 동영상상 '신곡 공개' 부분에 제시하여 공연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신곡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 14 이 글의 2번째 문단에서 '오늘은 공연에 가지 못해 아쉬울 팬들을 위해'라고 하였으므로 공연을 보지 못한 팬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신곡을 소개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공연에서 부른 곡들의 목록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6 글을 쓸 때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글의 내용과 형식에 어울리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복합양식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거나 복합양식 자료 위주로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7 <보기>의 독자는 공연에서 가수가 어떤 곡을 불렀는지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가수가 부른 전체 노래 목록을 제시하여 글을 보완할 수 있다.
- 18 인터넷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라도 출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저작권을 확인해 보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이용 조건에 맞게 사용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오답풀이** ② 동영상 자료는 상황, 사건, 대상의 움직임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므로 장면의 현장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이므로 글의 내용에 맞추어 추가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나 위치 정보 등의 링크를 연결할 수 있다.  
④ 블로그에 게시하는 글이므로, 블로그에 댓글로 달린 내용을 확인하여 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⑤ 그림, 사진과 같은 복합양식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19 글의 주제는 급식의 잔반을 줄이는 것이므로 우리 학교와 다른 기관의 급식 계획을 비교한 표는 잔반과 관련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 20 공동체의 문제란 우리 반, 학교, 지역 사회, 국가 및 세계 전반의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적 고민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한 주제로 볼 수 없다.

### \* 압축 파일

128쪽

- ① 그래프 ② 동영상 ③ 매체 ④ 개요 ⑤ 고쳐쓰기  
⑥ 저작권

###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29~130쪽

- 01 ② 02 ② 03 ⑤ 04 ② 05 ② 06 공연장 위치를 설명하는 누리집의 링크를 연결한다.

- 01 ㄱ은 소리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글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ㄴ은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반면 ㄷ의 설명은 문자에, ㄹ의 설명은 표에 해당한다.
- 02 (가)는 기사문으로 공연의 인기와 공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글로 제시하고 공연 포스터를 함께 제공하여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전달하는 복합양식 자료이다.
- 오답풀이** ① (가)는 문자와 포스터 사진이라는 시각적 요소만을 활용한 기사문이다.  
③ (나)는 신곡 공개 장면을 담은 동영상으로 공연장에 대한 정보가 아닌 신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④ (다)는 공연이 아닌 공연장의 크기와 좌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⑤ (나)는 동영상 자료로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시하였고, (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연장 좌석 배치도와 문자를 함께 제시하였다.
- 03 <보기>에서 글의 예상 독자는 두드림의 공연에 오지 못해 아쉬웠던 사람들, 글의 유형은 블로그 게시 글, 글의 목적은 공연을 소개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다)의 공연장 배치도는 무대와 객석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될 뿐, 공연 당시의 생생함을 표현해 주지는 않는다.
- 04 (나)에 제시된 시간은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시간으로, (가)의 공연 일시와는 관련이 없다.
- 05 글을 점검할 때는 예상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썼는지 확인할 뿐, 글에 대한 독자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하지는 않는다.
- 06 **서술형** ㉠은 공연장 위치 정보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온라인 블로그에 게시된 글로, <보기>처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공연장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려면 위치 정보를 설명하는 누리집의 링크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험에 나오는 대안원 문제

131~133쪽

- 01 ④ 02 인공 지능 분야의 고용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인공 지능 분야 관련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03 ⑤ 04 ④  
05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6 ② 07 ③  
08 ② 09 ④

01 (나)에서는 해외에서 인공 지능이 활용된 사례로 인공 지능이 제작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의 인공 지능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인공 지능으로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 자료, (라)에서 인공 지능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본 수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②, ⑤ (다)에서 인공 지능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로 (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가), (나)에서 인공 지능 아니운서,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2 **서술형** (라)는 인공 지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내용으로, 이를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로 제시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03 ①의 근거는 세계 경제 포럼이 2023년에 발표한 「일자리와 미래」 보고서 내용이다.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인공 지능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근거 자료이다.

04 (다)에서 인공 지능이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인공 지능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입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서술형** (다)에서는 인공 지능 시대에 길러야 할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된 전문가의 인터뷰로 뒷받침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6 [A]는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제시한 막대그래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고 낮은 직업을 알 수 있다.

07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 동영상, 링크 등 다양한 복합양식 자료는 모두 출처를 밝히고 활용하였다.

08 이 글의 제목과 포스터에 ‘열 번째 두드림’이라는 공연 제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두드림의 ‘10주년 기념 공연’을 가리키는 것일 뿐 예매를 위한 노력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①은 글쓴이가 이 공연을 본 구체적인 관객성이므로 무대가 잘 보였다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좌석에서 본 무대의 사진을 추가할 수 있다.

4 창의적인 발상, 표현하는 재미



반어, 풍자, 역설 표현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36쪽

- 01 ⑤ 02 풍자 03 역설

01 반어는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주어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을 수도 있다. ⑤의 설명은 반어가 아니라, 비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은 풍자로, 풍자를 활용하면 비판하는 대상을 희화화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이는 독자가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와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대상을 거부감 없이 비판할 수도 있다.

03 제시된 문장에서 ‘눈을 감고 보아야만’과 ‘더 잘 보이는’은 겉으로는 서로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의미를 살펴야 진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역설 표현에 해당한다.

학습곡

137~142쪽

141쪽 절정 소주제: 탐관오리

- ① 변 사또  
② 풍자  
③ 긴장감  
④ 춘향

142쪽 결말 소주제: 백년해로

- ① 탐관오리, 부부, 사랑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37~142쪽

- 137쪽 (1) 임기 (2) 부임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37~142쪽

- 137쪽 01 ②  
138쪽 02 ⑤ 03 ③ 04 ①  
139쪽 05 ④ 06 ③ 07 암행어사 출두야  
140쪽 08 ④ 09 ③ 10 ⑤  
141쪽 11 ③ 12 ④ 13 오얏 꽃  
142쪽 14 ③ 15 ④ 16 신분

01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변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당하자, 춘향의 어머니가 아니라 춘향을 옥에 가두었다.

02 절정 3에서 어사또는 다른 사람들의 푸짐한 다담상과 달리, 자신이 걸인 행색을 하고 있어 부실한 상차림을 받았다고 느끼자 이에 분노하여 상을 발로 찬 것이다.

03 ㉠에 따르면 변 사또는 자신의 생일잔치에 걸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벌이면서도 걸인에게 배풀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변 사또는 남에게 배풀지 않는 인색한 성격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04 절정 3에서 어사또는 상차림이 부실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상을 차며 불만을 표했는데, ㉡에서는 ‘좋은 잔치’, ‘맛난 술과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반어 표현을 활용해 속마음을 반대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리를 담은 표현을 말한다.

05 어사또는 한시를 지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사치를 한다는 것을 비판하며 자신의 정체가 암행어사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를 읊은 이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극적 긴장감이 형성된다.

**오답풀이** ① 한시를 통해 자신의 정체가 암행어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가 극심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의 주제인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지금까지의 사건 전개와 다르게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에만 신경 쓰는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06 절정 4에서 사람들은 어사또가 지은 한시를 통해 어사또가 단순한 걸인이 아니라 암행어사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절정 5에서 ㉢과 같이 반응하였다.

07 절정 6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말과 함께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여 풀과 나무, 짐승들까지 벌벌 떨었’다고 묘사하며 암행어사의 출두를 요란하게 알리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건의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이로 인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08 절정 7에서는 어사출두로 체면을 잃고 허둥대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당황한 변 사또가 말실수를 하는 모습을 언어유희로 표현하여 당대 지배층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하지만 절정 7에는 탐관오리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뿐,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거나 처벌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변 사또는 당황한 나머지 단어의 위치를 바꿔 말하는 언어유희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관리들이 어사출두로 허둥대는 모습 또한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다.

② ‘좌수와 별감들은 냇을 잃고, 이방과 호장은 혼을 잃고’와 ‘도장 깨 잃고 유밀과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등을 통해 관리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열거 및 대구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관리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일반적인 모습보다 더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도망가는 장면을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 관리들이 달아나는 이유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였기 때문인데, 평소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등 잘못을 저질러 암행어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이 우스꽝스럽게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당대 지배층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09 절정 7에서 관리들은 어사출두에 당황하여 원래 자신들의 소지품 대신 유밀과, 송편, 용수 등 전혀 다른 물건을 챙기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10 절정 8에서 아직 춘향에게 자신의 정체가 몽룡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어사또는 ㉣과 같이 말함으로써 춘향과 이별해 있는 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11 ㉤의 ‘바람’과 ‘눈’은 변 사또의 수청 요구와 같은 권력의 압박을, ‘(높고 높은) 바위’와 ‘(푸르른) 나무’는 이에 응하지 않는 춘향의 굳센 신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는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겠다는 춘향의 태도가 드러난다.

12 ㉥은 어사또의 정체가 몽룡이라는 것을 춘향에게 알려주는 부분으로, 이에 춘향은 드디어 몽룡과 재회하고 춘향의 위기도 끝이 나게 된다. 따라서 ㉥을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고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13 몽룡과 재회한 춘향은 [A]에서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이때 ‘가을’과 ‘낙엽’은 변 사또의 횡포와 그로 인해 춘향이 겪은 고초를 상징하고, ‘봄바람에 피어난’ 오얏꽃’은 춘향을 구하러 온 몽룡을 상징한다.

14 결말 1에서 춘향은 지조를 지키고, 몽룡은 부패한 관리들을 벌함으로써 각자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고, 한양으로 가 높은 벼슬을 하며 여러 자식을 두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5 ‘정렬부인’은 조선 시대에,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로, 춘향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굳센 신념을 가지고 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또한 두 인물의 신분이 다름에도 이를 뛰어넘은 사랑이 역경 속에서도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16 「춘향전」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로, 당시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기생의 딸이 양반과 혼인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춘향과 몽룡이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혼인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었으며 신분의 한계를 넘어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가 오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활동

143~148쪽

143쪽 1 부정부패, 몽롱, 춘향

144쪽 2 수청, 수탈, 강조

146쪽 4 변 사또, 파리, 두꺼비, 백송골

147쪽 4 부정부패, 웃음, 거부감

학습곡

143~148쪽

145쪽 1 반대로

2 비판

147쪽 3 웃음

4 부정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43~148쪽

143쪽 01 ㉠ - ㉡ - ㉢ 02 ㉤

144쪽 03 ㉤ 04 ㉡

145쪽 05 ㉤ 06 ㉢

146쪽 07 ㉠ 08 ㉢

147쪽 09 ㉠ 10 ㉢ 11 ㉣

148쪽 12 ㉡ 13 ㉤

- 01 <보기 1>은 이 글의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걸인으로 변장한 몽롱(어사또)은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서 푸대접을 받고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는 한시를 짓는다(㉠). 이후 몽롱은 어사출두를 하며(㉡) 변 사또를 비롯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춘향과 재회한다(㉢).
- 02 이 글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 소설로, 변 사또가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벌이고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당시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 03 제시된 표현은 몽롱이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서 푸대접을 받고 이에 대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불쾌한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04 <보기>에서 춘향은 어사또도 변 사또와 같은 부정한 관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하나같이 훌륭하기만' 하다고 비꼬고 있다. 이러한 반어 표현을 사용하면 맥락에 따라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 05 반어는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내는 방법임으로 독자가 표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주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 06 <보기>의 '나'는 늦잠을 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늦잠을 잔 상황으로, '엄마'는 이를 비판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반어 표현을 사용하려면 '나'의 행동에 대한 비판의 의미와 반대로 표현해야 하므로 게으르게 늦잠을 잤다는 것과 반대되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보기>의 '나'가 늦잠을 잔 행동과 늦잠을 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반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속담을 인용하여 <보기>의 '나'를 비판한 것으로,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고 있다.

07 <보기>는 어사출두에 당황한 관리들이 체면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을 열거 및 대구, 언어유희 등을 활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드러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독자가 작품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변 사또가 놀란 모습을 '새앙쥐 눈 뜨듯'이라고 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은 있으나 이를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현실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풍자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며, <보기>에서는 독자의 웃음을 유발할 뿐이지 독자의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보기>는 서술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며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해당 장면에서 관리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열거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부패한 관리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이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08 이 시조는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사실시조로, '백송골'은 '두꺼비'가 보고 놀라는 대상이며, '두꺼비'로 표현된 탐관오리보다 높은 관료라고 볼 수 있으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랐으면서도 자신이 날래서 피할 수 있었다고 허세를 부리게 하는 대상일 뿐,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백성, 탐관오리, 고위 관료를 각각 '파리', '두꺼비', '백송골'이라는 동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②, ④ 이 시조의 초장에서 '두꺼비'는 백성을 뜻하는 '파리'를 물고 있는데, 이는 '두꺼비'가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임을 의미한다. 중장에서 '백송골'이 나타나자 '두꺼비'는 '백송골'이 자신을 낚아챌까 봐 두려워 황급히 몸을 피하다가 바위 아래로 자빠지는데, 자신이 날래서 '백송골'을 피할 수 있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이 시조가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시조는 초장과 중장에서 시조 바깥의 말하는 이가 '두꺼비'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장에서 '나이니 망정이지'라고 하며 말하는 이가 '두꺼비'로 바뀌고 있다. 이를 통해 '두꺼비'의 허세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탐관오리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09 '춘향전'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거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벌이면서도 베풀지 않는 변 사또와 같은 탐관오리가 주요 비판 대상이고, 이 시조는 고위 관료가 무서워 몸을 피하였음에도 자신이 잘나서 피한 것이라고 잘난 척을 하는 관리가 주요 비판 대상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부패한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다.

10 「춘향전」은 반어(잔치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을 비꼬는 몽룡의 말 등)와 풍자(어사출두에 놀라 허둥대는 관리들의 모습 등)를 활용해 부패한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이 시조는 ‘두꺼비’가 ‘백송골’을 피해 바위에서 내려오다 자빠지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풍자의 방식으로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웃음을 사용해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를 활용하고 있다.

11 <보기>는 풍자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풍자는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부정적인 대상을 거부감 없이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설의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② 반어는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표현 방법이다.

③ 도치는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표현 방법이다.

⑤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은 표현 방법이다.

12 <보기>는 몽룡이 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지은 한시로, 탐관오리의 횡포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대구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제기된 사회 문제는 백성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지배층의 수탈이라고 볼 수 있다.

13 풍자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보기>에서 친구가 약속에 늦은 상황을 해학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따라서 친구의 지각을 ‘지각하기 경기’라면 ‘금메달’을 딴 상황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하여 친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 학습곡

149쪽

- 149쪽 ① 봄, 길  
② 역설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49쪽

- 149쪽 01 ① 02 ⑤

01 이 시는 직유가 아니라, 역설 표현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는 길이 끝난 곳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길과 사랑은 이어진다는 모순적인 내용에서 희망과 사랑으로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이는 역설 표현으로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③ 이 시의 7~9행에서 흐르다가 멈춘 ‘강물’,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새들’, 흩어진 ‘모든 꽃잎’ 등 자연물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시의 3~4행과 11~12행에서 비슷한 시구가 반복되는데, 이를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다’의 단정적인 어조, 10행의 ‘보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2 ‘봄 길’에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희망의 느낌을 주는 시어이고, ‘길’은 미래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를 표현한 시어이다. 따라서 ‘봄 길’은 희망의 공간이자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활동

150~154쪽

탐구 150쪽 1 봄 길

2 사람, 사랑

151쪽 2 희망, 절망, 참신

152쪽 3 모순

153쪽 3 이치

#### 학습곡

150~154쪽

153쪽 ① 모순

② 강조

154쪽 ① 비판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50~154쪽

150쪽 01 ④ 02 ④

151쪽 03 ③ 04 ②

152쪽 05 ① 06 ⑤ 07 ①

153쪽 08 ⑤ 09 ①

154쪽 10 ⑤ 11 ③

01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 ‘사랑이 끝난 곳’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은 채 살아갈 것임을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다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시에서는 말하는 이가 도시를 떠나 자연에 머물고 싶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이 시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보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⑤ 이 시는 길이 끊기고 사랑이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어가는 모습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역설 표현이란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을 뜻한다. ②는 의인법, ③은 비유적 표현, ⑤는 반어 표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3 <보기>는 역설 표현으로 드러나는 이 시의 주제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희망과 사랑이 되어 나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시는 고통이 가득한 상황과 자신의 부족함을 연관 짓고 있지 않다.

④ 이 시는 스스로 희망과 사랑이 되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타인과의 협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4 역설 표현은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05 [A]는 사람들과 함께 붕어빵을 나누어 먹던 추억을 떠올리며, 붕어빵을 '동전 몇 개로도 살 수 있는 /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라는 역설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붕어빵의 실제 가치는 높지 않지만,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느낀 따뜻한 정과 추억으로 인해 높은 가치를 지닌 음식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한 것이다.

06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기보다는 독자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보게 한다.

② 역설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역설의 효과일 뿐, 참신한 말로만 역설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풍자 표현에 해당한다.

④ 반어 표현에 해당한다.

07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어야 한다. ㄱ의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같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눈앞에 닥친 작은 싸움에서 지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ㄴ의 '침묵'과 '웅변' 역시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ㄷ. '길'과 '희망'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그 속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

ㄹ. '쉬운 일'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그 속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

0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역설 표현으로, 겉으로는 '침묵'과 '대화'가 상충되어 모순되지만, 겉으로는 '침묵'한 채 책을 읽으

며 많은 생각을 한 것이 책을 쓴 글쓴이와 대화하듯 소통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09 <보기>의 영진이는 사람이 많아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놀아 즐거웠다고 하였으므로 힘들과 즐거움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현이어야 한다. ①은 '달콤한'과 '괴로움'을 함께 제시하여 힘들었지만 즐거웠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원관념('나')과 보조 관념('바람 빠진 풍선')을 '마치', '~ 같다'로 연결한 직유이다.

③ 원관념('추억')을 보조 관념('천금')에 빗댄 은유이다.

④ 어떤 일이나 사물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뜻의 관용 표현 '수박 겉핥기'를 사용하였다.

⑤ 몹시 바쁘다는 뜻의 관용 표현 '눈코 뜰 새 없다'를 사용하였다.

10 <보기>의 속담은 어떤 것에 크게 한번 놀라면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어떤 일에 놀란 경험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겁을 먹는 사람을 풍자한 것이다.

11 ㄷ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헛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속담으로, 실행하지도 못할 일을 무턱대고 계획하는 사람 또는 실행하지 못할 계획이나 말뿐인 제안을 하는 사람을 풍자한다.

## \* 압축 파일

156쪽

- ① 반어 ② 희화화 ③ 생일잔치 ④ 암행어사 ⑤ 탐관오리  
⑥ 운율 ⑦ 역설

##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57~159쪽

- 01 ③ 02 ⑤ 03 ① 04 ⑤ 05 ④ 06 ②  
07 ② 08 [A]는 역설 표현으로,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09 ⑤  
10 ④ 11 ②

01 (나)에서 몽룡은 자신의 누추한 행색 때문에 푸대접을 받자 이에 분노해 상을 발길로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때 동음이의어인 '갈비'를 이용해 언어유희를 하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 변 사또는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벌이면서도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서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운봉의 말에서 양반의 신분이어도 걸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몽룡이 지은 한시에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사치를 즐기는 탐관오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운봉이 잔치에 한시를 지으며 즐기자고 제안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어사또의 등장이 암시되자 도망가는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03 ㉠은 운봉 진영장의 말로, 그는 몽룡이 어사또라는 것을 짐작해서가 아니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으나 글을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여겨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오답풀이** ② ㉡의 앞을 보면, 몽룡이 받은 상은 다른 사람들의 다담상과 달리 초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걸인에게 베풀지 않는 변 사또의 인색한 성격을 알 수 있다.

③ 푸대접을 받은 것에 화가 난 몽룡이 상을 발로 차는 모습을 언어유희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④ 몽룡은 푸대접을 받아 화가 났으나 이러한 속마음과 달리 '좋은 잔치', '맛난 술과 음식'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을 비꼬고 있다.

⑤ 몽룡이 지은 한시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도망가기 시작했으나 변 사또는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춘향을 부르고 있다.

04 (가)는 어사출두 직후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관리들이 체면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을 일부러 장황하게 표현하여 상황의 긴박함이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마지막에, 어사출두에 당황하여 변 사또가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는 언어유희가 드러나 있다.

② 관리들이 급하게 도망치느라 정작 필요한 소지품 대신 영동한 것을 챙기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다.

③ '모든 수령이 도망하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라고 말하며 체면을 잃고 허둥대는 관리들의 모습을 과장하여 그리고 있다.

④ '도장 꿰 잃고 유밀과 들고~깨지나니 북·장고였다.'에 대구와 열거가 드러나 있고, 이러한 문장 형식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05 ㉢에서 어사또의 정체는 몽룡이었음이 드러나고, 이에 춘향은 위기에서 벗어나 기뻐한다. 따라서 ㉢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암행어사인 어사또가 횡포를 일삼던 변 사또의 벼슬을 빼앗음으로써 탐관오리를 응징한 대목이다.

② 어사또가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부정관 관리인 척 수청을 강요하는 대목이다.

③ 춘향이 변 사또의 수청 강요와 같은 외부의 압박을 '눈'과 '바람'에, 이에 굴하지 않는 자신의 굳은 신념을 '높고 높은 바위'와 '푸르른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대목이다.

⑤ 춘향과 몽룡이 각자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이후 행복한 여생을 보냈음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대목이다.

06 ㉤는 정체를 숨긴 몽룡이 춘향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부정관 관리인 척을 하자, 춘향이 어사또를 훌륭한 관리라고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반어 표현으로,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주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강조한다. ㉡는 반어가 아니라 풍자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7 이 시는 '길', '사랑', '사람', '봄 길' 등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08 **서술형** [A]의 '길이 끝나는 곳'과 '길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역설 표현에 해당한다. 역설 표현을 활용하면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독자가 표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09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사랑과 희망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ㄴ의 이육사 시인은 투옥을 거듭하는 시련 속에서도 조국 독립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ㄹ의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 사람들의 의료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아들을 잃은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ㄴ. 이황 선생이 자연 속에서 제자를 기르는 데에 힘쓴 것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과 거리가 멀다.

10 ㉢에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 것은 이 시의 말하는 이가 희망과 사랑으로 절망을 극복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절망적인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11 ㉡의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내실이 없는 사람이 아는 척하며 시끄럽게 행동하는 상황을 꼬집는 속담으로, 실속 없이 겉으로만 떠들어 대는 사람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다양한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관심사나 기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또는 부정적 시각이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풍자하는 속담이다.

③ 실행하지도 못할 일을 무턱대고 계획하고 헛된 의논만 하는 사람 또는 실행하지 못할 계획이나 말뿐인 제안을 하는 사람을 풍자하는 속담이다.

④ 배운 것이 적어 저만 ভাল 줄로 아는 사람을 풍자하는 속담이다.

⑤ 어떤 일에 몹시 놀란 경험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겁을 먹는 사람을 풍자하는 속담이다.



##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 활동

160~167쪽

**탐구** 160쪽 1 매체

161쪽 1 역할

163쪽 2 카메라

164쪽 3 석현이

165쪽 4 분위기

### 학습곡

160~167쪽

163쪽 ① 영상

② 시각적, 청각적

166쪽 ③ 스토리보드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60~167쪽

160쪽 01 ③ 02 시청자 03 ②

161쪽 04 ④ 05 ⑤ 06 ⑤

162쪽 07 ③ 08 ③ 09 효과음

163쪽 10 ④ 11 ③ 12 ④

164쪽 13 ② 14 ② 15 롱 샷

165쪽 16 ⑤ 17 ④ 18 자막

166쪽 19 예상 시청자 20 초상권 21 ④

167쪽 22 ① 23 ⑤

- 01 영상 매체 자료는 움직이는 영상으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자료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다. 따라서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만 활용할 때보다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2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예상 시청자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기획한 후 영상을 제작한다.
- 03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영상 매체 자료를 촬영한 후 편집하기 단계에서 논의할 활동이다.
- 04 배우의 동작, 촬영 방법은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쓰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 05 기획안 내용에 따르면, 석현이네 동아리에서 제작할 영상의 기획 의도는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는 거리가 멀다.
- 06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촬영 담당자는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한다.
- 07 시나리오에서 지시문은 인물의 행동, 표정, 배경 음악, 효과음, 카메라 위치와 각도 등을 지시하는 요소이다. 인물의 대사는 지시문이 아니라 대사 그 자체로 표현한다.

- 08 [A]에서는 석현이의 행동과 대사로 장면을 진행하며 엄마는 소리로만 등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S#(Scene Number)와 함께 '집(아침)'이라고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④ 등장인물인 석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기까지의 내용을 석현이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⑤ 엄마의 영상 편지에 대한 석현이의 설명을 내레이션(NAR)으로 제시하였다. 내레이션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행에 따라 내용이 나 줄거리를 화면 밖에서 해설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 09 효과음은 시나리오에서 청각적 요소로 넣는 소리로 장면의 생생함을 더하기 위하여 넣는다.

- 10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시각화하여 정리한 장면 연출 판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 장면의 제작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제작 목표와 제작 계획은 영상 제작 기획안을 쓸 때 고려할 점이다.

②, ③, ⑤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장면의 연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므로 시나리오의 내용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11 스토리보드에는 영상 매체 자료의 시각적 요소(카메라의 움직임, 자막 등), 청각적 요소(효과음, 대사 등)를 정리하여 촬영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12 S# 1-3의 스토리보드에서 제시한 촬영 기법을 보면, 싱크대 하부장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컵라면을 고르는 석현이의 얼굴을 비춘다. 따라서 카메라는 석현이의 뒤가 아니라 싱크대 하부장 안에 배치해야 한다.

- 13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과 자막을 넣는 것은 영상을 촬영할 때가 아니라 촬영 후 편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 14 '하이 앵글'은 대상을 위에서 촬영하여 전체를 조망하거나 촬영 대상을 작아 보이게 하는 촬영 방법이다. <보기>에서 석현이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촬영한다고 했으므로 하이 앵글 촬영 방법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로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촬영하여 대상을 강조하거나 위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촬영 방법이다.

③ '아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촬영 방법이다.

④ '미디엄 샷'은 인물의 상체를 중심으로 촬영하여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촬영 방법이다.

⑤ '클로즈업 샷'은 대상을 가까이 촬영하여 대상의 표정이나 상태 등을 강조하고, 대상의 감정이나 상황을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촬영 방법이다.

- 15 '롱 샷'은 대상의 전체 모습과 배경을 멀리서 촬영하므로 장면의 전체 상황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촬영 방법이다.

- 16 영상에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을 삽입하면 오히려 소리가 겹쳐 인물의 대사가 묻히거나 덜 들릴 수 있다.

- 17 천둥소리와 빗소리와 같은 효과음을 영상에 넣으면 인물의 우울한 심리를 강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 18 자막은 작품 속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19 영상 매체 자료의 평가 기준으로는 예상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했는지, 영상이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성되었는지, 내용의 구성과 흐름이 적절한지, 상황이 잘 드러나게 촬영 및 편집했는지, 배경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등이 있다.
- 20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할 때는 영상의 저작권이나 영상에 출연한 사람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1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계획하기 →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쓰기 → 촬영하기 → 편집하기 → 공유 및 평가하기'의 과정을 거친다.
- 22 학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임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목적의 영상 편지이므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23 <보기>는 학생 한 명이 스케치북을 넘기며 스케치북에 쓴 내용을 보여 주는 상황이므로, '미디어 슷' 촬영 방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상체를 중심으로 인물의 동작과 표정, 스케치북에 적힌 내용을 한번에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 \* 압축파일

- ① 스마트폰 ② 계획 ③ 효과음 ④ 카메라 ⑤ 청각  
⑥ 시각

169쪽

####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70~171쪽

- 01 ④ 02 ⑤ 03 ① 04 ③ 05 문 여닫는 소리  
06 ⑤ 07 ⑤ 08 ③ 09 ①

- 01 영상 매체 자료는 자막,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 및 각도 등과 같은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등과 같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만을 사용할 때보다 풍부한 내용을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2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 필요한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은 편집하기 단계에서 탐색한다.
- 03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주요 장면의 대사를 비롯한 자막, 촬영 방법, 효과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제시한다.

- 04 [A]의 내용을 스토리보드로 시각화하면 ㉠에는 석현이의 모습이 나오고, 엄마는 목소리로만 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면을 석현이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편집 방법을 스토리보드에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A]에서 석현이가 컵라면을 꺼내 와서 뚜껑을 뜯는다고 하였으므로 스토리보드에 컵라면 뚜껑 뜯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⑤ 싱크대에서 컵라면을 꺼내는 석현이의 모습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싱크대 하부장에서 컵라면을 꺼내는 석현이의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싱크대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④ [A]에서 석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컵라면을 꺼낸다고 하였으므로 스토리보드에 화면에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자막으로도 넣는다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05 **서술형**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에 제시된 내용으로 볼 때, 석현이는 엄마의 사진을 향해 말을 하고 집을 나서고 있으므로 문을 여닫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06 ㉠은 대상인 석현이를 가까이에서 촬영(클로즈업 슷: 대상을 가까이 촬영하여 표정이나 상태 등을 강조하는 촬영 방법)하여 석현이의 표정을 통해 석현이의 심리를 강조한다. ㉡은 대상인 석현이를 친구들의 시선에서 멀리서 촬영하여(롱 슷: 대상을 멀리 촬영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까지 보여 주는 촬영 방법) 석현이의 머뭇거리는 행동과 석현이와 친구들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07 석현이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하이 앵글'이 사용된 장면이다. '하이 앵글' 촬영 방법을 사용하면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장면에서는 이러한 촬영 방법을 활용하여 석현이의 행동을 제삼자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 오답풀이

① 대상을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화면상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촬영 방법은 '로 앵글'이 아니라 '아이 앵글'이다. 석현이의 안정적인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물의 표정을 중심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로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강조하거나 위엄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제시된 장면은 '하이 앵글'로 위에서 촬영한 장면이며, 석현이의 행동을 위엄 있게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하이 앵글'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석현이의 상체를 중심으로 동작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인물의 상체를 중심으로 촬영하는 기법은 '미디어 슷' 촬영이 적절하다.

④ '아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체육관 창고의 모습을 '하이 앵글'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창고가 아니라 석현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08 긴장감을 조성하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앞으로 갈등이 드러날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 또 천둥과 비 내리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쓸쓸하

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물의 우울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09 외부 잡음이 많이 녹음된 상황이므로 대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막을 삽입하여 시청자가 시각적으로 대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② 배경 음악의 음량을 높이면 외부 잡음은 물론이고 대사도 잘 들리지 않는다.

③ 장면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인물의 대사도 느리게 들려서 대사 전달력이 떨어진다.

④ 입 모양을 중심으로 화면을 편집해도 외부 잡음은 계속 들린다.

⑤ 인물이 말할 때 효과음을 넣으면 오히려 인물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72~174쪽

- 01 ④ 02 ③ 03 (다)에서는 수령들과 변 사또를, 시조에서는 두꺼비를 풍자하고 있다. 04 ② 05 ① 06 ③  
07 ② 08 ③ 09 석현이의 뒷모습을 촬영한다. 10 ③  
11 ⑤ 12 ②

- 01 이 글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으나 색채 대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어사또(몽룡)만 푸대접을 받고 있으나 이를 색채로 강조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반어와 풍자, 언어유희 등을 활용해서 당시 부패한 관리들의 모순을 비판하고, 열거, 과장, 대구 등과 같은 표현 방법으로 장면을 극대화하거나 해석적 표현으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02 (다)에 드러난, 암행어사 출두를 알고 도망치는 관리들의 모습은 부패한 관리들을 희화화하여 그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 03 **서술형** 이 글과 이 시조에서는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다)에서 암행어사 출두에 도망치는 수령들과 변 사또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비판하고, 이 시조에서는 파리를 괴롭히다 백송골을 피하기 위해 두엄에서 자빠지는 두꺼비를 희화화하여 비판하고 있다.

- 04 어사또는 시에서 대구와 은유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암행어사가 된 어사또가 등장하여 부패한 관리들에게 처벌을 내릴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③ 탐관오리의 학정과 백성들의 고난을 대구와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시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탐관오리의 부패와 모순을 드러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암행어사의 등장을 긴장감 있게 암시하고 있다.

- 05 ㉠은 형편없는 상을 받았지만 좋은 잔치에서 맛있는 술과 음식을 양껏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못마땅한 잔치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부분이다. ㉡은 정절을 지키는 자신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벼슬아치들을 비꼬기 위해 홀륭하다고 반대로 표현한 부분이다.

**오답 풀이** ㉢.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에 대한 설명이다.

㉣. 문장 또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는 도치법에 대한 설명이다.

- 06 이 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간직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의 대비나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07 ㉠과 ㉡은 역설 표현을 통해 길이 끝난 절망적인 공간에도 희망이 있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음을 표현하여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다.

- 08 S# 1-3에서 효과음으로 '컵라면 뚜껑을 뜯는 소리'를 넣는다고 나와 있는데, 혼자 밥을 먹는 석현이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활기찬 아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장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삽입한 효과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09 **서술형** S# 1-4에서 석현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촬영에 반영하려면 카메라를 석현이의 등 뒤에 배치하여 석현이의 뒷모습을 촬영해야 한다.

- 10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이나 모습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게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촬영 동의를 얻지 않은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11 <보기>는 채빈이와 친구들을 보는 석현이의 실망스러운 심리를 강조한다고 하였으므로 대상을 가까이서 촬영하여 대상의 감정이나 상황을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클로즈업 샷'이 촬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하이 앵글'은 대상을 위에서 촬영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촬영 방법으로 석현이의 표정을 세밀하게 촬영하기는 어렵다.

② '롱 샷'은 대상을 멀리서 촬영하는 촬영 방법으로 석현이를 가까이서 촬영하기는 어렵다.

③ '로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촬영하여 대상을 강조하거나 위엄 있게 표현하는 촬영 방법으로 석현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드러낼 수 있게 촬영하기는 어렵다.

④ '아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촬영 방법이다. 인물들의 표정을 촬영해야 심리를 강조할 수 있으므로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영상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는 최근 유행하는 화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기보다 예상 시청자의 흥미나 관심, 내용의 구성과 흐름, 촬영 및 편집 방법, 영상의 전체적인 완성도 등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 1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사회를 비추는 문학

### 간단+복습문제

03쪽

- 꼭지 시험** 01 반영 02 작품의 소재 03 ○ 04 × 05 ○  
 06 연탄 07 상심 청과물 08 이익 09 폐업 10 봄별  
**어휘 시험** 01 셀쫄하다 02 웅색하다 03 어름하다 04 물리다  
 05 일체 06 떼어 07 푸지게 08 ㉠ 09 ㉡  
 10 ㉢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4~05쪽

- 01 ③ 02 ④ 03 ④ 04 ① 05 ② 06 ②

01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 인물의 생각과 심리, 사건 전개 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나)에 '원미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가)와 (나)에 '쌀 상회'와 '연탄'이라는 소재가 제시되어 있어 198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와 (다)를 보면, 김포 슈퍼가 확장 개업을 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똑같이 쌀과 연탄을 들여놓고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동네 이웃인 두 슈퍼 주인이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부딪히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④ 원미동이라는 번두리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단돈 십원이라도 깎아 파는 두 슈퍼와,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는 동네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 있다.

02 김포 슈퍼, 형제 슈퍼는 질 좋은 물건이 아니라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같은 물건이어도 두 슈퍼의 가격을 비교한 후에 저렴한 곳으로 가서 물건을 구매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형제 슈퍼를 '과일이나 야채·생선을 비롯하여 생활필수품들을 파는 구멍가게에 불과한 규모'라고 하며 '느닷없이 쌀과 연탄을 벌여놓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김포 슈퍼를 의식하며 쌀과 연탄을 취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김포 쌀 상회의 눈에 띄이는 성공은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나)의 '바로 그 무렵, ~돌아가는 모습도 목격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의 '굳이 시장에 갈 일이 없었다.'에서 알 수 있다.

03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시장에 갈 필요 없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04 이 글에서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사투리가 반영된 고흥댁의 대사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라)에서 김 반장의 말과 행동을 통해 김 반장의 냉혹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고흥댁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동맹이 진작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도, 두 슈퍼의 경쟁이 끝나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어 아쉬워하는 미묘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새로 이사 온 상심 청과물 사내가 부식을 일체를 팔기 시작하면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를 위협하고 결국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다.

05 이 글은 1980년대 도시 번두리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먹고살기 위해 이웃끼리 경쟁하는 등 경제적으로 팍팍한 처지에 놓여 있던 소시민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06 ㉠은 새로 이사 와 동네 상황을 모르는 상심 청과물 사내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동일하게 판매하게 되면서 상심 청과물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던 때에 하필 상심 청과물이 개업하여 두 슈퍼의 취급 품목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서술자는 작품에 개입하여 이를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였다.

③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두 슈퍼가 동맹을 맺어 상심 청과물에 대항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담합하자 더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④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새로 생긴 상심 청과물을 견제하기 위해 휴전 협정을 맺었으므로 상심 청과물보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파는 것이다.

⑤ 상심 청과물 사내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동맹에, 김 반장은 김포 슈퍼와의 경쟁도 힘이 든대 상심 청과물까지 생계를 위협하는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황으로 결국 두 사람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 고득점 서술형문제

06쪽

**1단계** 01 내외간이 모두 억척스럽고 성실한 일꾼이었다.

**2단계** 02 형제 슈퍼에서만 취급하던 생활필수품을 김포 슈퍼에서 판매하자, 김포 슈퍼와 경쟁하기 위해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3단계** 03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서로 가격 인하 경쟁을 하자 동네 사람들은 두 슈퍼 중 더 저렴한 곳을 번갈아 다니며 '어부지리'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

#### 1단계

01 (가)의 '내외간이 모두 억척스럽고 성실한 일꾼이었다.'는 말은 서술자가 경호네 내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 2단계

- 02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 판매하기 시작한 생활필수품은 원래 형제 슈퍼에서 취급하던 품목이었다. 이에 김 반장은 김포 슈퍼와 경쟁을 하여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 슈퍼에서 취급하던 연탄과 쌀 등을 판매하는 경쟁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 3단계

- 03 (다)에서는 두 슈퍼가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자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는 두 슈퍼의 싸움 덕에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이므로, 한자 성어 '어부지리'를 통해 동네 사람들의 처지를 설명할 수 있다.

| 평가 목표 | 소설의 갈등 상황과 인물의 처지 파악하기                                                                                                                  |
|-------|-----------------------------------------------------------------------------------------------------------------------------------------|
| 채점 기준 | ✓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인물의 처지를 한자 성어에 빗대어 쓴 경우 [20점]<br>✓ 갈등 상황과 인물의 처지를 파악했으나 한자 성어를 쓰지 못한 경우 [15점]<br>✓ 갈등 상황이나 인물의 처지만 파악하여 쓴 경우 [10점] |

## 고득점 서술형문제

07쪽

### 1단계 04 가격 인하

### 2단계 05 싱싱 청과물에서 부식 판매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 3단계 06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에는 도시 변두리 소시민들의 삶이 열악하여, '김 반장'과 '싱싱 청과물 사내'는 먹고살아 보려고 갈등한 것이다.

## 1단계

- 04 (가)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동맹을 맺고 싱싱 청과물에 대응을 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두 슈퍼는 싱싱 청과물이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려 동네 사람들이 싱싱 청과물 대신 자신들의 가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다.

## 2단계

- 05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경쟁을 잠시 멈추고 동맹을 맺은 후 싱싱 청과물에 맞서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가격을 내리고, 그 외의 상품들은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싱싱 청과물이 완도 김을 입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 반장은 위도 김을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팔았고, 싱싱 청과물이 파는 과일에 대해서는 경호 아버지가 서울까지 가 과일을 들여와 김 반장과 함께 싸게 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략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싱싱 청과물을 방문하지 않자 싱싱 청과물 사내는 부식 판매를 포기하게 되었다.

## 3단계

- 06 (라)에서 시내 엄마와 지물포 여자 간의 대화로 보아 김 반장과 싱싱 청과물 사내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은 먹고살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 동네에 사는 이웃끼리 과도한 경쟁을 벌여야 할 만큼 1980년대에 생계를 잇기 위한 소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 목표 |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
|-------|-----------------------------------------------------------------------------------------------------------------------------------------------------------------|
| 채점 기준 | ✓ (라)에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결 지어 쓴 경우 [25점]<br>✓ 갈등의 근본적 원인과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연결 지어 쓰지 못한 경우 [20점]<br>✓ 갈등의 근본적 원인과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 중 일부분만 쓴 경우 [15점] |



## 공감하고 조정하는 대화

### 간단 복습문제

09쪽

꼭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집중

06 경험 07 원인 08 조정 09 객관적 10 구체적

여휘 시험 01 진정되다 02 유지하다 03 조정하다 04 ㉠

05 ㉡ 06 ㉢ 07 ㉣ 08 순조롭게 09 진솔하게

10 차분하게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0~11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5 ⑤ 06 ③ 07 ③

08 ⑤

- 01 민재는 친구들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반응한 것에 서운함을 느껴 대화방에서 말 없이 나감으로써 갈등 상황에 대처한 것이다. 이를 친구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민재가 단체 대화방을 나간 이후 건우가 민재에게 먼저 다가와 사과하고 있다.

② 건우와 하리가 사과하자 민재는 쌀쌀맞게 대하고 있다. 즉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마음이 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③, ⑤ 단체 대화방을 민재가 나가버리자 건우와 하리는 민재가 자신들의 태도에 화가 난 것일까 봐 걱정하며, 하리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괜찮다고 말할 걸 그랬나 봐.”라며 자신의 솔직했던 태도를 후회하고 있다.

- 02 민재는 자신의 앞머리와 관련된 질문에 보인 건우와 하리의 배려 없는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다. 그러므로 건우와 하리가 민재를 배려하지 않고 대답하여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 건우와 하리는 민재의 질문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해 민재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③ 민재가 실수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민재는 앞머리를 자른 자신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인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고(ㄷ), 단체 대화방을 나가버리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친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ㄱ).

**오답풀이** ㄴ, ㄹ. 친구들이 서운해하지 않을지 걱정하거나, 친구들이 한 태도나 행동을 똑같이 표현하는 민재의 모습은 제시된 만화에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이 만화에서는 친구들이 민재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반응하여 민재가 서운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대화가 공감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 05 하리는 민재의 대화 태도에 화를 내고, 민재를 비난하는 말을 하며 민재와의 소통을 거부한다. 이는 자신의 상한 기분만을 앞세워 민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 06 세이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요약하기 및 재구성하기, 경험 공유하기 등 소극적·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건우와 대화하고 있는데, 민재에게 건우의 감정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세이는 '정말?'과 같은 말을 하며 건우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말하였다.

② 세이는 건우가 민재에게 사과하려는 것과 민재의 입장을 걱정하고 있는 것, 쌀쌀맞게 대할까 봐 우려하는 것에 대해 요약하여 말하였다.

④ 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⑤ 세이는 건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동생과 닮았을 때의 경험을 건우에게 공유하였다.

- 07 건우는 자신의 말 때문에 민재가 서운했을 것이라며 민재의 감정에 공감하며(ㄱ), 민재가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서 자신도 당황스럽고 속상한 감정을 느꼈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였다(ㄴ). 마지막으로 민재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ㄷ).

**오답풀이** ㄹ. 건우는 갈등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상대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08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점

을 진솔하게 드러내야 한다. 자신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고득점 서술형문제

12쪽

1단계 01 ㉠ 감정, ㉡ 관점, ㉢ 신뢰감

2단계 02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상대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 상대방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03 ㉠에서는 갈등 상황을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에서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3단계 04 하리아, 네가 왜 화가 났는지 너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을 조정해 보는 게 어때?

### 1단계

- 01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대화를 말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과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2단계

- 02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는 등 몸짓으로 대화에 집중하기, 상대가 말을 이어가도록 격려하기, 상대의 말을 요약 및 재구성하기, 상대의 경험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감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 03 갈등을 조정할 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건우는 민재에게 어제 있었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솔직하게 말해 주면 좋겠다며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3단계

- 04 하리는 민재의 태도에 화가 나 상대를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려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상대와 소통해야 하므로 하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풀어나가도록 조언할 수 있다.

| 평가 목표 |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
|-------|-------------------------------------------------------------------------|
| 채점 기준 | ✓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 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쓴 경우 [25점]         |
|       | ✓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 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썼으나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못한 경우 [20점] |
|       | ✓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포함하여 썼으나 미흡한 경우 [15점]                                 |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3~16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① 05 ② 06 자신에게  
도 경쟁 대상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07 ③  
08 ⑤ 09 ④ 10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상  
대를 비난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여 갈등을 심화시  
키고 있다. 11 ④ 12 ⑤ 13 ④ 14 ⑤

- 01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들의 심리  
와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을 뿐, 장면 전  
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해 있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객  
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원미동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설정하였으나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할 뿐,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이 소설은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통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소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⑤ 이 소설은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교차  
하고 있지는 않다.

- 02 두 슈퍼의 갈등은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새롭게 개업하  
며 기존에 취급하던 쌀과 연탄뿐만 아니라 형제 슈퍼의 취급  
품목인 생활필수품까지 팔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쌀과 연탄만을 취급하던 경호 아버지가 김포  
슈퍼로 확장한 것을 두고 어지간히 돈을 모은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 가게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김포 쌀 상회는 원래 쌀과 연탄만을 취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라)를 통해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은 태연한 척하지만 김포 쌀 상회의  
확장에 공공 앞섰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형제 슈퍼는 김포 슈퍼가 개업하기 전 유일하게 생활필수  
품을 파는 가게였음을 알 수 있다.

- 03 ㉔에는 김포 슈퍼에 대응하기 위해 쌀과 연탄을 판매하기 시  
작한 김 반장이 오기를 부리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라)를  
통해 김 반장은 비어 있는 점포에 자신과 같은 구멍가게가 들  
어설까 봐 전전긍긍했을 뿐, 김포 슈퍼와 같이 확장을 하겠  
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이 글에는 동네에서 상권을 두고 이웃 간에 치열하게 다투며  
생존하려는 소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05 원미동 여자들은 두 슈퍼의 가격 경쟁이 끝나 더 이상 물건을  
싸게 사지 못하게 되자 내심 아쉬워하고, 고홍택은 새로운  
전파상의 등장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시내 엄마의 처지를 고  
려하지 않고 있다.

- 06 **서술형** (라)에서 시내 엄마는 고홍택을 통해 자신의 경쟁 대  
상이 될 전파상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  
에 ㉑과 같이 반응한 것이다.

- 07 민재는 앞머리에 대한 친구들의 평가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를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밝히지 못한 채 우회적으로 자리  
를 피하였다.

- 08 건우와 하리는 민재가 솔직한 의견을 구했다는 이유로, 상대  
가 상처받거나 서운해질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부정  
적인 평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건우와 하리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보다 오히려 솔직  
하게 말하여 민재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② 민재가 앞머리를 자른 것에 대한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웃  
으며 부정적 반응을 보며 민재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③ 건우와 하리가 민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  
는다.

④ 건우와 하리는 민재가 앞머리를 자른 것에 대해 물어보지, 해당 주  
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다.

- 09 [A]에서 건우와 하리는 민재가 상처받았음을 깨닫고 사과하  
기로 한다. 따라서 다음 날 민재를 만났을 때는 민재에게 잘  
못한 점을 솔직히 말하고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단  
고 약속하며 사과를 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망하지', '이상하긴 한데, '솔직히 별로이긴 한  
데'와 같이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어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

⑤ 민재에게 관심이 없는 태도로 비칠질 수 있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10 **서술형** 하리는 민재가 자신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  
다는 점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며 앞으로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 11 세아처럼 공감하는 말하기를 하면 상대방과 신뢰감을 형성하  
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갈등이  
일어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2 건우는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민재의 감정을 배려하며 자  
신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한편, 앞으로의 바람을 구  
체적으로 건네며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요구 사항만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건우는 "우리가 네 기분을 배려하며 말하지 않아  
서"라며 민재와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어 "네가 서운했을  
것 같아."라며 민재가 느꼈을 기분을 고려하여 말하였다.

② 건우는 민재가 대화방을 나간 상황을 언급하며 "나도 당황스럽고  
속상하더라고."라며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였다.

④ 건우는 앞으로 민재와 "언제든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사이이길 바라"며, "네 마음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주면 좋겠"다며 앞  
으로 어떤 관계가 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13 [A]에서는 "정말?"이라고 말하며 건우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했다.

- 14 민재는 친구들이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  
현한 것에 서운함을 느꼈으므로,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배려해서 말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 2 빛나는 우리 말글살이



### 한글의 원리와 가치

#### 간단+복습문제

18쪽

|         |         |         |         |       |        |
|---------|---------|---------|---------|-------|--------|
| 쪽지 시험   | 01 한자   | 02 상형   | 03 모아쓰기 | 04 애민 |        |
| 05 허끝   | 06 사람   | 07 ㄴ, ㄹ | 08 ㄷ, ㄱ | 09 ㅁ  | 10 ㅅ   |
| 어휘 시험   | 01 ㅅ    | 02 ㄴ    | 03 ㅁ    | 04 ㄱ  | 05 고유한 |
| 06 모색하기 | 07 독창적인 | 08 ㅅ    | 09 ㄱ    | 10 ㄴ  |        |

#### 예상 점수 소단원 평가

19~20쪽

|                             |      |      |      |      |      |
|-----------------------------|------|------|------|------|------|
| 01 ①                        | 02 ③ | 03 ③ | 04 ③ | 05 ③ | 06 ④ |
| 07 두 개의 자음을 세로로 이어 써서 만들었다. | 08 ③ | 09 ⑤ |      |      |      |
| 10 ④                        | 11 ① | 12 ④ | 13 ④ | 14 ④ | 15 ② |

- 01 <보기>의 '우리말과 한자'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자주정신을, '이 가없는 백성을 어찌하면 좋을까?'를 통해 애민 정신을 엿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ㄷ. 창조 정신은 발음 기관과 자연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ㄹ. 실용 정신은 자음과 모음 28자를 쉽게 익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02 모음은 상형과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고, 자음은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 03 'ㄱ'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오답풀이** ①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②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④ 'ㅅ'은 이[齒]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⑤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4 'ㅋ', 'ㆁ', 'ㅈ', 'ㅎ'은 모두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든 글자이다. 반면 'ㅊ'은 서로 같은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이다.

- 05 이체자는 가획자와 동일하게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소리가 세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오답풀이** ① 자음의 이체자에는 'ㅇ(옛이음)', ㄹ, ㄷ(반치음)이 있다. 'ㅎ'은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이다.

②, ④, ⑤ 이체자는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나 소리가 세지지 않고 옛이음, 반치음 등 일부 이체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06 잇소리의 기본자는 'ㅅ'으로,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여 가획자 'ㅆ'을, 획을 하나 더 더하여 가획자 'ㅉ'을 만들었다.

- 07 **서술형** 제시된 글자 'ㅁ, ㅂ, ㅍ, ㅅ'은 자음자 'ㅁ, ㅂ, ㅍ, ㅅ' 아래에 자음자 'ㅇ'을 세로로 이어 써서 만든 것이다.

- 08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ㅏ(아래아)',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ㅓ',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다.

**오답풀이** ① 'ㅏ, ㅑ, ㅓ'는 기본자인 'ㅏ'와 'ㅓ', 'ㅣ'를 처음으로 한 번씩 합쳐서 만든 초출자이다.

② 'ㅕ, ㅖ, ㅗ'는 초출자에 'ㅓ'를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재출자이다.

④ 'ㅑ, ㅓ'는 기본자를 합쳐서 만든 초출자이고, 'ㅕ'는 'ㅑ'에 'ㅓ'를 한 번 더 합쳐 만든 재출자이다.

⑤ 'ㅓ, ㅕ'는 기본자를 합쳐서 만든 초출자이고, 'ㅗ'는 'ㅓ'에 'ㅓ'를 한 번 더 합쳐 만든 재출자이다.

- 09 한글 모음자는 기본자(ㅏ, ㅓ, ㅣ)를 합쳐 글자(초출자)를 만들었고, 이에 'ㅓ'를 한 번 더 합쳐 글자(재출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을 다시 서로 다양하게 합하여 'ㅑ, ㅓ, ㅕ, ㅖ' 등 또 다른 여러 글자들을 만들었다.

**오답풀이** ① 초출자는 기본자인 'ㅏ', 'ㅓ'에 'ㅓ'를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② 모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이 아니라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③ 'ㅕ, ㅖ, ㅗ, ㅛ'는 초출자에 'ㅓ'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들었다.

④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는 자음에만 적용되었다.

- 10 모음 'ㅑ'와 'ㅣ'를 더하면 'ㅓ'가 만들어진다. 'ㅓ'는 'ㅑ'에 'ㅣ'를 더하여 만드는 글자이다.

- 11 모음의 재출자(ㅕ, ㅖ, ㅗ, ㅛ)는 처음 만든 글자인 초출자(ㅏ, ㅓ, ㅑ, ㅓ)에 'ㅓ'를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재출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자는 'ㅓ'이다.

- 12 모아쓰기는 사람이 실제 말을 할 때 글자를 음절 단위로 끊어 발음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 쓰는 방법이다.

- 13 한글은 28개의 글자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고(ㄴ),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쓰지 않고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 독창성이 있다(ㄴ). 또한, 체계적으로 만들어 과학성을 갖추고 있다(ㄷ).

**오답풀이** ㄹ. 읽거나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것은 맞으나 창제 초기에는 양반들이 한글 사용을 반대하였다.

- 14 문자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기계 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글이 기계 번역과 정보 처리에 유리한 이유는 하나의 글자가 대부분 하나의 소리와 대응하는 과학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 15 한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고, 한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켜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특집 서술형문제

21쪽

**1단계** 01 ㉠ 자주, ㉡ 애민, ㉢ 실용

02 상형의 원리

**2단계** 03 모아쓰기는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풀어쓰기보다 문장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단어나 문장이 지닌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04 하나의 모음자(글자)가 대부분 한 가지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3단계** 05 한글은 적은 수의 기본자를 조합하여 수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글자와 소리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중국어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한 디지털 작업 환경에서 효율적이다.

### 1단계

01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독창적인 글자를 만들고자 한 것은 자주정신(㉠), 글을 몰라 힘들어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긴 마음은 애민 정신(㉡), 백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글자를 편하게 쓰도록 배려한 것은 실용 정신(㉢)에 해당한다.

02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모두 무언가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상형의 원리'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창제했다. 자음의 기본자(ㄱ, ㄴ, ㄷ, ㄱ, ㅇ)는 소리를 낼 때 쓰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의 기본자(ㅏ, ㅑ, ㅓ)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2단계

03 한글을 옆으로 길게 늘어놓는 풀어쓰기와 달리,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뭉쳐 놓는 모아쓰기를 하면 단어의 형태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 때문에 문장을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며, 단어나 문장이 가진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정보를 전달할 때 매우 유리하다.

04 제시된 표를 살펴보면, 한글의 'ㅏ'는 어떤 단어에 쓰이든 항상 [아]라는 한 가지 소리만으로 발음되지만, 영어의 'a'는 주변 글자나 단어에 따라 [아], [어], [애], [에이] 등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 표를 통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대부분 하나의 소리만으로 발음되어 음성 인식 기술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 3단계

05 <보기>에서 중국어 자막 작업보다 한글 자막 작업의 속도가 훨씬 빨랐던 이유는, 한글이 한자의 로마자 음성 입력처럼 입력 후 다른 문자로 바꾸는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즉시 글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한글이 적은 수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원하는 글자를 바로 완성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인 디지털 정보화 환경에서 한글이 매우 효율적이고 우수한 문자임을 보여 준다.

| 평가 목표 | 한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지닌 가치 탐색하기                                                                                                                                        |
|-------|-----------------------------------------------------------------------------------------------------------------------------------------------------------------------------|
| 채점 기준 | ✓ <보기>를 근거로 한글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글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쓴 경우 [20점]<br>✓ <보기>를 근거로 한글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나, 한글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5점]<br>✓ <보기>에서 한글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글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5점] |



## 음운의 체계

### 간단+복습문제

23쪽

**꼭지 시험** 01 음운 02 자음 03 단모음 04 ㉠ 05 ㉡  
06 ㉢ 07 ㉣ 08 세기 09 원순 10 최고점, 전설  
**어휘 시험** 01 단위 02 구조 03 체계 04 결합 05 허용  
06 분류 07 마찰 08 발음 09 방해 10 제외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4~25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 뽕글뽕글, ㉡ 핑글핑글 08 ⑤ 09 ⑤ 10 ③  
11 ② 12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과 ㉡을 분류한 것으로, ㉠은 전설 모음, ㉡은 후설 모음이다. 13 ②

01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모음이고,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다.

02 체조는 'ㄷ, ㅌ, ㅊ, ㅌ'로, 자음 'ㄷ, ㅌ', 모음 'ㅌ, ㅌ'의 총 4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율리는 'ㅇ, ㅍ, ㅌ, ㄹ, ㅌ'으로 음운의 개수는 5개이다.  
② 독서는 'ㄷ, ㅌ, ㅌ, ㅌ, ㅌ'으로 음운의 개수는 5개이다.  
③ 미술은 'ㅌ, ㅌ, ㅌ, ㅌ, ㄹ'으로 음운의 개수는 5개이다.  
④ 수학은 'ㅌ, ㅌ, ㅎ, ㅌ, ㅌ'으로 음운의 개수는 5개이다.

03 'ㄷ, ㅌ, ㅌ'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그 막았던 공기를 한 번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로, 파열음이다. 'ㄷ'은 예사소리, 'ㅌ'은 된소리, 'ㅌ'은 거센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목청소리인 'ㅎ'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보기>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소리인 입몸소리이다.  
② 울림소리 중 비음인 'ㄴ, ㄹ, ㅇ'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보기>는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다.  
③ 여린입천장소리인 'ㄱ, ㅋ, ㆁ'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앞부분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설명이며, 뒷부분은 파찰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글자는 ‘ㅈ, ㅉ, ㅊ’이다. <보기>는 파열음에 해당한다.

- 04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이자, 예사소리인 ‘ㅂ’보다 성대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숨을 거세게 터뜨려 소리를 내는 거센소리인 ‘ㅍ’이다.

**오답 풀이** ① ‘ㅍ’은 안울림소리이나, 센입천장소리이고 된소리이다.  
③ ‘ㅁ’은 입술소리이나, 울림소리이고 예사소리이다.  
④ ‘ㅊ’은 안울림소리이면서 거센소리이나, 센입천장소리이다.  
⑤ ‘ㅎ’은 안울림소리이나 목청소리이다.

- 05 ‘ㄴ’은 발음할 때 코안이 울리는 울림소리로 비음이다.

**오답 풀이** ① ‘ㄴ’은 코안이 울리는 비음이다. 입안이 울리는 유음은 ‘ㄹ’이다.  
② ‘ㄹ’은 입안이 울리는 유음이다. 코안이 울리는 비음은 ‘ㄴ, ㄹ, ㅇ’이다.  
④ ‘ㅇ’은 비음이므로, 발음할 때 코안이 울리는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⑤ ‘ㅂ’은 안울림소리이므로, 소리가 딱딱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나는 것은 울림소리이다.

- 06 <보기>는 마찰음에 대한 설명이다. 마찰음은 ‘ㅅ, ㅆ, ㅎ’이므로, 마찰음이 사용된 단어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의 ‘ㄱ’, ②의 ‘ㄷ, ㅂ’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한다.  
③ ‘ㅈ’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파찰음에 해당한다.  
⑤ ‘ㅇ’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에 해당한다.

- 07 **서술형** 제시된 ‘빙글빙글’을 기준으로 ㉠에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 ㉡에는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가 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ㅂ’의 된소리는 ‘ㅃ’이고, 거센소리는 ‘ㅍ’이므로, ㉠에는 ‘뽕글뽕글’, ㉡에는 ‘핑글핑글’이 들어가야 한다.

- 08 단모음은 소리 낼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은 입술 모양으로 구분한다.

- 09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ㅟ, ㅠ, ㅡ, ㅢ, ㅣ’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ㅏ, ㅑ, ㅓ, ㅕ, ㅗ, ㅛ’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과 혀가 고정되는 단모음이다.  
② ‘ㅟ, ㅠ’는 이중 모음이지만, ‘ㅏ, ㅑ, ㅓ’는 단모음이다.  
③ ‘ㅢ, ㅣ’는 이중 모음이지만, ‘ㅗ, ㅛ, ㅕ’는 단모음이다.  
④ ‘ㅡ’는 이중 모음이지만, ‘ㅟ, ㅠ, ㅡ, ㅢ’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는 단모음이다.

- 10 제시된 ‘ㄴ’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단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발음 기관의 방해로 나오며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다.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흘러나오는 소리이다.

② ‘ㄴ’은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이다. 혀의 높이가 중간인 것은 중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④ ‘ㄴ’은 입술을 둥글게 모아 소리 내는 원순 모음이다.

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할 때 ‘ㄴ’은 입술소리에 속한다.

- 11 ‘ㅣ’는 고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다. 반면 ‘ㅏ’는 저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으므로, ㉠에는 ‘ㅏ’, ㉡에는 ‘낮아지게’가 들어가야 한다.

- 12 **서술형** <보기>의 ㉠과 ㉡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중간점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전설 모음과, 뒤에 있는 후설 모음으로 구분되어 있다.

- 13 정확한 발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올바른 표기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국어의 복잡한 문법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익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고득점 서술형문제

26쪽

1단계 01 음운, 길이

02 ㉠ 비음(콧소리), ㉡ 유음(흐름소리), ㉢ 마찰음

2단계 03 ‘ㄱ,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고, ‘ㄴ, ㄷ, ㄹ, ㅅ’은 잇몸소리, ‘ㅁ, ㅂ’은 입술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 ‘ㅎ’은 목청소리이다.

04 단모음은 ‘ㅏ, ㅑ, ㅓ’처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지만, 이중 모음은 ‘ㅟ, ㅠ, ㅡ’처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3단계 05 ‘사다리’에 쓰인 자음 중 울림소리는 ‘ㄹ’이고, 안울림소리는 ‘ㅅ, ㄷ’이다. 이 중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ㅅ’으로, ‘ㅅ’은 입안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며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06 ‘ㄴ’은 원순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이고, ‘ㅏ’는 평순 모음, 후설 모음, 저모음이다. 따라서 ‘ㄴ’에서 ‘ㅏ’로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은 둥글게 오므린 모양에서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양으로 변하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입천장 뒤쪽으로 변화 없이 유지되며, 혀의 높이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변한다.

1단계

- 0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며,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말소리의 길이도 자음, 모음과 함께 음운에 해당한다.

- 02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소리로, 여기에는 코안이 울리는 ‘비음(콧소리)’과 입안이 울리는 ‘유음(흐름소리)’이 있다. 안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 소리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있다.

## 2단계

03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어떤 발음 기관에서 방해를 받는지에 따라 입술소리(ㅍ, ㅂ), 잇몸소리(ㄴ, ㄷ, ㄹ, ㅅ), 천입천장소리(ㅈ), 여린입천장소리(ㅊ, ㅇ), 목청소리(ㅎ)로 나눌 수 있다.

04 모음은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변화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발음하는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ㅏ, ㅑ, ㅓ, ㅕ 등)이며, 발음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ㅗ, ㅛ, ㅜ, ㅠ 등)이다.

## 3단계

05 ‘사다리’에 쓰인 자음 중 발음 기관을 올려 소리를 내는 올림소리는 ‘ㄷ’이고,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 안올림소리는 ‘ㅅ, ㅊ’이다. 이 중 ‘ㅅ’은 입안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며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음에 해당하고, ‘ㅊ’은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 ‘ㄷ’은 공기를 흘러보내는 유음에 해당한다.

| 평가 목표 |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 이해하기                                |
|-------|-----------------------------------------------------|
| 채점 기준 | ✓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를 분류하고, 마찰음을 찾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쓴 경우 [20점]  |
|       | ✓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를 분류하고, 마찰음을 찾았으나 그 근거가 부족한 경우 [15점]   |
|       | ✓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를 분류하고, 마찰음을 찾았으나 그 근거를 쓰지 못한 경우 [10점] |

06 ‘ㄱ’은 원순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이고, ‘ㅏ’는 평순 모음, 후설 모음, 저모음이다. 따라서 ‘ㄱ’에서 ‘ㅏ’로 연달아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후설 모음으로 변함없이 유지된다. 반면 입술 모양은 둥근 모양(원순)에서 둥글게 오므리지 않은 모양(평순)으로 바뀌며, 혀의 높이는 높은 위치(고모음)에서 낮은 위치(저모음)로 낮아지게 된다.

| 평가 목표 | 단모음의 분류 기준 이해하기                                                     |
|-------|---------------------------------------------------------------------|
| 채점 기준 | ✓ ‘ㄱ’과 ‘ㅏ’의 모음 종류를 모두 쓰고, 발음 과정에서의 변화 양상을 세 가지 기준으로 정확하게 쓴 경우 [20점] |
|       | ✓ 모음 종류는 모두 맞게 썼으나, 발음 과정에서의 변화 양상 중 일부만 쓴 경우 [15점]                 |
|       | ✓ 모음 종류와 발음 과정에서 변화 양상 중 일부만 쓴 경우 [10점]                             |

## 예상 작중 대단원 평가

27~30쪽

- 01 ① 02 ⑤ 03 ③ 04 ② 05 ③ 06 ③  
 07 ‘ㄴ’과 ‘ㅌ’은 모두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 혓소리  
 에 해당하지만, ‘ㄴ’에 획을 더해 만든 ‘ㄷ’의 소리가 더 세다.  
 08 ⑤ 09 ④ 10 ㉠ ㉡, ㉢ ㉣, ㉤ ㉥ ㉦ 11 ④  
 12 ⑤ 13 과학성 14 ① 15 ④ 16 ⑤  
 17 ② 18 ① 19 ④ 20 ③ 21 ③ 22 ①  
 23 ③ 24 ① 25 ① 26 ② 27 ②

01 백성들이 날마다 편하게 쓰도록 한 것은 실용 정신, 글을 몰라 고통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긴 것은 애민 정신,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독창적인 글자를 만든 것은 자주정신에 해당하므로 ㉠에는 ‘실용’, ㉡에는 ‘애민’, ㉢에는 ‘자주’가 들어가야 한다.

02 가획의 원리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가 더 세지는 글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획이 더해지더라도 발음 기관은 기본자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03 자음의 기본자 중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ㅁ’(㉠)이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ㅇ’(㉡)이다.

**오답 풀이** ㉢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04 ‘ㅍ’은 기본자 ‘ㅍ’에 획을 더한 글자 ‘ㅑ’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ㄴ’에서 가획한 글자는 ‘ㄷ, ㅌ’이다.

05 <보기>의 자음들은 모두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이체자이다. 일반적인 가획자(ㅋ, ㅌ, ㅍ, ㅊ 등)는 획이 더해질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지만, 이체자들은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없이 모양만 획을 더해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상형의 원리는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ㅁ, ㅅ, ㅇ’을 만들 때 적용되었다.

②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 없다.

④ 자음의 기본자끼리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ㄲ, ㄸ, ㅃ, ㅆ, ㅈ, ㅊ’ 등이다.

⑤ ‘ㄹ’은 오늘날에도 쓰이지만, ‘ㅇ(옛이음)’과 ‘ㅅ(반치음)’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사라진 글자이다.

06 같은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은 ‘ㄲ, ㄸ’이고, 다른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은 ‘ㅃ, ㅆ’, 두 개의 자음자를 세로로 이어 쓴 것은 ‘ㅁ, ㅅ’이다.

07 **서술형** ‘ㄴ’과 ‘ㅌ’은 모두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소리가 나는 혓소리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기본자인 ‘ㄴ’에 비해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ㅌ’이 소리의 세기가 더 세다는 차이점이 있다.

08 <보기>는 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기본자 ‘ㅣ’를 설명한 것으로,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오답 풀이** ① ‘ㅡ’는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②, ③, ④ ‘ㄷ’는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로,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09 재출자인 ‘ㅛ’는 이미 만들어진 초출자 ‘ㅓ’에 기본자인 ‘ㅣ’를 한 번 더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10 **서술형** 한글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모음자들을 서로 합하여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었다. ‘ㅓ’와 ‘ㅏ’가 합쳐진 ㉠에는 ‘ㅓ’가, ‘ㅓ’와 합쳐져 ‘ㅛ’를 만드는 ㉡에는 ‘ㅏ’가, ‘ㅏ’에 ‘ㅣ’가 합쳐진 ㉢에는 ‘ㅓ’가 들어가야 한다.

- 11 모음의 기본자(·, ㅡ, ㅣ)를 합하여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한 번 합하여 초출자(ㅏ, ㅑ, ㅓ, ㅕ)를 만들고, 이 초출자에 기본자 ‘·’를 한 번 더 합하여 재출자(ㅗ, ㅛ, ㅜ, ㅠ)를 만든다. 따라서 빈칸에는 ‘합성’과 ‘·’가 들어가야 한다.
- 12 사람의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하나의 덩어리인 음절 단위로 소리가 난다.
- 13 **서술형** 한글은 발음 기관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획을 더하거나 글자를 합하여 모든 글자를 체계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뛰어난 과학성을 지닌 문자이다.
- 14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나 기술을 도입할 때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순화하여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5 ‘긴장’에 쓰인 자음 중 ‘ㄴ, ㅇ’은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ㄱ, ㄴ, ㄷ, ㅌ, ㄹ’은 음운 6개로 이루어져 있다.  
② 자음은 ‘ㄱ, ㄴ, ㄷ, ㄹ’ 4개, 모음은 ‘ㅏ, ㅑ’ 2개가 쓰였다.  
③ ‘ㅣ’는 모음이므로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⑤ ‘ㄱ, ㅌ’은 자음이므로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소리가 나온다.
- 16 ‘말’과 ‘발’은 초성 ‘ㅁ’과 ‘ㅂ’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며(㉠), ‘말’과 ‘물’은 중성 ‘ㅏ’와 ‘ㅜ’의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또 ‘말’과 ‘발’은 ‘ㅁ’이 ‘ㅂ’으로, ‘말’과 ‘물’은 ‘ㅏ’가 ‘ㅜ’로 바뀌어서 음운 하나의 차이로 인해 다른 뜻을 지닌다(㉢).  
**오답 풀이** ㉠ ‘말’과 ‘물’은 초성인 ‘ㅁ’과 ‘ㅂ’, 종성인 ‘ㅏ’와 ‘ㅜ’의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 17 ‘ㄱ, ㅋ, ㅇ’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로 발음 기관이 같다(㉣). ‘ㅈ, ㅊ, 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파찰음으로 소리 내는 방법이 같다(㉤).
- 18 ‘말랑말랑’에는 ‘ㅁ(비음)’, ‘ㄹ(유음)’, ‘ㅇ(비음)’의 울림소리만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② ‘뚝뚝뚝’에는 된소리 ‘ㅌ’이 사용되었고, ‘말랑말랑’에는 된소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뚝뚝뚝’에는 안울림소리만 사용되었고 ‘말랑말랑’에는 울림소리만 사용되었으므로, ㉠(뚝뚝뚝)과 ㉡(말랑말랑)에 비해 딱딱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  
④ ‘뚝뚝뚝’과 ‘칙칙폭폭’에는 모두 안울림소리(파열음, 파찰음)만 사용되었다.  
⑤ ‘칙칙폭폭’에는 거센소리 ‘ㄷ, ㅌ’과 예사소리 ‘ㄱ’이 사용되었다.
- 19 잇몸소리는 ‘ㄴ, ㄷ, ㅌ, ㅊ, ㅅ, ㅆ, ㄹ’,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ㅋ, ㅍ, ㅇ’이다. ‘수국’에는 잇몸소리와 여린입천장소리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① ‘공책’에는 여린입천장소리 ‘ㄱ, ㅇ’, 센입천장소리 ‘ㅌ’이 쓰였다.  
② ‘과제’에는 여린입천장소리 ‘ㄱ’, 센입천장소리 ‘ㅌ’이 쓰였다.

- ③ ‘나무’에는 잇몸소리 ‘ㄴ’, 입술소리 ‘ㅁ’이 쓰였다.  
⑤ ‘학교’에는 목청소리 ‘ㅎ’, 여린입천장소리 ‘ㄱ’이 쓰였다.
- 20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로 ‘ㅁ, ㅂ, ㅃ, ㅍ’이 있고,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는 ‘파열음’으로 ‘ㄱ, ㅋ, ㅋ, ㄷ, ㅌ, ㅊ, ㅌ, ㅊ, ㅌ’이 있다. 제시된 자음 중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ㅂ’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자 파열음, ‘ㄷ’은 잇몸소리이자 파열음,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자 비음, ‘ㅎ’은 목청소리이자 마찰음이다.
- 21 제시된 자음들은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로 분류한 것으로, 분류 기준은 ‘소리 내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④, ⑤ 입술 모양과 혀의 최고점 위치는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 원순 모음’으로,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2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중 모음은 ‘ㅗ, ㅛ, ㅜ, ㅠ,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따라서 두 모음이 모두 쓰인 단어는 ‘결말, 달걀, 돼지, 의자’이다.
- 23 ‘ㅣ’와 ‘ㅡ’는 모두 평순 모음이며 고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높이에 따른 모음의 분류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 반면 ‘ㅣ’는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ㅡ’는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다르다.
- 24 <보기>는 평순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ㅏ, ㅑ, ㅓ, ㅕ, ㅡ, ㅣ’가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음들로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ㅏ, ㅑ’이다.  
**오답 풀이** ② ‘ㅏ, ㅑ’는 평순 모음, ‘ㅓ, ㅕ’는 원순 모음이다.  
③ ‘ㅕ, ㅓ, ㅓ, ㅓ’는 모두 원순 모음이다.  
④ ‘ㅏ, ㅑ’는 평순 모음, ‘ㅓ, ㅕ, ㅓ’는 원순 모음이다.  
⑤ ‘ㅏ, ㅑ’는 평순 모음, ‘ㅓ, ㅕ, ㅓ’는 원순 모음이다.
- 25 ‘ㅓ, ㅕ’는 후설 모음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뒤쪽에 위치한다.
- 26 ‘ㅑ’는 중모음으로, 발음할 때 고모음보다는 입이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이다. ‘ㅓ’는 저모음으로, 발음할 때 중모음보다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이다. 따라서 ‘ㅑ’를 발음할 때 ‘ㅓ’보다 혀의 높이를 더 높여서 발음해야 한다.
- 27 전설 모음은 ‘ㅏ, ㅑ, ㅓ, ㅕ, ㅣ’이고 원순 모음은 ‘ㅓ, ㅕ, ㅓ, ㅕ’이며 고모음은 ‘ㅣ, ㅕ, ㅡ, ㅓ’이므로 ㉠에 해당하는 모음은 ‘ㅕ’이다. 또 후설 모음은 ‘ㅏ, ㅑ, ㅓ, ㅕ, ㅡ’이고 평순 모음은 ‘ㅏ, ㅑ, ㅓ, ㅕ, ㅡ, ㅣ’이며 중모음은 ‘ㅑ, ㅓ, ㅓ, ㅓ’이므로 ㉡에 해당하는 모음은 ‘ㅑ’이다.

3

세상을 담아내는 창



복합양식의 글과 자료 읽기

간단+복습문제

32쪽

- 꼭지 시험** 01 복합양식 02 신뢰성 03 높다 04 낮다  
05 ○ 06 × 07 × 08 데이터 09 창조 10 경쟁력  
**어휘 시험** 01 단순하다 02 판독하다 03 불거지다  
04 조정하다 05 ㉠ 06 ㉡ 07 ㉢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3~34쪽

-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③ 06 ②

- 01 (다)와 (라)에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자료나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에서 분석한 데이터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인공 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의 활용과 (나)에서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인공 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부정적 관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라)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공학계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 (라)에서는 인공 지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경제 포럼 자료, 세계적인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02 (라)에서는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과학 분야의 일자리가 1년 사이에 약 60퍼센트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공 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컴퓨터가 단순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했을 뿐, 단순 업무 자체가 더 가치 있게 변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다)에서 업무 자동화 비중이 늘어난다고 제시되어 있을 뿐, 인간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극단적인 전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일자리가 60퍼센트 증가했다는 통계는 관련 분야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데이터이므로, 노동력 착취나 불평등 심화와는 거리가 멀다.

⑤ <보기>는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내용이므로, 기존 일자리의 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3 (다)에서는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2022년 34퍼센트에서 2027년 42퍼센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치가 변하는 추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보완할 때는 숫자의 변화가 선으로 연결되는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핵심 내용은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업무 자동화 비중의 수치 변화'이므로 지도는 적절하지 않다.

② 줄글로 된 텍스트를 또 다른 텍스트로 나열하는 것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아니다.

③ 형광펜 표시는 텍스트의 단순 강조일 뿐, 통계 자료의 변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게 도와주는 시각 자료와는 거리가 멀다.

⑤ 다른 신문 기사의 링크를 추가하는 것은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일 뿐, 본문에 제시된 수치를 시각화하여 돕는 방법이 아니다.

- 04 이 글은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설명하는 글로, 이러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정보의 정확성,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단순히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에 맞추어 내용을 전개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비판적 읽기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05 <보기>에서 A는 프로젝트 방향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의견이 대립한 팀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청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낸다. 이는 (라)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언급한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실천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창조하는 능력'은 '미래 사회에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에서 '판독하는 능력'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으로 인공 지능의 주된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기>에서 A가 팀원들의 감정을 살핀 것은 공감과 소통의 영역으로, 대용량 데이터나 검사 결과를 분별하는 '판독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④ (나)에서 '분석하는 능력'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인공 지능의 주된 기능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보기>에서 A의 핵심 행동은 효율성 분석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합의 도출이다.

⑤ (라)에서의 '지시 및 관리'하는 능력은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팀의 업무 진행 방향을 정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 06 [A]는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가로 막대그래프로 표현하여 복잡한 통계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있다(ㄱ). 또한 지수의 높고 낮음을 위아래 화살표와 색상으로 구분하여 직업별로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의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ㄴ).

**오답 풀이** ㄴ. [A]는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비교하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다.

ㄷ. 가수, 성직자 등은 노출 지수가 1~2퍼센트로 매우 낮으므로 인공 지능이 이 분야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1단계** 01 창조하는 능력, 돌보는 능력,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02** ㉠ 출처, ㉡ 신뢰성

**2단계** 03 (가)의 관점은 과거 사무직 업무가 대체된 사례와 세계 경제 포럼의 업무 자동화 비중이 증가되는 수치를 근거로 들어 인공 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나)의 관점은 인사 관리 서비스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데이터 과학 등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단계** 04 인공 지능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기대를 하기보다, 인간만이 가진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르는 동시에 인공 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단계**

**01** (다)에서는 인공 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창조하는 능력, 돌보는 능력,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02** 글에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A]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직관적으로 잘 전달하는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이지만 구체적인 출처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단계**

**03** (가)와 (나)는 인공 지능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가)는 과거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단순 업무 대체 사례와 세계 경제 포럼의 업무 자동화 비중 수치를 근거로 들어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 담긴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나)는 실제 기업들의 고용 데이터 증가 통계를 근거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섞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

**04** (라)에서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방향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인공 지능 시대에 무조건적인 걱정이나 기대를 하기보다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갖추고, 디지털 기술을 주도적으로 다루어 미래 사회를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라 볼 수 있다.

| 평가 목표 |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 이해하기                                                                |
|-------|----------------------------------------------------------------------------------|
| 채점 기준 | ✓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글을 쓴 목적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       | ✓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인공 지능의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포함하여 썼으나, 제시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5점] |
|       | ✓ (라)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나, 미흡하게 쓴 경우 [10점]                                               |
|       |                                                                                  |



간단 복습문제

37쪽

**꼭지 시험** 01 그림 02 그래프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조직 02 자료 03 유형 04 표현 05 저작권 06 매체 07 선별 08 과장 09 왜곡 10 보완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8~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01** 복합양식 자료는 문자,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이 결합되어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를 말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복합양식 자료는 하나의 기호를 다른 기호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한 가지 기호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소리, 그림 등 다양한 기호의 자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④, ⑤ 복합양식 자료는 독자의 선호도, 자료의 분량 등과는 관련이 없다.

**02** 복합양식 자료의 유형은 그림, 사진, 표, 그래프, 소리, 음악, 동영상 등으로 다양한데 그중 그래프는 수량을 비교하거나 수량이 변화하는 것을 보기 쉽게 전달하는 자료이다.

**03**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복합양식 자료에서 활용할 자료를 선별한다.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에서 수행한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글의 종류와 유형, 글의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등을 정한다.

③ ㉢에서는 개요를 작성하고,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복합양식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운다.

④ ㉣에서는 복합양식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글의 유형에 맞게 표현한다.

⑤ ㉤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공유 및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04** 복합양식 자료를 선별할 때는 최신의 자료인지,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하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자료에 과장·축소·왜곡된 내용은 없는지,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형의 자료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때 복합양식 자료가 반드시 최근 유행하는 화제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정리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은 제외하고(ㄴ),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한다(ㄷ). 또 글의 목적과 주제에 알맞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복합양식 자료는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글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ㄴ. 어떤 목적에서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자료의 저작권을 확인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06 ‘학생’은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①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②는 ‘다양한 달리기 프로그램을 소개’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③은 ‘달리기를 하는 방법’, ④는 ‘달리기를 하면 좋은 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⑤는 달리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는 자료인데, 제시된 ‘학생’의 말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 07 이 글은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쓴 글로, 이와 같은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는 목적이 같아도 글의 유형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효과적인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유형과 상관 없이 자료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에 근거한다.  
②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는 글의 목적이나 글의 유형이 아니라 맞춤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신력이 있고 출처가 명확하며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꼽을 수 있다.  
④ 글의 유형과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은 관련이 없다.  
⑤ 복합양식 자료는 글의 유형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뿐, 글의 유형이나 목적이 일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08 이 글의 ‘처음’에서 두드림의 공연이 금방 매진되어 공연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쓴다는 까닭을 밝히고 있으므로 ㉠은 ‘두드림의 공연을 소개하는 까닭’이 적절하다. 또 ‘중간’에서 공연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공연의 일시나 공연장 관객석 배치도 등 공연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은 ‘공연 일시 및 공연장 소개’가 적절하다.

- 09 이 글은 ‘중간’에서 공연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연장 인근 지도를 추가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목적은 공연을 관람하고 싶었으나 관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연 관련 정보, 공연 관람 후기 등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관적인 감상 후기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중간’에 제시된 좌석 배치도는 공연장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의 예상 독자는 두드림의 공연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팬들이므로, 다른 가수의 공연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고득점 서술형문제

40쪽

### 1단계 01 동영상

02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2단계 03 첫째,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하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핀다. 셋째, 자료에 과장, 축소, 왜곡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04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05 공연장 좌석 배치도를 제시하여 좌석 배치, 무대 형태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3단계 06 ‘처음’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해양 생물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보여 주어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있다. ‘중간’에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사례를 그래프로 제시해 관련 내용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한 눈에 보여 줄 수 있다.

### 1단계

- 01 문자, 그림, 표, 소리 등의 자료와 달리, 대상의 움직임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 주어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는 ‘동영상’이다.

0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해 글을 쓸 때는 글의 종류와 목적, 주제 등을 정해 계획을 세우고(계획하기)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 및 선별한 후(내용 생성하기) 개요 작성과 자료 활용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내용 조직하기) 글을 쓰고(표현하기), 쓴 글을 공유 및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고쳐쓰기).

### 2단계

03 수집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합성(목적과 주제), 신뢰성 및 윤리성(출처, 저작권 왜곡 여부)이라는 기준을 거쳐 선별해야 타당성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

04 타인의 창작물인 사진과 음악을 가져다 쓸 때는 원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하고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데, 현우는 이를 위반하였다.

05 공연장 좌석 배치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공연장에 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독자가 무대의 형태를 파악하기 쉽다.

### 3단계

06 ‘처음’에서는 해양 생물의 삶을 소개한다고 했으므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독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에서는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사례 및 기대 효과를 제시했으므로 수치나 통계를 알기 쉽게 보여 주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논리적인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 평가 목표 | 복합양식 자료의 활용 방법과 효과 파악하기                                                                                                                                                                                                                                                      |
|-------|------------------------------------------------------------------------------------------------------------------------------------------------------------------------------------------------------------------------------------------------------------------------------|
| 채점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복합양식 자료 두 가지를 선택하고 처음과 중간에 어울리는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를 쓴 경우 [20점]</li> <li>✓ 서로 다른 복합양식 자료 중 한 가지에서만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 모두 설명이 적절한 경우 [15점]</li> <li>✓ 서로 다른 복합양식 자료를 두 가지를 선택하였으나 처음과 중간에 어울리는 활용 방안이나 기대 효과 모두 설명이 미흡한 경우 [10점]</li> </ul> |

####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41~44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③ 05 ② 06 ⑤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④ 12 ⑤  
13 ②

- 01 (나)에서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인공 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그림을 생성해 내는 세부적인 기술적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은 글의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므로 추가할 복합양식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의 실제 뉴스 진행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주면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②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의 실제 사진을 보여 주면 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2022년과 2027년의 자동화 업무 비중 수치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면 수치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⑤ 2022년과 2023년 사이의 일자리 수 증가 양상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여 주기에 적절하다.

- 02 (다)의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2022년 34퍼센트에서 2027년에는 42퍼센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업무 자동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보기>에 따르면 글의 내용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만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글은 (다)에서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다루고, 바로 이어지는 (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함으로써 인공 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를 활용한 도정 정책 뉴스와 공신력 있는 연구소의 데이터를 활용했을 뿐,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 ②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 우려 뒤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③ 이 글은 객관적인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과거 컴퓨터 도입 사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활용되었을 뿐, 현재의 기술 발전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다.

- 04 (가)에서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을수록 인공 지능이 업무를 대신하기 쉬워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을수록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5 (다)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은 인공 지능이 대신하기 힘든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에서는 인공 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일수록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다고 했으므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업무는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판매 분석은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업무에 해당하여 인공 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③ (나)에서 검사 결과 판독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업무에 가까워 인공 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했으므로, 인간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자동화 업무는 인공 지능이 주로 대체하는 영역이며,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⑤ 데이터 분석은 인공 지능이 주로 대체하는 업무라고 했으므로,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는 구하는 데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 볼 수 있다.

- 06 ㉠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강조하는 전문가 인터뷰 동영상이다. 따라서 이를 인공 지능이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은 자료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수치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백분위 자료이므로, 글에 제시된 통계 수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돕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

② ㉠은 의사, 건축가, 수의사 등 여러 직업의 노출 지수를 보여 주므로, 직업 간의 지수를 쉽게 비교하게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

③ ㉠은 전문가가 직접 등장하여 의견을 말하는 영상이므로, 글에 대한 독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

④ ㉠의 영상 화면에 '창조력, 돌보는 능력, 조정하는 능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미래 사회에 인간 고유의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

- 07 <보기>는 바른 달리기 자세를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달리기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중간 2'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보기>는 달리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여 달리기를 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그래프이다. 제시된 개요의 '중간 3'에서 달리기를 한 뒤의 변화와 효과를 소개하고자 하였으므로, 달리기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독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09 개요의 '끝'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글의 '처음'에서 달리기를 소개하고 '중간'에서 달리기를 추천하는 이유, 달리기의 장점과 효과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끝'에는 달리기를 시작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10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할 때는 자료가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지, 출처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내용이 신뢰할 만한지, 과장·축소·왜곡된 내용은 없는지,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형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지양해야 한다.

11 (다)는 공연장의 규모와 좌석을 소개하며 공연장 내부의 배치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기 좋은 복합양식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공연 포스터 속 공연의 제목과 기사 내용을 통해 10주년 기념 공연이라는 공연 기획 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가)는 공연에 대한 기사로 5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나)는 동영상 자료로, 소리를 포함하고 있다.

⑤ (다)는 좌석 배치도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줄글로 설명한 내용을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보기>에는 이 글을 쓴 목적(공연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연을 소개하고자 함)과 이 글의 예상 독자(공연에 오지 못해 아쉬워할 사람들)가 드러나 있다. ⑤의 '공연 무대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방안'은 공연 주최 측이 고민할 만한 내용으로, 이 글의 예상 독자와는 거리가 멀다.

13 (가)~(다)와 같은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알맞은 자료를 제시하고(ㄱ) 복합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한다(ㄷ). 자료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은 제외하고, 자료의 저작권을 확인하여 사용 허락을 받아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오답 풀이** ㄴ. 독자의 흥미보다 자료가 사실인지, 과장되거나 축소·왜곡된 내용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ㄹ.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해 글을 쓰면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4 창의적인 발상, 표현하는 재미



반어, 풍자, 역설 표현

간단+ 복습문제

47쪽

**꼭지 시험** 01 반어 02 풍자 03 역설 04 백성 05 탐관오리 06 출두 07 바람, 눈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진리 02 임기 03 분부 04 모순 05 형상화한 06 창작했다 07 우스꽝스러운 08 ㉠ 09 ㉡ 10 ㉢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8~49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④

01 어사또는 시를 지으며 잔치를 즐기자는 운봉의 제안을 듣고 부패한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시를 지어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암시했다.

**오답 풀이** ① 변 사또는 푸짐한 잔치상을 차리고 악공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잔치를 벌였다.

② 어사또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사령은 그가 생활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막아 세웠으나 운봉이 어사또가 양반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잔치에 들였다.

③ 잔치에 참석한 관리들은 어사또가 지은 한시를 듣고 그의 정체를 어렵פות이 눈치채고 자리를 떠났다.

④ 사령은 변 사또가 걸인인 생활잔치에 들이지 말라고 한 명령에 따라 초라한 차림의 어사또가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다.

02 (라)에 제시된 한시는 대구의 방법으로 탐관오리의 사치를 의미하는 시구와 백성들의 고통을 의미하는 시구를 제시하여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사출두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소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03 ㉠에서 어사또는 다른 사람의 푸짐한 상과 달리 초라한 자신의 상에 불쾌함을 느끼고 상을 발로 찼다.

04 (다)에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와 같이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역설 표현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춘향은 '높고 높은 바위', '푸르른 나무'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빗대어 몽룡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방 관리의 모습을 백송골에 놀라 자빠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③ (나)에서는 백성을 '파리'에, 지방 관리를 '두꺼비'에, 중앙 고위 관리를 '백송골'에 비유하였다.

⑤ (가)에서는 춘향의 말을 통해, (나)에서는 '두꺼비'를 희화화하여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05 춘향과 어사또의 대화에서 어사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춘향은 변함없는 몽룡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사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둘 사이의 오해가 풀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춘향은 수청을 들라는 어사또의 말에 내려오는 관리가 모두 부패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어사또의 정체를 알아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춘향은 “내려오는 벼슬아치들마다 하나같이 훌륭하기만 하구나.”라며 수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꼴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춘향의 말에서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높고 높은 바위’, ‘눈에도 빛이 변하지 않는 푸르른 나무’는 몽룡에 대한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춘향의 의지를 상징한다.

⑤ 어사또는 춘향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 06 ㉠은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상황으로 절망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고득점 서술형문제

50쪽

**1단계** 01 귀퉁이가 다 떨어진 개다리소반에 콩나물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만 달랑 놓여 있었다.

**2단계** 02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는 언어유희를 사용하였다.

**3단계** 03 [A]에서 춘향은 “내려오는 벼슬아치들마다 하나같이 훌륭하기만 하구나.”라는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어사또 또한 부정한 관리라며 비꼬고 있다. ‘(높고) 높은 바위’와 ‘푸르른 나무’는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바람’, ‘눈’은 시련을 상징하며 시련이 닥쳐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춘향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1단계

- 01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모인 다른 양반들은 다담상을 앞에 놓고 음식을 즐기고 있었으나, 행색이 변변치 않은 어사또는 초라한 상을 받았다.

#### 2단계

- 02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와 같은 표현은 문과 바람, 물과 목의 적절한 위치가 서로 바뀌어 서술되어 웃음을 유발한다.

#### 3단계

- 03 [A]에는 어사또를 오해한 춘향이 반어 표현을 통해 어사또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의 지조와 본인에게 닥친 시련을 상징하는 자연물을 통해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평가 목표 | 반어 표현과 상징적 소재 의미 이해하기                                                                                                                           |
|-------|-------------------------------------------------------------------------------------------------------------------------------------------------|
| 채점 기준 | ✓ [A]에 쓰인 표현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5점]<br>✓ [A]에 쓰인 표현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쓰거나 상징적 의미의 단어와 그 의미를 모두 쓴 경우 [20점]<br>✓ [A]에 쓰인 표현만 제시하고, 다른 내용은 미흡하게 쓴 경우 [15점] |

#### 고득점 서술형문제

51쪽

**1단계** 04 두꺼비

**2단계** 05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형상화하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여 긴장감을 높인다.

**3단계** 06 ㉠에는 역설이 쓰였는데, 사랑이 끝난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 1단계

- 04 (나)의 종장은 초장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무서워 두엄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지고는 자신이 날째서 다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말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 2단계

- 05 (가)에 제시된 한시는 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질타하고 있다. 또한 암행어사 출두를 통해 이에 대한 응징을 할 것을 암시하며 사건의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3단계

- 06 ㉠은 사랑이 끝난 상황과 같이 희망이 없고 절망만 남은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은 사랑이 끝난 곳에 사랑이 남아 있다는 역설 표현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평가 목표 | 시구에 사용된 역설 표현과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
|-------|--------------------------------------------------------------------------------------------------------|
| 채점 기준 | ✓ 역설 표현과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쓴 경우 [25점]<br>✓ 역설 표현을 썼으나, ㉠이 의미하는 바를 미흡하게 쓴 경우 [20점]<br>✓ 역설 표현만 쓴 경우 [10점] |



####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 간단 복습문제

53쪽

**꼭지 시험** 01 영상 매체 02 복합적 03 역할 04 ㉠

05 ㉡ 06 ㉢ 07 ㉣ 08 ㉤ 09 클로즈업 샷 10 효과음

**어휘 시험** 01 형성하다 02 숙지하다 03 제작하다

04 분담 05 의도 06 총괄 07 공유 08 초상권 09 각색 10 출품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4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④ 05 시나리오의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글로 표현한 대본이고, 스토리보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화면에 담길 내용을 그림으로 구체화한 장면 연출 판이다.

01 영상 제작의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자신이 세운 기획 의도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주제와 상관없는 자극적인 소재를 구성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 때는 정보를 주기 위한 영상인지, 상대를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기 위한 영상인지에 따라 내용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작 목적을 정해야 한다.
  - ② 영상 제작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종류의 영상에 담았을 때 시청자에게 가장 잘 전달될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 ④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기획 의도가 드러날 수 있게 촬영 및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히 의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영상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⑤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자신이 완성한 결과물을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02 기획안은 제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제작 목적, 영상의 유형, 제작 영상을 공유할 매체, 예상 시청자, 제작 일정 등으로 구성된다. 배우의 구체적 움직임과 같은 사항은 기획안을 작성한 이후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쓸 때 설정한다.

03 헤제가 맡은 '편집'은 촬영이 끝난 데이터를 다루는 후반 작업을 담당하므로 촬영본의 흐름을 정리하고 효과를 넣는 업무를 주로 진행한다.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소품을 챙기는 일은 의상 및 소품 담당이 하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현소는 시나리오 담당으로 배우의 대사와 동작, 장면이나 그 순서를 상세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석현, 채빈은 연기 담당으로 배역에 맞게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표현하며 연기해야 한다.
  - ③ 윤서는 촬영 담당으로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게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 ⑤ 해운은 음향 담당으로 영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적절한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찾아 영상 편집 시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04 내레이션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행에 따라 내용을 화면 밖에서 해설하는 것이므로, ㉠을 석현이가 직접 말하는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서술형** 시나리오가 이야기의 흐름을 글로 표현한다면, 스토리보드는 그 글을 바탕으로 카메라 앵글, 인물의 위치, 화면 구도 등을 시각적으로 그려 낸 것이다. 즉,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에 담긴 생각을 구체화하여 영상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고득점 서술형문제

55쪽

- 1단계** 01 자막, 배경 음악  
02 ㉠ 기획안, ㉡ 저작권, ㉢ 거리  
**2단계** 03 영화를 시청할 예상 관객을 고려하여 제작 계획을 세우고 있다.  
**3단계** 04 컵라면 뚜껑을 뜯는 소리를 나타낼 효과음과 엄마의 목소리를 시각화한 자막을 영상에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  
05 아이 앵글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민우의 감정에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1단계

01 영상 매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정보를 전달한다. 시각적 요소인 자막은 인물의 대사나 상황 정보를 문자로 제시하여 시청자가 내용을 더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청각적 요소인 배경 음악은 장면의 긴장감을 높이거나 감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물의 심리와 작품의 분위기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02 영상을 촬영할 때는 기획 의도를 숙지하고 이를 반영한 영상 제작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클로즈업 샷, 미디엄 샷, 롱 샷 등의 기법을 통해 장면마다 의도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 2단계

03 <보기>에서 A는 영화제 성격에 맞춰 예상 관객을 '또래 친구들'로 파악하고 있고, B는 예상 관객을 고려하여 영상의 내용을 구성할 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3단계

04 영상 제작의 편집 단계에서는 촬영된 화면에 시청자의 이해와 몰입을 돕는 요소를 넣는 후반 작업을 진행한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컵라면을 뜯는 일상적인 소리를 효과음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직접 등장하지 않는 엄마의 목소리를 자막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혼자 생일을 맞는 석현이의 쓸쓸한 상황과 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평가 목표 |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
|-------|--------------------------------------------------|
| 채점 기준 | ✓ 편집 방법을 바탕으로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모두 제시하여 쓴 경우 [15점]    |
|       | ✓ 편집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명확하게 쓰지 못한 경우 [10점] |
|       | ✓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미흡하게 쓴 경우 [5점]                    |

05 <보기>와 같이 인물의 눈높이에 카메라를 맞추는 기법을 '아이 앵글'이라고 한다. 두 인물이 오해를 푸는 대화 장면에서 이 기법을 사용하면, 어느 한쪽을 위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는 느낌을 주어 시청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인물의 정서와 상황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 평가 목표 |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
|-------|----------------------------------------------------------------------------------------------------------------------|
| 채점 기준 | ✓ 아이 앵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쓴 경우 [15점]<br>✓ 안정적 분위기 연출을 위한 촬영 방법이라는 의도를 적절히 제시한 경우 [10점]<br>✓ 촬영 방법의 용어만 쓴 경우 [5점] |

###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56~59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은 낙엽을 떨어지게 하는 부정적 상황을 가져오므로 변 사또의 횡포를 의미하고, ㉡은 '나를 살리는' 긍정적 존재이므로 춘향을 구원하는 몽룡을 의미한다. 07 ② 08 ② 0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② 14 ⑤

- 01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해 있다. 서술자는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알고 있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며 내용을 전개한다.

**오답 풀이** ① 어사또의 한시는 대구와 은유를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한다.

② 암행어사 출두 직전의 모습을 열거하여 장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와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묘사로 장면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⑤ 어사또의 한시 내용에서 탐관오리의 사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02 [A]는 암행어사가 정체를 드러내기 직전에 던지는 메시지로, 이를 읽은 관리들이 당황하며 흠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곧 일어난 '어사출두'의 긴박함을 극대화하고 극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서사적 역할을 한다. 또한 '술'과 '안주'를 백성의 '피'와 '기름'에, '노랫소리'를 '원망 소리'에 대응시켜 탐관오리의 횡포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 03 ㉠ '시를 돌려 읽은 사람들'은 어사또의 등장을 직감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치기에 급급하며, ㉡ '변 사또'는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춘향을 부르려고만 하고 있다. 둘 모두 백성의 원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04 (다)에는 춘향이 자신의 처지를 낙엽과 오얏 꽃에 빗대어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한 비유적 표현만 나타날 뿐,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속의 진리를 전하는 역설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변 사또가 당황하여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 언

어유희를 보여 주는 장면으로, 긴박한 '어사출두'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모든 수령이 도망하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와 같은 표현은 서술자가 직접 사건에 개입하여 인물들을 평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나)에서 춘향이 새 사또(어사또)를 향해 "훌륭하기만 하구나"라고 말한 것은 진짜 칭찬이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비꼬는 반어적 표현이다.

④ (나)에서 몽룡은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춘향의 절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는 독자나 관객에게 '언제쯤 정체가 밝혀질까' 하는 긴장감을 주며, 이후 재회 장면에서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 05 풍자는 개인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방법으로, (가)에서는 어사출두로 탐관오리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며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어사또의 명령을 지배층의 위엄이 회복되는 엄숙한 상황으로 연출하는 것은, 부패한 관리들을 조롱하여 비판하려는 풍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

- 06 **사실형** ㉠ '가을'은 생명력을 잃고 떨어지는 '낙엽'의 이미지를 통해 변 사또의 횡포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진 춘향의 비극적 상황과 그 원인인 변 사또를 상징한다. 반면 ㉡ '오얏꽃'은 시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존재로, 어사출두를 통해 춘향을 구원한 몽룡을 상징한다.

- 07 (가)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지배층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반면 (나)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대상의 결점을 비꼬는 풍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상의 굳센 신념을 부각하려는 역설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는 역설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낼 뿐,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나)에 '보라'와 같은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을 뿐,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풍자를 통해 대상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주지만, (나)는 역설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08 (가)는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탐관오리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보기>의 상황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므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을 '호랑이'에 비유하여 위엄 있게 표현하는 것은 비판 대상을 긍정적으로 비추거나 높게 평가하는 태도이므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비판하려는 풍자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상을 동물인 '황소'에 비유하여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것은 (가)에서 두꺼비를 희화화한 것과 같은 맥락의 풍자적 표현이다.

③ 주변 사람들의 눈총은 무시하면서도 정작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모습은, (가)에서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비굴

하게 도망치다 자빠지는 상황을 투영한 문자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④ 개인의 무례한 통화 상황을 '동네 잔치'라는 큰 규모로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행동이 주변에 얼마나 큰 민폐인지를 비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잘못을 저질러 창피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명하는 모습은 (가)의 중장에서 두꺼비가 허세를 부리는 모습과 유사하므로, 적절한 문자 표현이라 볼 수 있다.

09 꽃잎이 흩어지는 것은 강물이 멈추고 새가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말하는 이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0 ㉠에는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어, 절망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창밖의 비가 내 마음을 적시는 것만 같다.'는 슬픈 감정을 비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여 표현한 것일 뿐, 문장 내에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영상 매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상이나 음악 등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을 준수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영철이처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가져다 쓰는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태도이다.

12 S# 1-3의 촬영 방법을 보면 '싱크대 하부 장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컵라면을 고르는 석현이의 얼굴이 나오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인물의 상반신이나 얼굴을 가까이서 포착하는 구도이므로, 거실이나 부엌 전체 배경이 보이는 S# 1-2의 구도보다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S# 1-3에서 컵라면을 고르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소품이 필요하다

③ S# 1-3의 컵라면은 어머니의 음성("아침 먹어야지", "여기서 꺼내 먹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재이므로 어머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S# 1-3은 하부 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며, S# 1-4도 뒷모습을 촬영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인물의 앞에서 뒤로 카메라를 이동하며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⑤ '효과음'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S# 1-3에는 '컵라면 뚜껑 닫는 소리', S# 1-4에는 '문 여닫는 소리'를 나타내는 효과음이 필요하다.

13 [장면 2]의 경우, 앞사람의 어깨 너머로 복도 끝에 있는 인물을 바라보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인물과 일정한 거리감을 두어 인물을 관찰하거나 소외된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얼굴을 화면 가득 채워 찍는 촬영 방법으로 [장면 2]를 찍기에 적절하지 않다.

14 장면에 따라 적절한 효과음을 사용하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하지만 모든 장면에 효과음을 활용하면 오히려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 \* 실전에 강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61~66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① 05 ③ 06 ①  
07 ⑤ 08 ⑤ 09 ⑤ 10 ① 11 ②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④ 17 단어의 의미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후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짧게 발음했기 때문이다. 18 ④ 19 ① 20 ②

01 동네 사람들이 김포 슈퍼나 형제 슈퍼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반응이 제시되지만,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김포 슈퍼가 먼저 확장하고, 이에 맞서 형제 슈퍼가 쌀과 연탄을 들여놓고, 다시 김포 슈퍼가 가격 인하를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일이십 원꼴로 낮추어 팔기 시작하였다'며, '180원 하는 과자는 170원으로, 300원짜리는 280원으로' 등 구체적인 가격과 개수를 제시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③ 두 슈퍼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경쟁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서술하고 있다.

④ '개업과 발을 맞춘 것임이 분명하였다', '의욕이 있을 수가 없었다' 등 서술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02 과자 값 10~20원 차이에 민감해하고, 계란이나 꿀을 덩으로 주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며, 비누가 50원 싸다는 말에 샀던 물건을 무르는 모습 등은 당시 서민들이 처했던 팍팍하고 가난한 경제적 현실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개인의 실속을 챙기고 있으므로, 공동체적 질서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

② 채소를 후하게 달아주거나 꿀을 덩으로 주는 내용이 나올 뿐,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는 시대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③ 단골이었던 형제 슈퍼 대신 단돈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김포 슈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물질적 실속을 챙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④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경쟁은 대형 마트의 침해가 아니라 이웃한 구멍가게끼리의 생존 경쟁이며, 소비 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나)에서 형제 슈퍼가 쌀과 연탄을 내놓은 것은 '김포 슈퍼의 개업과 발을 맞춘 것임이 분명하였다'라고 서술하며 김포 슈퍼와의 경쟁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04 세 가게의 갈등은 힘든 경제적 형편 때문에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05 (다)에서 시내 엄마는 싱싱 청과물을 쫓아낸 김 반장의 냉혹함에 치를 떨며 싱싱 청과물의 폐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같은 업종인 전파상이 마을에 새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6 (가)에서 동맹을 맺은 '두 가게'가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 대폭 가격을 내려 판매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성 청과물 사내는 김 반장에게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07 민재가 “솔직히 말해 봐.”라고 요청했을 때, 건우는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그건 좀 별로다.”라고 했고, 하리는 “맞아. 그 머리는 너한테 안 어울려.”라고 했다. 이는 민재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지나친 솔직함으로, 이로 인해 민재가 상처를 받아 갈등이 생겼다.

08 민재는 친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다.

09 ⑤는 (다)에서 건우가 한 말을 요약하고 재구성하여 건우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건우는 민재가 기분이 상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민재도 잘못했다고 하거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우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④ 상대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10 ㉠은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않음을 지적한 부분으로, 우리만의 문자가 없어 중국의 문자를 빌려 쓰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말을 표기할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한 자주정신이 담겨 있다.

11 ‘ㄹ’은 ‘ㄴ’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나, 일반적인 가획자와 달리 더해진 획이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를 갖지 않는 이체자에 해당한다.

12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는 ‘ㅇ’이고,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13 자음의 기본자 외의 자음은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거나 다른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거나(ㄷ), 두 개의 자음자를 세로로 이어 써서 만들었다. 모음의 기본자 외의 모음은 기본자를 합성하거나(ㅗ), 열한 자의 모음을 서로 합해서 만들었다(ㅕ).

14 [암호 1]의 첫소리는 기본자 ‘ㄹ’에 획을 두 번 더한 ‘ㄹ’이고 가운데소리는 ‘ㅣ’와 ‘ㅊ’를 합친 ‘ㅊ, ㅣ’ 중 하나이다. [암호 2]의 첫소리는 기본자 ㄴ에 획을 한 번 더한 ‘ㄴ’이고 가운데소리는 ‘ㅡ’와 ‘ㅊ’를 합친 ‘ㅊ, ㅡ’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파도’이다.

15 지수는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묶어서 쓰는 모아쓰기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했다. 현우는 모아쓰기가 단어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고정하여 의미를 쉽게 파악하게 해 준다는 장점을 짚었다. 민아는 모아쓰기 방식이 디지털 기기에서의 입력 효율성을 높인다는 가치를 분석했다. 모아쓰기 방식으로 쓴 문장이 풀어쓰기 방식으로 쓴 문장보다 읽는 속도와 의미 파악이 빠르기 때문에 은하의 설명은 알맞지 않다.

16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자음은 모음이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

17 **서술형**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자음과 모음, 말소리의 길이가 있다. <보기>에서 지후가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 하는데 짧게 발음해 영수가 사람의 ‘눈’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18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며 마찰을 일으키는 파찰음이다.

19 ‘줄랑줄랑’에 쓰인 자음 ‘ㄹ, ㅇ, ㅈ’은 예사소리이지만, ‘쫄랑쫄랑’에 쓰인 ‘ㅈ’, ‘출랑출랑’에 쓰인 ‘ㅈ’은 각각 된소리와 거센소리이다.

**오답 풀이** ② ‘출랑출랑’의 ‘ㄷ’은 거센소리이고 ‘줄랑줄랑’의 ‘ㅈ’은 예사소리이다. 예사소리보다 거센소리가 거칠고 센 느낌을 준다.

③ ‘쫄랑쫄랑’의 ‘ㅈ’은 된소리이고, ‘줄랑줄랑’의 ‘ㅈ’은 예사소리이다. 예사소리는 된소리보다 약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④ ‘ㅈ’은 예사소리, ‘ㅈ’은 된소리, ‘ㅈ’은 거센소리로, 이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음을 구분한 것이다.

⑤ 세 단어의 첫소리 자음 ‘ㅈ, ㅈ, ㅈ’은 모두 센입천장소리로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

20 딸은 ‘금촌’을 ‘금천’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엄마가 금촌의 ‘ㅇ’을 ‘ㄴ’로 발음했거나 딸이 ‘ㅇ’을 ‘ㄴ’로 들은 것이다. 따라서 엄마가 ‘금촌’을 발음할 때 원순 모음 ‘ㅇ’을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서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ㄴ’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평순 모음이다.

**실전에 강한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87~72쪽

|                                                                     |      |      |      |      |      |
|---------------------------------------------------------------------|------|------|------|------|------|
| 01 ③                                                                | 02 ④ | 03 ② | 04 ③ | 05 ③ | 06 ③ |
| 07 ③                                                                | 08 ② | 09 ④ | 10 ② | 11 ③ | 12 ④ |
| 13 어사또는 탐관오리의 사치(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 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      |      |      |      |      |
| 14 ⑤                                                                | 15 ③ | 16 ② | 17 ⑤ | 18 ③ | 19 ⑤ |
| 20 ④                                                                |      |      |      |      |      |

01 이 글은 인공 지능과 미래 일자리를 소재로 하여, 인공 지능의 발전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인공 지능의 발전이 미래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과 기대하는 시각을 모두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② (가)에서 인공 지능 아나운서의 사례,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업 연구소의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인공 지능의 발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02 ㉠은 뉴스 방송을 진행하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의 사례이고, ㉡은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미술 대회에서 우승한 그림이다.
- 03 [A]는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꺾은선 그래프로, 일차 리 수의 증가 추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게 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04 (나)에서는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길러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인공 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 05 ‘인공 지능 노출 지수’는 해당 직업의 업무 중에서 현재의 인공 지능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이다.
- 06 ㉡의 뒤에서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기술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식 및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 이유는 결국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7 (가)에 제시된 예상 독자, 글의 목적,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글을 쓰기 위한 다양한 복합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임의로 자료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08 (나)에는 공연에서 10년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에 풍성한 밴드 연주를 더하여 열창했다고 제시하였으나 노래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나)에 제시된 공연의 포스터와 공연의 성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공연의 기획 의도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의 인기 여에 대한 내용과 공연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④ (다)의 영상은 두드림의 신곡 발표 순간을 담은 영상이다. 그러므로 영상 내용에 제시된 신곡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영상을 블로그 글에 포함하여 독자에게 현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⑤ (라)는 공연장 공식 누리집에 제시된 공연장 정보와 좌석 배치도이므로 게시할 글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 09 인터넷 매체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서 음원 자료를 활용했을 때 그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음원 자료를 올릴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10 글에서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종류를 반드시 다양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1 (다)에서 어사출두에 놀라 허둥대며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이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희화화하였다. 또 (나)에서는 어사또의 한시를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와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대구를 이루어 표현하였다.
- 12 (라)에서 춘향을 만난 어사또는 춘향을 모르는 척하면서 일부러 춘향의 절개를 시험했다.

- 13 **서술형**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 ‘초봄의 눈물’, ‘노랫소리’는 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나타내고, ‘만백성의 피’, ‘만백성의 기름’, ‘백성들의 눈물’, ‘원망 소리’는 그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나타낸다.
- 14 ㉡은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시련이 닥쳐도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춘향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푸대접을 받은 상황을 비교는 반어적 표현이다.  
② 임행어사의 출두를 기점으로 화려한 잔치가 변 사또를 징벌하고 춘향을 구하는 장면으로 바뀌는 극적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③ ‘문’과 ‘바람’, ‘물’과 ‘목’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는 언어유희로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사또 또한 변 사또 못지않게 부정한 관리라고 비교는 반어적 표현이다.
- 15 이 시는 3~6행과 11~14행에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뿐, 수미상관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등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며 주제도 강조하고 있다.  
② 이 시의 3~6행과 11~14행에서 ‘~에서도 ~ 있다’의 비슷한 시구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이 시의 5행에 제시된 ‘봄 길’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과 미래를 내포하는 ‘길’을 통해 긍정적, 희망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시의 10행에서 ‘보라’라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 16 ㉡은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과 같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 17 ㉠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아 모순적인 역설 표현이 쓰였다. ㉡의 ‘찬란한 아픔’, ㉢의 ‘부자라도 가난하다’는 역설 표현이다.
- 18 ‘NAR.’은 ‘내레이션’으로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행에 따라 내용이나 줄거리를 화면 밖에서 해설하는 시나리오 용어이다.
- 19 ㉠은 S# 1-1의 효과음으로, 석현이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는 장면이므로 스마트폰 알람 소리를 청각적 요소로 제시해야 적절하다. 또 ㉡은 S# 1-3의 효과음으로, 석현이가 싱크대 하부장에서 컵라면을 꺼내는 장면이므로 싱크대 하부장을 여는 소리 또는 컵라면을 꺼내 뚜껑을 뜯는 소리 등을 청각적 요소로 제시해야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나)의 내용을 보면, 석현이는 혼자 집에 있고 석현이의 엄마는 출근을 하러 집을 비운 상태이다. 따라서 엄마와 관련된 효과음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 제시된 장면은 석현이를 가까이에서 촬영했다. 이처럼 클로즈업 숏 방법으로 대상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대상의 상태나 표정 등을 강조할 수 있고, 대상의 감정을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다.